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2호 2월 15일

평양 근로자사 발행 1961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잡 지

제 2 호(183)

1961년 2월 15일

차 례

권두언

청산리 교시 집행에서 얻은 성과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자

김 일성 동지의 청산리와 강서군 당 단체에 대한 현지 지도가 있은 지 1년이 지나 갔다.

이 기간에 청산리 방법은 한 점의 불꽃으로부터 료원의 불'길처럼 전국 각지에 타번져 전 당과 전체 인민의 심장을 튼튼히 틀어 쥐였으며 우리 인민의 정치, 경제, 문화, 정신 생활에서 거대한 전환을 가져 왔다.

청산리 방법—이것은 우리 당의 맑스-레닌주의적 령도 방법이며 우리 당 군중 로선의 탁월한 구현이다.

김 일성 동지는 청산리에 대한 현지 지도에서 현 시기 우리 당 사업 발전에서와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제기된 가장 절실한 문제를 제때에 정확하게 포착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학적인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김 일성 동지의 지도 하에 당 중앙 위원회는 이에서 얻은 경험을 전 당에 일반화하였다. 이리하여 청산리 방법은 전 당에 확고히 수립되였으며 우리 당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 획기적인 계기를 열어 놓았다.

청산리 방법이 구현됨으로써 지방 당 단체의 사업 체계와 방법은 조성된 새 환경에 적응하게 급속히 개편되였다. 우리 당의 전진을 가로 막고 있던 관료주의와 형식주의의 낡은 틀이 전면적으로 마사지고 중앙이 도를 도와 주며 도가 군을 도와 주고 군이 리를 도와 주는 기풍이 전 당에 확립되였다.

우리의 지도 일'군들은 생산 현장으로, 군중 속으로 깊이 침투하여 모든 문제를 군중과 상론하고 해결하였으며 전체 당원들과 군중을 한결같이 동원할 수 있게 되였다. 이리하여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당의 령도적 역할이 높아지고 당의 핵심 진지가 공고화되였으며 당과 대중과의 련계는 더욱 두터워졌다.

리현리 당 총회에서 김 일성 동지는 지난 한 해 동안에 달성한 거대한 성과를 말씀하면서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지적하시였다.

그것은 우선 당내에 더욱더 많은 당 핵심이 형성되였다는 사실이다. 청산리 방법을 관철하는 사기 왕성한 투쟁 행정에서 간부들, 당 핵심들 그리고 전체 당원들과 조합원들이 당에 충실히 복무하려는 각오 정도와 열성, 적극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모든 사업에 정치 사업이 선행되고 전체 당원들을 당 사업, 경제 사업에 인입하기 위한 투쟁이 부단히 적극적으로 조직 진행된 결과 많은 당원들이 핵심 당원으로 자라 났으며 실천적 투쟁에서 선봉적, 모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였다. 특히 당 정책 교양, 혁명 전통 교양을 통하여 우리의 핵심 당원들은 항일 빨찌산의 고상한 혁명 정신을 본받아 어

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서 전체 당원들과 군중을 힘 있게 이끌고 나가게 되였다.

우리의 당원들 속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곤난을 뚫고 나아가며, 백절불굴의 혁명 정신으로 당 정책, 수상 동지의 교시를 이악하게 달라 붙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이 확립되였다.

다음으로는 모든 지도 일'군들, 당 단체 일'군들과 관리 일'군들 그리고 작업반장들과 선동원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를 더 잘 알게 된 그것이다.…

청산리 방법을 배우고 그것을 자기 사업에 구현하는 행정에서 우리 일'군들은 특히 당을 믿고 당의 력량에 의거하여 사업할 때 어떤 어려운 일도 극복 못할 일이 없다는 진리를 똑똑히 깨닫게 되였다. 그들은 당 력량을 옳게 배치하고 대중 속에 당 정책, 수상 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침투시킬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기대 옆에서, 논발에서 당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분공을 조직하여 당원들의 단결된 힘으로 부닥친 난관을 용감하게 타개해 나가고 있다. 특히 분공을 조직할 때에는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준비 정도와 소질, 능력 등을 고려하여 누구나 다 자기의 재능과 힘을 남김 없이 발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당원의 힘을 믿고 항상 당에 철저히 의거함으로써 곤난을 뚫고 대중을 혁명 과업 수행에로 성과 있게 조직 동원한 리현리 제 4 작업반장 전 직수 동무의 사업을 높이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 핵심에 의거해서 사업한 것이 아주 좋다. 당의 력량을 믿고 당원들을 발동하여 문제를 혁명적으로 해결하였다. 논판에서 당 회의를 연 것은 더욱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항일 빨찌산들의 사업 방법이며, 전선에서, 고지 우에서 우리 인민군 용사들이 하던 방법이다…

오늘 우리의 당 일'군들, 국가 및 경제, 문화 기관 일'군들은 이 방법에 의거하여 당원들과 전체 군중을 한결같이 발동시켜 어떤 어려운 혁명 과업도 성과 있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

청산리 방법을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달성한 성과 중에서 … 제일 귀중한 것은 우리의 당원들이 자연만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군중을 설복하고 교양하며 뒤떨어진 사람을 개조하여 우리 당 주위에 더욱 굳게 묶어 세웠다는 것이다…

자연을 개조하는 것보다 사람을 개조하는 것은 몇 배나 힘든 일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나아감에 있어서 사람들의 의식을 개변하는 사업은 가장 힘든 일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이 문제는 성과 있게 해결되고 있으며 사람을 교양하고 개조하는 사업은 공장, 농촌 할 것 없이 도처에서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 당원들은 뒤떨어진 사람들을 개조하며 어렵게 살던 사람들을 잘 살게 도와 주어 전체 군중을 우리 당 주위에 더욱 튼튼히 집결시키고 있다. 길 확실, 리 신자와 같은 공산주의적 선진 분자들이 도처에서 속출되고 있다. 그들은 항일 빨찌산들의 설복과 교양의 방법을 배워 긍정적 모범으로 대중을 교양하여 부정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동지들을 이끌어 나아가고 있다. 이것은 쌀 몇 백만 톤이나 황금 몇 만톤보다 더 귀중한 것이다.

오늘에 와서 《적대 분자를 제외하고는 못 고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우리 당원들, 우리의 천리마 기수들의 확고한 신념으로 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이 낳은 위대한 열매이다.

당 사업이 발전되고 당의 령도적 역할이 제고됨에 따라 농촌 경리를 비롯한 인민 경제 모든 분야에서도 거대한 앙양이 일어 났다.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관리 운영 사업이 개선되고 계획화 수준이 제고되였으며 농사 짓는 데 모든 력량이 집중되였다. 사회주의 분배

원칙이 관철되고 작업반 우대제가 정확히 실시됨으로써 농민들의 생산 의욕이 비상히 높아졌으며 농산 사업에서 거대한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공업 분야에서도 청산리 방법을 생활에 구현하여 있는 로력, 있는 설비로써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에로 근로자들을 불러 일으킴으로써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가져 왔다. 이와 같이 지난 해 완충기의 과업은 성과 있게 수행되였으며 7개년 계획의 웅대한 과업을 능히 수행할 수 있는 튼튼한 물질 기술적 토대가 축성되였다.

청산리 방법이 가져 온 위대한 결실— 이것은 우리 당 단체들이 사람들과의 사업에서 달성한 위대한 성과이며 우리 당 군중 로선의 빛나는 승리이다.

청산리 방법의 기본 정신은 모든 일'군들이 군중 속에 깊이 들어 가 그들에게서 배우고 그들을 가르치면서 광범한 군중을 교양하고 개조하여 우리 당 주위에 튼튼히 묶어 세우는 우리 당 군중 로선의 철저한 구현에 있다.

지난 해에 우리의 당 건설 분야에서와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그리고 인민들의 정치 사상 생활에서 달성된 빛나는 성과들은 모두가 우리 당원들, 우리 인민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그것을 관철하는 투쟁에 자각적으로 궐기한 결과에 얻어진 것이다.

오늘 우리 당은 활동하는 당, 움직이는 당, 밀며, 이끌며 전진하는 위력한 당으로 되였다.

우리 당이 오랜 기간을 두고 천신만고의 투쟁을 진행하여 온 이 문제는 오늘에 와서 기본적으로 해결되였다.

우리 당은 이 토대, 이 밑천으로 하여 100만 당원을 다 공산주의 혁명 투사로 만들며 더욱더 광범한 군중을 교양하고 개조하여 우리 당 주위에 묶어 세우는 사업에 전면적으로 달라 붙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이 공화국 북반부의 전체 군중을 한 사람도 남김 없이 붉은 일색으로 만들어 당면한 혁명 과업을 더욱 성과 있게 추진시킬 수 있는 튼튼한 밑천으로 된다. 그 뿐만 아니라 이것은 남북의 문이 열리고 우리 당이 남반부에 나가 활동하게 될 때에도 그 곳 인민들을 모두 교양, 개조하여 다 우리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이 밑천, 이 토대를 가지고 계속 전진한다면 우리는 백전 백승할 것이며 우리 혁명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자만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할 일이 태산같다.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7개년 계획의 더 높은 고지를 점령해야 하며 조국 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앞당겨야 한다.

이 과업을 성과 있게 수행하는 튼튼한 담보는 청산리 방법을 더욱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당을 계속 튼튼히 꾸리고 더욱더 광범한 군중을 당의 주위에 집결시키는 데 있다.

각급 당 단체들, 전체 당원들과 지도 일'군들은 이미 얻은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모든 부문, 모든 초소, 모든 고리들에서 청산리 방법이 더욱 철저히 관철되도록 계속 부단한 주의를 돌려야 하며 이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각급 당 단체들은 조성된 새 환경에 적응하게 당 사업 체계와 방법을 개편하는 데 계속 적극적으로 달라 붙어야 한다.

책임 일'군들로부터 군 당 지도원, 리 당 위원장, 당 단체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매개 일'군들이 더욱 깊이 생산 현장에 침투하여 실정도 료해하고 사업도 조직해 주고 계획도 같이 세워 주면서 당 정책과 당 상급의 결정, 지시 집행을 위한 투쟁에 전체 당원들과 군중을 한결같이 동원시키는 군중 공작 방법을 완성하여야 한다.

당 단체들은 당 핵심을 육성하여 그의 대렬을 부단히 확대하는 동시에 당원들 속에 당 정책과 당의 의도를 철저히 해석 침투시키며 그들에게 빈틈 없는 구체적인 분공을 주고 그의 실행을 일상적으로 도와 주어 그들이 대중 속에서 모범적, 선봉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 사업은 전체 대중의 사업이며 대중의 적극적인 참가 하에서만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당원들을 다 핵심 당원으로 만드는 사업과 함께 당원들을 통하여 전체 군중을 교양 개조하여 당의 주위에 튼튼히 묶어 세우고 그들을 당의 의지 대로 한결같이 이끌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경험은 우리가 이악하게 달라 붙어 군중을 열 번, 백 번 설복하고 교양한다면 반혁명 분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을 다 교양하고 개조하여 우리 당 주위에 집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각급 당 단체들은 근로자들 속에서의 당 정책 교양, 혁명 전통 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의 자각적 열의를 불러 일으키며 군중의 요구와 희망을 정확히 알아 내여 제때에 해결해 줌으로써 혁명 과업 수행에서 그들의 혁명적 열성과 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킬 것이다.

특히 긍정적 모범으로 사람들을 감화시켜 부정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인내성 있게 군중을 교양하고 설복하여 전체 군중을 한 사람도 남김 없이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개조하는 사업에 계속 중요한 당적 주의를 돌려야 한다.

각급 당 단체들과 모든 지도 일'군들은 당원 대중의 힘을 믿고 항상 당에 의거하여 사업할 줄 알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는 주저 없이 생산 현장에서 당 위원회, 당 총회들을 열고 광범한 당원들의 의견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분공을 조직하며 전체 당원들과 군중의 힘으로 그것을 뚫고 나가는 혁명적인 사업 방법을 자기 사업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당과 대중이 한덩어리가 되고 상하가 관통하여 모두가 한 가지로 숨 쉬고 한 가지로 말하고 한 가지로 행동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혁명 과업도 성과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각급 당 단체들은 현재 진행 중인 청산리 교시 집행 총화 사업을 더욱 높은 정치적 수준에서 보장함으로써 이미 달성한 성과를 더욱 공고 발전시킬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만이 우리는 당, 국가 및 경제, 문화 기관의 모든 사업 단위와 고리들에서 청산리 방법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 수 있으며 나라의 사회, 경제 발전을 더욱 강력히 추진시키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더욱 앞당길 수 있는 것이다.

청산리 방법은 1930년대에 확립된 인민적 사업 작풍과 방법의 계승 발전이다

구 영 준, 김 영 걸

청산리 방법—이것은 우리 당의 세련된 맑스-레닌주의적 령도 방법이다. 이것은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가져 오는 강력한 추동력이다.

여기에는 우리 당의 인민 대중에 대한 혁명적인 군중 관점이 철저하게 구현되여 있으며 우리 당 군중 로선이 관통되여 있다.

청산리 방법은 관료주의, 형식주의와 대치되며 대담하게 군중 속에 들어 가 군중을 믿고 군중에 의거하여 사업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또한 모든 일을 과학적으로 타산하고 계획적으로 조직하며 중심 고리를 찾아 내여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는 창조적 수완과 일단 시작한 일은 이악하게 달라붙어 끝까지 관철하는 완강한 투지와 혁명적 전개력을 요구한다.

철저하게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청산리 방법은 어제 오늘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이것은 1930년대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확립된 인민적 사업 작풍과 방법이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장기간에 걸친 혁명 투쟁의 불'길 속에서 더욱 풍부화되여 개화된 것이다.

오늘 청산리 방법의 력사적 뿌리를 똑똑히 찾고 그가 발전해 온 길을 깊이 파악하는 것은 우리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더욱 완성시킴에 있어서 실로 거대한 리론적 및 실천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1)

1930년대에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인민적 사업 작풍과 혁명적 사업 방법의 빛나는 전통이 이룩되였다.

조선 인민의 항일 무장 투쟁은 간고한 투쟁이였다.

당시 공산주의자들은 강대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상대로 하여 싸웠으며 그것도 공고한 후방이 없이 적들의 사면 포위 속에서 15 여 성상에 걸친 장구한 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모든 나라 로동 운동의 력사는 당이 있는 조건 하에서 그 당의 지도 하에 빨찌산 운동들이 진행되였으며 대중을 전취하는 사업들이 전개되였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공산주의자들 앞에는 항일 무장 투쟁을 조직 전개함과 동시에 그 투쟁을 통하여 혁명 운동의 대중적 지반을 구축하

고 당 창건을 준비하여야 할 력사적 과업이 부과되여 있었다.

이 어려운 혁명 과업은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철두철미 인민적인 사업 작풍과 방법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였다. 왜냐 하면 적은 력량으로 강대한 적을 타승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광범한 군중을 쟁취하여야 하며 그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원조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기된 혁명 과업이 어렵고 투쟁이 간고하다고 하여 반드시 그러한 사업 작풍과 방법이 수립되는 것은 아니다.

1930년대 이전 시기의 모든 투쟁들이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결함의 하나는 이 투쟁들이 대중적 지반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였다. 지어 맑스-레닌주의의 영향 하에 일어 난 운동마저 협소한 테두리를 벗어 나지 못하였으며 혁명적 리론과 실천의 유기적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조선 인민의 애국적인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이 백전 백승의 리론인 맑스-레닌주의와 결합된 것은 1930년대부터이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공산주의자들은 항일 무장 투쟁을 맑스-레닌주의적 전략 전술에 확고히 기초하여 진행하였으며 주체성 있게 혁명 력량을 준비하면서 무장 투쟁을 당 창건 준비 사업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였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공산주의자들은 철저한 애국자들이였다. 그들은 오직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쳐 싸웠고 필요하다면 목숨까지라도 바치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

항일 빨찌산들이 가지고 있던 이러한 고상한 혁명 정신과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굳은 신념,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은 그들로 하여금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민 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였으며 그들의 리익을 옹호하여 싸우게 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관료주의도, 형식주의도 용허되지 않았으며 오직 인민적인 사업 작풍과 방법만이 지배적인 것으로 될 수 있었다.

항일 빨찌산은 혁명적 동지애로 굳게 단결된 혁명 군대였다.

그들은 모두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 인민의 아들딸들로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단결되여 있었으며 오직 일제를 반대하며 조국 광복을 위하여 싸웠다. 유격대원들의 혁명적 동지애는 바로 이러한 계급적 처지의 공통성과 투쟁 목적의 동일성으로부터 흘러 나왔으며 그것은 김 일성 동지의 거듭되는 교시와 실천적 모범에 의하여 더욱더 강화되였다.

이리하여 항일 빨찌산들은 상하 간이 하나의 의지로 굳게 단결되였으며 상관들은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부하를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아 주었으며 모든 사업에서 솔선 수범하는 것으로서 그들을 더욱 고무하였다.

유격대의 상관들은 진공시에는 언제나 선두에 섰고 퇴각시에는 뒤에 섰으며 부하들의 생활에 대하여서도 일상 따뜻한 배려를 돌렸다. 식량이 부족하면 자기 몫을 양보하였고 추울 때는 자기 옷도 벗어 주었으며 부상 당하면 업고 다니였다.

유격대원들은 또한 동지의 재난과 위험을 자기 몸으로 막았으며 공로와 찬양은 동지에게 돌아 가게 하고 실책과 결함은 자기에게서부터 찾았다. 그들은 자기 개인의 편의와 리익 때문에 동지들에게 불편과 해를 끼치지 않았으며 언제나 자기보다 동지와 대중을 먼저 생각하였다.

유격대원들의 동지애는 그것이 단순한 《우정》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그들이 생명을 바쳐 가면서까지 동지를 아끼고 사랑한 것은 오직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서였다. 그런 것만큼 동지에게서 과오가 나타났을 때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비판하였으며 과오를 범한 사람도 또한 철저하게 자기 비판하

였다. 그들은 동지의 과오를 자기 일처럼 뼈저리게 생각하고 아파하면서 진심으로 동지를 고쳐 주기 위하여 비판하였다.

혁명적 동지애는 이와 같이 진실하고 따뜻한 비판과 자기 비판 속에서 더욱 더 강화되였다.

혁명적 동지애가 전체 유격대를 하나의 의지로 굳게 단결시켰다면 혁명적 군중 관점과 인민적 사업 작풍은 유격대와 인민 대중을 혼연 일체로 되게 하였다.

항일 빨찌산들의 군중 관점은 철저하게 맑스-레닌주의적 관점이며 로동 계급의 관점이였다. 그들은 오직 인민 대중에 의거하고 인민 대중과 혼연 일체가 됨으로써만 백전 백승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으며 또 그렇게 실천하였다.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유격대는 인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구호는 그들의 행동 강령이였다.

1934년 봄, 김 일성 동지는 왕청현 당궤 부락 공격 전투를 앞둔 한 중대를 검열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들을 믿고 인민들에게 의거하면서 사업을 옳게 하기만 한다면 전투는 더 쉬울 수 있고 승리는 더 크리라는 것을 타산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실패할 수 있는 전제이다. 지금은 봄이고 밭갈이 때여서 인민들은 거의다 성 밖에 나와 일을 하는데 성 안에 들어가 정찰을 한다는 것은 위험도 하거니와 인민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 정확한 정찰을 할 수도 없다… 우선 밭갈이하는 농민들을 찾아 가서 바쁜 일'손도 도와 주며 정찰도 하고 싸움할 때에는 인민들을 어떻게 조직 동원하겠는가 하는 것을 잘 타산해 보아야 한다….

중대는 이 말씀을 명심하고 정확히 실행한 결과 적들 속에 들어 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고도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항일 빨찌산들은 이와 같이 김 일성 동지의 교시와 모범에 고무되여 일상적으로 군중 속에 들어 가 군중에 의거하여 사업하면서 혁명 발전에서 가장 성숙된 문제들을 제때에 포착하고 군중의 힘을 동원하여 그것을 성과 있게 해결하였다.

항일 빨찌산들은 또한 철저하게 인민 대중의 리익을 옹호하여 투쟁하였으며 인민 대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을 가장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하였다.

그들은 항상 《죽어도 조국을 위해 죽고 살아도 인민의 사랑 속에서 살겠다》는 불타는 념원과 의지로 충만되여 있었다.

불굴의 투사 리 제순 동지는 적들에게 체포되여 희생되게 된 마지막 순간에 다음과 같이 썼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위하여 일생을 바쳤고 그것을 확신함으로써 실망하지 않고 죽을 수 있는 광명의 그 날은 멀지 않았다는 데 있소. …삼천만 우리 인민들과 후손 만대의 번영과 행복을 위하여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나의 두 아이의 미래를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였으며 량심껏 싸웠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죽는 바이요…》.

이와 같이 항일 유격대원들은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혁명과 인민 앞에 지닌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며 그것으로 하여 자기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

항일 빨찌산들은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충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민 앞에서 또한 소박하고 겸손하였으며 례절을 잘 지켰고 그들의 요구에 민감하였다. 그들은 군중 앞에서 자기를 뛰여 난 존재로 느껴 본 적이 없으며 항상 군중에게서 허심하게 배웠고 군중이 아파하는 점을 알아 내여 제때에 해결해 주었다.

항일 빨찌산들의 이러한 인민적인 사업 작풍은 언제 어디서나 인민들의 심장을 튼튼히 틀어 쥐였으며 그들 속에서 유격대에 대한 광범한 지지와 성원을 불러 일으켰다.

항일 빨찌산들은 이러한 인민적인 사업 작풍과 함께 또한 혁명적 사업 방법의 전통을 수립하였다.

항일 빨찌산들의 인민 대중과의 사업의 기본 방법은 설복과 교양이였다. 이것은 맑스-레닌주의 본질로부터 흘러 나오는 대중 지도의 기본 방법이다.

항일 빨찌산들은 유격대와 인민 대중 속에 부단히 혁명의 성격과 목적, 그의 수행 방도들을 인내성 있게 해설 침투시켰으며 제국주의 멸망의 불가피성과 혁명 승리의 필연성, 원쑤에 대한 적개심,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으로 그들을 교양하였다.

설복과 교양은 유격대의 일상 생활에서 혁명적 단결과 자각적 규률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대원들을 일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사람이란 가르치기에 달린 것이다…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생명까지도 내놓으면서 적들과 싸우는 혁명 동지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다 한 가지로 원칙성만을 강조하거나 군사적 명령만으로는 안 된다… 반드시 설복과 교양이 동반되여야 한다… 진정으로 동지를 사랑하지 않고는 그의 결함을 고쳐 줄 수 없는 것이다….

항일 빨찌산들은 이러한 교시에 고무되여 동지들의 결함과 과오를 따뜻한 충고로써 고쳐 주었으며 개인 리기주의, 자유주의 등 낡은 사상 잔재도 설복과 교양의 방법으로 극복하여 나갔다.

특히 어버이의 심정으로 대원들을 교양하고 가르친 김 일성 동지의 거듭되는 실천적 모범은 유격대원들의 혁명적 단결과 자각적 규률을 강화함에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놀았다. 이리하여 유격대 내에서는 간부가 대원에 대하여서는 두말할 것도 없고 대원들 호상간에 있어서도 서로 설복하고 교양하는 아름다운 미풍이 확립되였다.

항일 빨찌산들은 인민 대중과의 사업에서도 설복과 교양을 위주로 삼았다.

그들은 대중이 모른다고 하여 비난하지 않았으며 대중이 오해하였다 하여 욕하지 않았다.

그들은 설복과 교양을 대상에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면서 대상이 납득할 때까지 몇 번이고 인내성 있게 반복하였다. 그들은 어떠한 해설 사업에서도 형식주의를 철저히 배격하였으며 군중이 알아 듣기 쉬운 말로 비근한 실례를 들어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군 하였다.

그들의 알기 쉽고 명료한 해설 선전은 항상 인민 대중을 뜨겁게 감동시켰으며 그들을 반일 투쟁에로 힘 있게 고무하였다.

항일 빨찌산들은 대원들과 인민 대중을 설복하고 교양하는 사업과 함께 또한 그들을 한결같이 움직이게 하는 조직 사업을 세밀히 하였다.

구체적인 분공과 집행의 조직, 총화 사업이 없이는 대중의 힘을 물질적 력량으로 전변시킬 수 없다.

항일 유격대 내에서는 모든 당원들과 대원들에게 구체적인 분공이 조직되였다. 전투를 앞둔 당 회의에서는 뒤떨어진 어느 대원은 누가 맡아 교양을 주고 어느 신입 대원의 총은 누가 닦아 주고 어느 대원의 병은 누가 책임지고 돌봐 준다는 식으로 아주 세밀하게 분공을 하여 만단의 준비를 갖추군 하였다.

분공은 대상의 준비 정도와 소질, 능력 등에 알맞게 조직되였으며 분공 준 후에는 그의 실행 정형을 정확히 총화하였다.

소대의 당 소조 회의와 중대의 당 지부 총회들에서는 일상적으로 당원들의 분공 실행 정형이 총화되였다. 당시 소조 회의에서는 상급 당의 결정과 지시 실행을 위한 문제, 군사 정치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취급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토의하면서 그때마다 당원들의 분공 실행 정형 총화들이 높은 정치적 수준에서 진행되였다.

항일 유격대에서는 대중을 적극 발동시키기 위하여 하급 당 조직과 사회 단체 및 군중 속에 순시원(당 기관 부장

외의 일’군들과 지방 당 단체에 파견되는 지도원들을 말함), 정치 공작원, 간부들이 직접 파견되여 사업을 도와 주고 지도하였다. 그들은 밑에 내려 가 아래 일’군들과 침식을 같이 하면서 사업을 계획하고 조직해 주었으며 당원들에 대한 분공을 통하여 전체 대원들과 군중을 발동시키군 하였다.

이와 같이 간부들은 당원들을 발동시키고 당원들은 대원들을 발동시키고 대원들은 군중을 발동시키는 모범이 1930년대에 이룩되였다.

항일 빨찌산들은 또한 모든 혁명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항상 중심 고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였다.

그들은 한 개의 전투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적과 아군의 력량 관계를 잘 타산한 기초 우에서 주공과 조공을 옳게 규정하고 적의 가장 약한 고리에 공격을 집중함으로써 적은 력량을 가지고도 항상 백전 백승하였다. 그들은 승산 없는 전투는 조직하지 않았으며 전투를 진행하면 꼭 승리하군 하였다.

이 원칙은 대중과의 사업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였다. 그들은 우선 군중 속에 들어 가 군중의 사상 동태와 감정, 풍습 등을 상세히 조사 장악한 후 그에 알맞게 중심 고리를 잡아 가지고 정치 선동 사업을 전개하여 대중을 반일 투쟁에 성과 있게 조직 동원하였다.

그리고 일단 중심 고리를 틀어 쥐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한 다음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완강한 투지와 혁명적 전개력을 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고야 마는 혁명적 기풍을 견지하였다. 이것은 매개 전투에서는 물론 대중 정치 사업에서나 정찰 사업, 적군 와해 공작, 반일 부대 쟁취 투쟁 등 모든 사업 분야에서 그러하였다.

항일 빨찌산들은 15 여 성상에 걸친 간고한 무장 투쟁 행정에서 항상 이러한 인민적인 사업 작풍과 방법을 견지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인민 대중의 적극적인 지지 성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따라서 수량상으로 우세하고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와의 싸움에서도 빛나는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

(2)

1930년대에 확립된 인민적 사업 작풍과 방법은 해방후 우리 당에 의하여 계승되고 발전되여 왔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우리 당의 령도 핵심들은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바로 그러했던 바와 같이 일상적으로 군중 속에 들어 가 군중에 의거하여 사업하면서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 작풍과 방법을 대중의 경험에 의하여 부단히 보충하고 풍부화시켰으며 실천적 모범을 통하여 그것을 전 당에 널리 일반화시켰다. 특히 전후 복구 건설의 어려운 시기에 들어 와서는 더욱 정력적으로 로동자들 속에 들어 가 그들과 함께 예비를 찾아 내고 계획을 세워 주며 그들을 증산과 절약 투쟁에 불러 일으키는 산 모범을 보여 주시였다.

그러나 한때 우리 당의 일부 지도적 지위에 잠입하였던 허 가이, 박 창옥 등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들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 작풍과 방법을 유린하고 반인민적인 관료주의와 형식주의 작풍을 당내에 퍼뜨려 놓았다. 이것은 당시에 우리의 일부 당 및 정권 기관에 들어 앉았던 종파 분자, 이색 분자들의 책동과 유착되여 일시적이나마 우리의 당 사업 발전에 일정한 저해를 주었다.

우리 당은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반대하여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것은 동시에 1930년대에 확립된 인민적 사업 작풍과 방법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이였다.

당은 우선 우리 일’군들의 머리 속에 남아 있는 봉건적 및 자본주의적 사상 잔재를 청산하는 투쟁에 불을 걸었다.

그 당시 우리 일’군들 속에 관료주의, 형식주의가 침습되게 된 것은 우리 나라 경제 형태에 아직 남아 있던 자본주의적 요소의 영향과 일제 통치가 남긴 낡은 사상 의식의 잔재의 발현 때문이였으며 다음으로는 절대 다수 일’군들이 혁명적 경험이 적고 대중을 혁명적으로 지도하는 능력과 옳바른 령도 방법을 소유하지 못한 탓이였다. 그 중에서도 결정적이고 주되는 것은 낡은 사상 잔재의 발현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당은 관료주의와 형식주의 작풍의 본 바탕인 낡은 사상 잔재의 청산에 화력을 집중한 것이다.

이에 있어서 1946년에 진행된 건국 사상 총 동원 운동을 비롯하여 력사적인 1952년 2월 연설, 1955년 4월 전원 회의 등은 그의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특히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서 우리 당은 제 3차 당 대회 이후 사상 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하며 당 사업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제 1차 당 대표자회를 계기로 하여 우리 나라 로동 운동에서 력사적으로 물려 받은 종파의 잔당들이 종국적으로 청산되였다. 지금까지 당내에 남아 있으면서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 작풍과 방법을 흐리게 했으며 우리 일’군들에게 관료주의, 형식주의, 교조주의를 부식하던 암이 제거되였다.

당의 정확한 령도 밑에 도시와 농촌에서는 사회주의적 경리 형태가 완전히 승리하였다. 농민들과 도시의 중 소 상공업자들은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개조되였다. 낡은 사업 작풍과 방법을 산생하던 사회적 근원도 영원히 없어졌다.

당내에서는 종파 여독을 청산하기 위한 사상 투쟁을 통하여 전 당에 당적 사상 체계가 철저히 확립되였다. 당의 핵심 진지는 더욱 공고화되였으며 당, 국가 및 경제, 문화 기관들은 계급적 립장이 확고하며 당에 무한히 충실한 일’군들로써 튼튼히 꾸려졌다.

이러한 제 조건은 당내에 부식되였던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 작풍과 방법을 전 당에 확립할 수 있는 튼튼한 담보로 되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였다.

당시까지만 하여도 우리의 일부 일’군들에게는 계속 관료주의, 형식주의의 여독이 남아 있어 우리의 전진 운동을 저애하고 있었다. 물론 이것은 아직도 낡은 사상 잔재가 완전히 가셔지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일’군들이 맑스-레닌주의적 령도 방법을 정확하게 체득하지 못하고 있은 사정과 직접 관련되여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은 이미 얻은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모든 일’군들에게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 작풍과 방법을 배워 주고 가르쳐 주는 사업에 력량을 집중하였다.

이에 있어서 청산리에 대한 현지 지도는 하나의 력사적 전환점으로 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협동화가 완성되고 조합들이 리 단위로 통합된 조건 하에서 리는 하나의 말단 행정 단위인 동시에 기본 생산 단위로 되였다. 여기에서는 농업 생산, 분배, 소비, 교환의 제 관계에서와 당 건설 분야에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며 그것들은 일’군들로 하여금 새로운 작풍과 방법으로 일할 것을 요구하였다.

일’군들의 령도 방법의 성숙 정도는 이러한 정황 속에서 어떻게 능숙하게 문제를 처리하는가에 의하여 검증된다.

지난 기간 우리의 지방 당 및 정권 기관 일’군들은 많은 시간을 리에 내려가 사업하면서도 어느 개별적 측면은 해결할 수 있었으나 리 사업에서 걸리고 있는 가장 성숙된 문제를 타개하지 못하였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는 풀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 일'군들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부족하였다. 그들에게는 더욱 성숙된 령도 방법이 요구되였다.

청산리에 대한 김 일성 동지의 현지 지도는 바로 이 문제를 풀고 그의 경험으로 우리 일'군들을 튼튼히 무장시켰다.

김 일성 동지는 청산리를 지도하시면서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심오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 능숙한 수완으로써 농촌의 구체적 실정을 과학적으로 분석 종합하고 중요한 것과 차요한 것들을 가려내여 비단 청산리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주의 건설과 우리 당 사업 발전에서 현 시기 가장 절박한 문제들을 정확히 포착하고 해결하는 세련된 령도 방법의 산 모범을 보여 주시였다.

이리하여 이 모범은 우리의 지방 당 및 정권 기관 일'군들의 사회주의적 농촌 경리에 대한 눈을 트게 했으며 과학적인 령도 방법으로 그들을 더욱 튼튼히 무장시켰다.

특히 청산리에 대한 현지 지도는 그것이 어떤 연설이나 지시로써가 아니라 바로 김 일성 동지의 실천적 모범을 통하여 전 당, 전체 일'군들이 과학적 령도 방법과 작풍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게 한 데 더 큰 위력이 있다.

우리 당은 그의 창건 첫날부터 당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돌렸다. 물론 우리는 이 분야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일부 당 단체들에서는 이것이 적지 않은 경우에 말과 지시로서 강조되였던 까닭에 이 문제는 완전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 일'군들은 주관적으로는 군중에 의거하여 사업하려고 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업 방법을 잘 몰라 그렇게 사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청산리에 대한 현지 지도는 바로 이 문제를 성과 있게 해결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현지 지도에 평남도내 시, 군 당 위원장들을 비롯한 많은 지도 일'군들을 직접 참가시켜 군중 속에 들어 가 군중에 의거하여 해당 시기의 가장 성숙된 문제를 포착하여 해결하는 인민적인 사업 작풍과 방법의 모범을 보여 주시였다.

그 뿐만 아니라 지난 해 2월 23일에 있은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확대 회의에서 강서군 당 사업 지도에서 얻은 교훈을 총화하고 상무 위원들과 지도 간부들을 각 도 당 단체들에 파견하여 그의 경험을 전 당에 일반화시켰다. 즉 각 도의 개별적 군 당과 리 당, 공장 당 단체에 대한 현지 지도를 통하여 청산리 지도의 모범을 재현시킴으로써 전당의 모든 지도 일'군들이 그의 경험을 직접 보고 배우게 하였다.

이러한 실천적 모범은 우리 일'군들의 사업 작풍과 방법상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게 하였다.

이리하여 1930년대에 확립되였으며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계승 발전하고 풍부화되여 오던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 작풍과 방법은 청산리 방법을 통하여 활짝 개화되게 되였다.

우리의 지방 당 및 정권 기관 일'군들은 항일 빨찌산들의 사업 작풍을 본받아 번잡한 회의와 문서 노름을 집어치우고 작업복을 입고 직접 군중 속에 들어 가 그들과 같이 일하면서 당 정책과 당의 의도를 해설해 주며 그들과 함께 예비를 찾아 낼 뿐만 아니라 중심 고리에 력량을 집중하여 한 고리를 뚫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여 련쇄된 전반적 고리들에서 새로운 앙양을 불러 일으켰다.

영흥군 당 위원회는 회의를 간소화하고 모든 일'군들이 매월 평균 13일씩 밑에 내려 가 리 당 단체 사업과 조합 사업을 도와 주었으며 역'기벌의 염기를 극복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문제들은 현지에서 집행 위원회를 열고 광범한 조합원들과 함께 그의 해결 방도를 찾아 내였다. 이리하여 지난 해에 영흥군에서는 256정보의 묵은 밭이 옥토로 변했고 염기 들던 역'기벌에서도 그 전해보다 정당 2톤의 벼를 더 거두어 군'적으로 호당 평균 2.1톤의 알곡과 470원의 현금을 분배하게 되였다.

당 사업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생활이 약동하는 현실에서, 논밭머리와 기대 옆에서 진행되게 되였으며 그것은 진정으로 산 사람들과의 창조적 사업으로 전환되였다. 이것은 모든 군 당 단체와 공장 당 단체들에서 일어 난 거대한 변화이다.

모든 사업에 정치 사업을 선행시켜 전체 당원들과 군중을 한결같이 발동시키는 사업 전통이 전 당에 확립되였다.

당 사업이 생산 현장에서 산 사람들과의 사업으로 전환된 결과 당 정책, 당의 의도는 거침 없이 근로자들 속에 침투되였으며 전체 당원들에게 구체적인 분공을 주고 당원들을 통하여 전체 군중을 발동시키는 체계가 확립되였다.

특히 초급 당 단체들의 전투적 역할이 비상히 제고되였으며 당 분조와 작업반, 생산 분조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덕천 자동차 공장과 기양 뜨락또르 공장 내 당 분조들에서는 기대 옆에서 분조 회의를 열고 당원들에게 정상적인 분공을 주고 그를 제때에 총화하면서 전체 로동자들을 한결같이 발동시켜 지난 해에 각각 3,000대의 자동차와 뜨락또르를 생산하는 기적을 올렸다.

이리하여 청산리 방법을 관철하는 사기 왕성한 투쟁 행정에서 우리 당의 핵심 진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고화되였으며 모든 지도 일'군들, 당 단체 일'군들, 작업반장과 선동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자기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똑똑히 인식하게 되였고 전체 당원들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선봉적, 모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가 거둔 거대한 성과이다.

근로자들 속에서의 공산주의 교양, 특히 긍정적 모범에 의한 교양 방법이 거대한 생활력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우리 당원들은 자연만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군중을 설복하고 교양하며 뒤떨어진 사람을 개조하고 어렵게 살던 사람을 잘 살게 도와 주어 모든 사람을 우리 당 주위에 더욱 튼튼히 묶어 세우고 있다.

군중을 설복하고 교양하는 사업은 오늘 우리의 공장, 농촌 이르는 곳마다에서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 고조됨에 따라 더욱더 성과 있게 전개되고 있다.

평양 제사 공장 길 확실 로력 영웅을 비롯한 우리의 천리마 기수들은 항일 빨찌산들의 군중 공작 방법인 설복과 교양의 방법을 지침으로 삼고 긍정적 모범으로 부정을 극복하는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각계 각층 군중을 교양 개조함으로써 우리 당의 군중 로선을 실생활에 철저히 구현하고 있다.

평양시 승호 구역 리현리 8작업반 선동원인 리 신자 동무는 일부 락후한 조합원들을 개조 교양하기 위하여 우선 자기 자신이 일에도 먼저 나가고 김도 더 잘 맬 뿐만 아니라 많이 매는 모범을 보이면서 그들을 성심성의껏 도와 주었다. 그는 일에 성실치 않은 조합원네 집에는 먼 곳에 가서 겨우내 땔 수 있는 벼'겨도 날라다 주었고 마당과 구들도 쓸어 주었으며 밥가마까지 가셔 주었다. 어떤 반원이 추워할 때는 자기의 솜옷을 벗어 주었다. 그러면서 당 정책 특히 청산리 교시를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었고 회상기에 있는 김 명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 주었다. 이리하여 그는 모든 조합원을 설복 교양하여 지난 해에 작업반적으로 호당 평균 3톤의 알곡과 830원의 현금을 분배하게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나아감에 있어서 사람의 의식을 개변시키는 사업은 가장 힘든 일이다. 그러나 우리 당, 우리의 전체 당원들은 이 일을 아주 성과 있게 진행하고 있다.

오늘 우리의 전체 당원들, 천리마 기수들에게 있어서는 《적대 분자를 제외하고는 못 고칠 사람이 없다》는 것이

하나의 신념으로 되였다. 그들은 뒤떨어진 사람, 아직 각성하지 못한 사람들을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설복 교양하며 아픈 점과 애로를 해결해 주며 그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측면을 키우고 부정적 측면을 퇴치케 하여 모든 사람을 로동당 시대의 붉은 인간으로 개조하고 있다.

항일 무장 투쟁 과정에서 이룩된 인민적 사업 작풍과 방법은 이렇듯 오늘 우리 시대에 와서 활짝 꽃피여 올랐으며 이것은 인민 경제 모든 분야에서 더욱더 새로운 앙양을 가져 오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당의 맑스-레닌주의적 령도 방법이 전 당에 확립되였으며 우리 당 군중 로선이 대중 자신에 의하여 파악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일성 동지는 얼마 전에 평양시 승호 구역 리현리 당 총회를 지도하시면서 우리의 당 사업이 이렇게 발전된 데 대하여 대단히 만족해 하시면서 이 밑천, 이 토대를 가지고 계속 전진한다면 우리는 백전 백승할 것이며 우리 혁명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 *

각급 당 단체들 앞에는 청산리 방법을 관철하는 투쟁에서 거둔 성과를 더욱더 공고화하면서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 작풍과 방법을 더 높은 수준에로 발전시켜야 할 중요한 과업이 제기되여 있다.

이것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산리 교시 집행 총화 사업을 높은 정치적 수준에서 진행함으로써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청산리 방법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에야만 우리는 7개년 계획의 웅대한 과업 수행에서 거대한 승리를 달성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더 높은 고지에 올라 서게 될 것이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더욱 앞당기게 될 것이다.

청산리 교시와 알곡 100만 톤 증산

김 일성 동지의 력사적인 청산리 교시가 있은 때로부터 1년이 지나 갔다.

이 기간에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과 당 사업 발전에서는 실로 위대한 전진이 이룩되였다.

청산리 교시는 오늘 100만 톤의 알곡 증산을 비롯한 방대한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계속 위대한 혁신을 일으키게 하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고 있다.

청산리 교시는 우리의 전진 운동에서 전환을 일으켰다

최근 년간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과 우리 인민의 정치 사상 생활에서는 거대한 변혁이 일어 났다. 불과 수년간에 인민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는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완전히 승리하였으며 나라의 생산력은 미증유의 속도로 발전하였다. 사회의 경제 토대에서의 변화는 근로자들의 사상 의식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 오게 하였다.

이러한 전변은 그에 상응하게 당 및 국가 기관들의 사업 체계와 방법을 개편하며 사회주의 경리 운영 수준을 제고할 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지방 당 및 정권 기관들의 사업 체계와 그 일'군들의 사업 방법은 급속하고도 심각한 사회적 변혁의 요구를 따르지 못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급속한 생산력 발전이 지어 주는 거대한 가능성들을 남김 없이 동원 리용하며 근로자들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힘을 사회주의 건설의 촉진에 최대한으로 조직 동원하는 데 적지 않은 지장을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확한 해결은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과 당 사업 발전 자체가 제기하는 절박한 요구로 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바로 이 요구를 제때에 포착하고 청산리 교시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명확하고도 전면적인 방도를 전 당과 인민에게 제시하였다.

최근 년간 농촌에서 특히 심각한 변혁들이 련이어 일어 났으며 따라서 급변하는 환경과 낡은 사업 체계 및 방법간의 불일치가 여기에서 더욱 날카롭게 표현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바로 이러한 곳, 전형적인 한 점에서 우선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고 여기에서 문제를 전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탁월한 실천적 모범을 창조하였다. 이것은 농촌의 한 점에서 농업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공업을 포함한 인민 경제 모든 부문의 문제를 푸는 것이였고 농촌 당 및 정권 기관들의 사업 체계와 사업 방법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전반적인 당 및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 체계와 사업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였다.

이는 항상 혁명 발전의 먼 앞길을 정확히 예견하면서 성숙된 문제를 제때에 포착하고 그것을 능숙하게 해결하는

우리 당 지도부의 세련된 령도의 빛나는 구현으로 된다.

청산리 지도에서 적용된 현명한 령도 방법과 문제 해결의 능숙한 수완—이것은 오직 장기간의 혁명 투쟁 과정에서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축적한 고귀하고 풍부한 혁명 활동 경험에 기초하여서만 나올 수 있었다.

청산리 방법—이것은 항일 무장 투쟁 행정에서 이룩된 혁명적 사업 방법과 인민적 사업 작풍이 오늘의 현실에서 더욱 개화되고 발전된 것이다.

당 중앙 위원회는 청산리에서 창조된 실천적 모범을 전 당에 일반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청산리 교시는 급속히 전국에 파급되여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지도적 지침으로 되였으며 우리의 전진 운동에서 일대 변혁을 일으키는 전환의 계기로 되였다.

청산리 교시의 위대한 결실—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군중 로선이 더욱 전면적으로 승리하였으며 당 사업이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 서게 된 그것이다.

청산리 교시가 관철됨으로써 당 사업에 존재하였던 관료주의와 형식주의가 산산이 부셔지고 당과 대중과의 련계가 전례 없이 강화되였다. 우리 당 내에는 더욱 많은 당 핵심이 형성되였으며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제고되였다.

청산리 교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당 단체들은 모든 문제를 자립적으로, 혁명적으로 해결하게 되였으며 모든 당 일'군들이 자기가 할 일과 그 수행 방도를 더욱 똑똑히 알게 되였다.

우리의 지도 일'군들은 항상 당원의 힘을 믿고 당에 철저히 의거하여 대중을 혁명 과업 수행에로 능숙하게 동원할 줄 알게 되였으며 당 사업을 약동하는 일터에서, 사람들이 일하고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더욱 전투적으로 진행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늘 우리 당은 활동하는 당, 모든 당 단체들과 당원들이 서로 밀고 이끌며 전진하는 당으로 되였다.

우리 당원들이 자연을 개조하는 투쟁의 선구자로 되였을 뿐만 아니라 군중을 교양하고 뒤떨어진 사람을 개조하여 당 주위에 묶어 세우는 열렬한 투사로, 정치 활동가로 된 것은 청산리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얻은 가장 고귀한 밑천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길 확실, 리신자 동무들과 같이 항일 빨찌산들의 불굴의 의지, 혁명가적 품성을 본받아 당과 혁명을 위하여서는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우는 공산주의적 새 인간들이 수많이 배출되고 있다.

김 일성 동지가 리현리 당 총회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쌀 몇 백만 톤이나 황금 몇 만 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만큼 귀중한 것이다.

이 성과를 공고 발전시키는 것은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7개년 계획의 높은 고지를 승리적으로 점령할 수 있는 튼튼한 담보로 된다.

우리는 청산리 교시를 더욱 심오하게 체득하고 더욱 훌륭히 구현함으로써 100만 톤 알곡 증산을 비롯한 농업 생산의 전면적 앙양을 성과적으로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

100만 톤 알곡 증산은 농업 생산력 발전에서의 일대 비약이다

당 중앙 위원회 1960년 12월 확대 전원 회의는 금년도에 100만 톤의 알곡을 증산하며 농촌 경리의 모든 부문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킬 데 대한 전투적인

과업을 제시하였다.

100만 톤의 알곡 증산—이는 우리 나라 농업 생산 발전에서 일대 비약을 의미하는 방대한 과업이다.

5개년 계획 수행기인 지난 4년 동안 (1956~1960년)에 우리 나라의 알곡 생산량은 전체적으로 93만 톤 증가되였다.

100만 톤의 알곡 증산은 지난 4년 간의 증가량에 비하여서도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된다.

이것은 우리의 농업이 년간 생산 장성 템포에서 26%를 넘는 높은 속도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00만 톤의 알곡 증산 목표가 달성되면 우리 나라의 알곡 총 수확고는 단숨에 년간 500만 톤 수준을 돌파하게 될 것이며 전후 복구 시기의 년 평균 생산량에 비해서는 2배, 해방 전 최고 수확년도에 비해서는 근 3배에 가까운 높은 수준에 올라 서게 될 것이다.

금년도에 100만 톤 알곡 증산 목표를 달성하면 식량과 식용유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의 충족은 물론 축산업을 비롯하여 공예 작물, 과수업 등과 같은 농촌 경리 모든 부문들을 동시에 발전시켜 최근 2~3년 내에 육류, 우유, 계란 등 다양한 축산물 및 기타 식료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와 공업 원료에 대한 수요를 훌륭히 충족시키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 농촌 경리 발전에서 일대 비약, 혁명으로서 우리의 사회주의적 협동 경리의 우월성과 우리 당의 농업 정책의 정당성 그리고 청산리 방법의 위대한 생활력을 더욱 확증하는 또 하나의 도표로 될 것이다.

주지된 바와 같이 우리 나라 북반부는 원래 알곡이 부족한 지대였다. 미제의 강점으로 남조선의 곡창 지대와 인공적으로 분리된 조건 하에서 식량 문제는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전 시기에 걸쳐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되여 왔다.

알곡을 위한 투쟁—이는 바로 전후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출발점으로 되였다.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와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이 어렵고도 긴장된 고리를 성과 있게 풀 수 있는 전면적인 가능성과 조건을 지어 주었다.

우리 당 경제 로선의 위대한 생활력과 협동 경리의 우월성에 기초하여 우리의 농촌 경리는 단시일 내에 성과적으로 복구되였을 뿐 아니라 전면적인 새로운 앙양기에 들어 서게 되였다.

최근 수년 간 우리 나라 농촌 경리 분야에서는 사회주의 생산 관계의 적극적인 반작용과 기계 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공업의 지원에 의거하여 수리화를 비롯한 기술 혁명이 전면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생산력이 미증유의 규모로 장성하게 되였다. 더우기 청산리 방법의 위대한 생활력에 의하여 지난 해에 우리의 사회주의적 협동 경리는 그 우월성을 더욱 충분히 발휘하게 되였다.

지난 5개년 계획의 4년 간만 하여도 우리 나라의 알곡 생산은 1.3배 이상이나 장성하였으며 협동 조합 농가 1호당 분배 몫은 전국적으로 알곡, 저류, 현금 등에서 각각 1.7배, 2.8배, 5.4배라는 높은 장성을 보이게 되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농민들의 생활은 전반적으로 중농 또는 부유 중농의 수준에 올라 서게 되였다.

지금 우리의 농촌에서는 이미 수리화, 전기화가 기본적으로 완수된 토대 우에서 기계화, 화학화가 성과 있게 추진되고 있다. 작년 말 현재로 농촌의 뜨락또르 대수는 1만 2,500대(15마력 환산), 각종 련결 농기계 수는 4만 9,000대에 달하였으며 질 좋은 화학 비료와 각종 농약들이 대량적으로 농업에 도입되고 있다.

농촌 기술 일'군들의 대렬은 이미 1만 명 이상으로 장성하였으며 농업 과학 기술이 달성한 우수한 성과들이 생산에 광범히 도입되고 있다. 오늘 우리의 농촌에는 이미 3,000 여명의 농산 및 축산 기술자들이 파견되여 일하고 있다.

농촌 경리 분야에서 달성된 이 모든 성과들은 우리 나라에서 알곡을

비롯한 농촌 경리 각 부문의 급속하고도 전면적인 앙양을 이룩할 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되며 금년도에 100만 톤 알곡 증산 과제를 성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게 하는 현실적 기초로 되고 있다.

100만 톤의 알곡 증산 과제는 최근년간에 농업 생산의 전면적 앙양을 이룩할 데 대한 우리 당의 강령적 과업의 첫 부분이며 사회주의 공업화의 결정적 전진과 인민 생활의 획기적인 향상을 기본 과업으로 하는 7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는 첫 출발점으로 된다.

우리 당은 농업 생산의 전면적 앙양을 7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규정하였으며 특히 최근 2~3년 내에 그것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방침을 내세웠다.

이 방침은 현실적인 가능성에 의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데 대한 우리 당 활동의 최고 원칙과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객관적 요구로부터 흘러 나온 것이다.

날로 확충되는 선진 기술의 토대 우에서 비상히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 사회주의 공업은 7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1967년에 가서 총 생산액적으로 1954년부터 1959년까지의 6개년 간에 걸쳐 생산한 것과 거의 대등한 수준에 올라 서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공업 발전의 높은 템포는 필연적으로 그에 따르는 농업 생산의 동시적인 급속한 발전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농업 생산의 급속하고도 전면적인 앙양을 달성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결정적으로 전진시키며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들을 더욱 균형적으로, 더욱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된다. 이것은 또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고 빈궁과 기아 속에서 신음하는 남반부 동포들을 구원하기 위한 중요한 밑천의 하나로 될 것이다.

이렇듯 농업 생산의 획기적이고도 전면적인 앙양을 달성할 데 대한 우리 당의 강령적 과업은 사회주의 경제 발전의 요구와 우리 나라 혁명 발전의 성숙된 요구의 반영이다.

농촌 경리의 전면적이고도 급속한 앙양을 보장함에 있어서 틀어 쥐여야 할 중심 고리는 알곡 생산의 우선적이고도 급속한 장성을 달성하는 데 있다.

우리 당이 100만 톤 알곡 증산을 전당적, 전 인민적 과업으로 제기하고 이에 화력을 집중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당은 금년도 100만 톤 알곡 증산 과제를 제기하면서 농촌 경리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촉진시키며 경지 면적과 농기계, 농기구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기초 우에서 로동 생산능률을 제고하고 단위당 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년에 4,000대의 천리마-28형 뜨락또르와 5,000대 이상의 소형 뜨락또르, 4,500대의 화물 자동차, 수만 대의 각종 련결 농기계와 이에 해당한 부속품이 생산되여 농촌에 공급될 것이며 전야 작업의 기계화 수준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또한 우리 당은 금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적지 않은 토지를 새로 개간 확장할 것을 예견하고 있는바 이는 금년도 100만 톤 알곡 증산을 포함하여 7개년 계획 전 기간에 걸친 농업 생산 장성의 거대한 예비로 될 것이다.

100만 톤 알곡 증산 과제는 비단 금년에 있어서 모든 농업 생산 부문의 성과를 좌우하는 고리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7개년 계획 기간의 농업 생산의 전면적 앙양을 좌우하는 관건으로 된다.

바로 여기에 금년도 100만 톤 알곡 증산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가 있다.

100만 톤 알곡 증산 목표를 단 1년 동안에 달성한다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돌파하지 못할 그러한 난관인 것도 결코 아니다.

그것은 이 목표를 돌파할 수 있는 충

분한 물질 기술적 조건들과 가능성들이 구비되여 있고 특히는 청산리 교시 실천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얻어진 귀중한 밑천과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청산리 교시 관철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지방 당 및 정권 기관들의 사업 체계와 사업 방법이 개선되고 협동 조합 지도 일'군들의 관리 운영 수준이 제고되였으며 농민들의 생산 의욕과 애국적 열의가 제고된 것은 100만 톤 알곡 증산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결정적 담보이다.

청산리 방법의 철저한 구현은 100만 톤 알곡 증산의 결정적 담보이다

우리에게는 100만 톤의 알곡 증산을 비롯한 농업 생산의 전면적 앙양을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우리의 지방 당 및 정권 기관 일'군들과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일'군들이 농촌 경리의 모든 분야에서 청산리 교시를 더욱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이러한 조건과 가능성을 남김 없이 조직 동원하는 데 있다.

경험은 청산리 교시가 관철된 모든 곳에서는 례외 없이 생산에서 거대한 앙양이 일어 났으며 일부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응당한 성과가 달성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청산리 교시의 기본 정신—이는 당 단체들과 지도 일'군들이 사람들과의 사업을 잘 하여 대중을 당 주위에 묶어 세우며 그들의 혁명적 정열과 무궁무진한 창조적 힘을 고도로 발양시키는 데 있다.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나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나 당 단체들과 지도 일'군들의 사업에서 우선 첫 공정으로 되는 것은 사람들과의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 시기 우리 일'군들은 일부 경우에 사람들과의 사업을 첫째가는 임무로 간주할 대신에 행정적 및 물질적 기술적 문제에만 매달려 돌아 감으로써 막힌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였다.

사람 문제를 풀음으로써 다른 모든 문제를 푸는 방법—바로 이것이 위대한 청산리 방법이며 우리 당의 사업 방법이다.

알곡 100만 톤 증산의 전투적 과제를 푸는 기본 고리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알곡 100만 톤 증산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사람들과의 산 창조적 사업인 당 사업을 잘 해야 한다.

당 사업을 강화함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핵심 진지를 더욱 공고화하며 당원들의 선봉적, 모범적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다.

각급 당 단체들은 실천적 투쟁을 통하여 당 핵심을 더 많이 육성 단련하여야 하며 핵심 당원들과 전체 당원들에게 빈틈 없는 분공을 주고 그 실행 정형을 수시로 총화하고 도와 주면서 전체 군중을 힘 있게 이끌고 나가야 한다.

당원들에게 분공을 줌에 있어서는 그들의 준비 정도와 체질, 능력 등을 잘 고려하여 모든 당원들이 자기의 재능과 힘을 남김 없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험은 어려운 난관에 부닥쳤을 때 기대 옆에서, 논판에서 당 회의를 열고 대중과 더불어 막힌 문제를 진지하게 토의한다면 문제 해결의 방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찾아 낼 수 있으며 대중을 더욱 힘차게 발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바로 지난날 항일 빨찌산들과 인민군 용사들이 적과의 싸움터에서 적용한 전투적 당 사업 방법이다.

오늘 리현리 제 4작업반 당 단체를 비롯한 많은 당 단체들은 바로 이러한 전투적 사업 방법을 옳게 구현함으로써 부닥치는 모든 난관들을 뚫고 나아가며 사업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뒤떨어진 사람들을 교양 개조하고 애로에 부닥친 사람들을 잘 도와 주어 모든 사람을 당에 충실한 붉은 전사로 육성하는 공산주의적 교양자들이 도처에서 수 많이 배출되고 있다. 이들은 항일 빨찌산들의 고귀한 혁명 정신으로 사람들을 교양하며 긍정적 모범으로 부정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써 사람들을 감화하며 개조하고 있다.

전체 군중을 교양하고 개조하는 것—이것은 우리 당 군중 로선의 기본 요구이다.

우리는 청산리 교시를 관철하는 행정에서 이미 많은 군중을 교양하고 개조하였으며 이 사업은 지금 공장, 농촌 이르는 곳마다에서 광범히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당이 자기의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각계 각층 군중을 당 주위에 집결시키는 력사적 과업의 해결에 전면적으로 달라 붙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지도 일'군들, 전체 당원들은 세심하게 군중의 생활을 보살피면서 공산주의적인 훌륭한 모범들을 제때에 포착하여 일반화하며 그것으로써 전체 군중을 교양하고 개조하는 데 첫째가는 주목을 돌려야 한다.

청산리 방법이 철저히 관철되고, 당은 당원들을 믿고 당원들은 당에 의거하여 사업하는 혁명적 기풍이 전 당에 확립될 때 우리에게는 극복 못할 난관이 없으며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

지방 당 단체와 그 지도 일'군들은 청산리 교시를 받들고 농민들 속에 깊이 들어 가 그들에게 당 정책, 당의 의도를 알려 주며 실정도 료해하며 직접 사업을 조직하고 집행하는 생기발랄한 사업 기풍을 전면적으로 확립하여야 한다.

김 일성 동지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선생은 농민 대중이다. 그들은 자기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로 하여 생산 예비는 어디에 있으며 그것을 실현할 방도는 무엇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지도 일'군들은 농민들과 같이 일하고 생활하면서 모든 력량이 농사 짓는 데 집중되도록 생산 및 로력 조직을 개선하며 작업반들을 우리 나라 농촌 실정에 가장 적합한 로력 조직 형태인 자연 부락 단위 작업반으로 완전히 전환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람들의 사상 의식과 기능의 발전, 토지 및 농기계의 부단한 개선 등을 정확히 예견한 과학적이고 동원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사회주의 분배 원칙의 엄격한 준수와 작업반 우대제의 철저한 실시는 농업 생산의 앙양과 농민들의 생산 의욕 제고를 위하여 극히 중요하다.

100만 톤의 알곡 증산—이것은 비단 농촌 경리 부문에만 국한된 과업은 아니다. 이것은 로동자, 사무원, 청년, 학생할 것 없이 모두가 지원해야 할 전 당적, 전 인민적 과업이다. 따라서 인민 경제 모든 부문, 그 중에서도 100만 톤의 알곡 증산과 직접 관련된 기계 공업, 화학 공업 등 일련의 공업 부문에서 농촌 경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증산 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여야 한다.

이리하여 전 당과 전체 인민이 하나의 의지로 굳게 단결되고 모두가 100만 톤의 알곡 증산에 달라 붙게 될 때 우리는 농업 생산에서 다시 한번 세인을 경탄케 하는 거대한 비약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청산리 교시에서 구현된 물질적 자극과 사회 도덕적 자극의 결합

홍 윤 백, 신 진 균

청산리와 강서군 당 단체들에 대한 력사적인 현지 지도에서 김 일성 동지는 현 시기 우리 당 사업 발전과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제기되는 절박한 문제들을 포착하고 이를 해결할 데 대한 과학적인 방도들을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의 하나는 근로자들에 대한 물질적 자극과 사회 도덕적 자극의 결합에 대한 문제이다.

사회주의는 수백 수천만 대중의 창조적 사업이다. 때문에 사회주의 건설에서 성과 여부는 광범한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을 어떻게 발양시키며 조직 동원하는가에 달려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로 되는 것은 근로자들에 대한 물질적 자극과 사회 도덕적 자극을 어떻게 결합하는가 하는 그것이다.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인민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을 발양시키는 데 있어서 근로자들에 대한 물질적 자극과 사회 도덕적 자극을 결합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하였다.

력사적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결 여부는 사회주의 건설의 속도와 성과에 큰 영향을 준다.

사회주의의 조건 하에서 로동에 대한 물질적 자극, 사회주의 분배 원칙은 필수적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아직 생산력의 발전 수준이 사람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 수 없는만큼 분배의 기준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회적 생산에 지출된 로동 뿐이다.

김 일성 동지가 청산리에서 교시하신 바와 같이 사회주의 하에서는 로동에 아직도 많은 차이가 있다. 힘든 로동과 쉬운 로동 간의 차이가 있고 로동의 숙련 정도에도 차이가 있으며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 간에도 본질적 차이가 남아 있다. 또한 사회주의 하에서는 아직도 근로자들 속에 자본주의적 사상 잔재가 존재하는만큼 로동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다.

만일 이러한 조건 하에서 평균적 분배를 실시한다면 근로자들의 생산 의욕을 제고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들의 기술 기능 수준도 제고할 수 없고 생산에서 창의 창발성을 발휘시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로동에 의한 분배는 사회주의 사회의 객관적 법칙으로 되며 사회주의적 경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으로 된다.

로동에 대한 사회 도덕적 자극이란 착취로부터 해방된 근로자들,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자들 속에서 발생하는 로동에 대한 새로운 자극이다. 근로자들이 착취의 대상으로 되고 개인적 리익과 사회적 리익이 모순되는 계급 사회에서는 로동에 대한 사회 도덕적 자극이란 기본적으로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착취가 없고 개인적 리익과

사회적 리익이 일치하는 사회주의 하에서 생산자들이 자기 로동이 가지는 사회적 의의를 자각하는 데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

사회 도덕적 자극은 우선 근로자들의 혁명적 의식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들의 혁명적 의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회 도덕적 동기로부터 출발하는 생산 의욕과 로동에서의 헌신성이 더욱 높아질 것은 명백한 일이다.

로동에 대한 사회 도덕적 자극은 사회주의 건설의 첫 시기로부터 나타나는 바 레닌은 10월 사회주의 혁명 직후에 벌써 로동에 대한 사회 도덕적 자극의 거대한 의의를 지적하였다.

사회주의 건설의 진척에 따라 로동에 대한 사회 도덕적 자극의 의의와 역할은 점점 더 커진다. 생산력과 사람들의 의식이 고도로 발전하고 낡은 사회의 잔재가 완전히 청산되는 공산주의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다만 습관화된 사회적 의무로서, 생활상 첫째가는 요구로서 로동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행정에서는 물질적 자극과 사회 도덕적 자극의 어느 한편도 무시할 수 없으며 매개 나라 실정에 적응하게 두 가지 자극을 결합하는 기초 우에서 부단히 사회 도덕적 자극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된다.

우리 당은 시종일관 이 원칙을 견지하면서 우리 나라의 구체적 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근로자들의 의식성의 역할, 사회 도덕적 자극의 역할에 보다 큰 의의를 부여하여 왔으며 또 부여하고 있다.

우리가 전후 사회주의 건설에서 류례드문 비약적 발전을 이룩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당이 우리 인민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깊이 믿고 그것을 더욱 계발하면서 그에 상응한 투쟁 목표를 대담하게 제기한 데 기인한다. 이에 있어서 우리 당과 김 일성 동지는 생산력 발전, 로동 생산 능률 제고에서 결정적 역할을 노는 것은 생산자들의 의식이라는 데로부터 출발하였다.

로동 생산 능률 제고, 생산력 발전에서 의식이 결정적 역할을 노는만큼 우리는 바로 이 결정적 요인에 의거하여야 하며 이 요인에 크게 작용하여야 한다. 이것은 곧 근로자들에 대한 정치 사업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당이 모든 사업에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며 근로자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 혁명 전통 교양을 강화할 데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 있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리하여 당은 로동에 대한 근로자들의 도덕적 자극을 부단히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당은 인민 경제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구현하여 근로자들의 성실하고 보다 많은 로동을 물질적으로 자극하는 동시에 그들의 정치 의식을 계발하여 매 개인의 로동을 국가의 리익, 당과 혁명의 리익과 결부시켜 사회 도덕적으로 자극하기 위한 모든 실천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사회주의 분배 원칙의 실현 형태와 근로자들에 대한 정치 사상 사업의 내용 및 방법은 매개 나라 소여 시기의 구체적 정세에 의존한다. 해당 시기의 생산력 발전 수준, 조성된 국내외 정세, 축적과 소비의 호상 관계, 주민들의 정치 의식 수준, 사상 동태 등등의 구체적 조건에 적응하게 사회주의 분배 원칙도 실현되여야 하며 정치 사업도 이 모든 조건들에 대한 과학적인 타산에 기초하여야 한다.

그러면 청산리 교시에서는 두 가지 자극의 결합이 어떻게 구현되였는가.

오늘 우리 나라 도시와 농촌에는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완전히 승리하고 생산력이 급속히 발전함과 관련하여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여 있다. 조국의 통일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새로운 국면이 열려져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청산리 현지 지도에서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새 환경 특히 농촌 형편에 적합하게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실현하며 로동에 대한 사회 도덕적 자극을 이와 결합할 데 대한 과학적인 방도를 명시하였으며 친히 그 모범을 보여 주시였다.

청산리의 교시와 그 모범은 전국에 일반화되였으며 전체 근로자 대중의 것으로 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청산리에서 사회주의 분배 원칙의 필요성을 풀어 주시면서 우리 나라 농업 협동 조합들의 현 실정에서 이 원칙을 정확히 실시할 데 대한 구체적인 방도를 명시하였다.

로력일 형태를 통하여 로동에 의한 분배를 실시하는 현 조건 하에서 사회주의적 분배를 정확히 실시하기 위한 전제로 되는 것은 로력일에 대한 정확한 평가이다. 종전에 기능 로동이라 하여 일이 힘들지도 않고 바쁘지도 않은 로동에 대하여 덮어 놓고 높은 로력일을 쳐 주는 편향은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기본 생산 작업에 로력이 집중되는 것을 저애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로력일 평가의 기준과 방법을 명백히 제시하시였다. 즉 농업 협동 조합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의를 가지는 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 례컨대 발갈이, 써레질, 모내기, 김매기, 밀 가을, 벼 가을 등 기본 농산 작업에 중점을 둘 것이며 비록 일정한 기능을 요하는 일이라 하여도 일'감이 적고 한가할 경우에는 로력일을 많이 쳐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로력일 평가의 기준은 알곡을 위주로 하는 우리 나라 농촌 경리 발전의 기본 방향에 적합하게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실현하는 전제로 되며 로동의 량과 질을 동시에 정확히 타산할 것을 요구하는 사회주의 분배 원칙의 요구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로력일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등급별 작업 정량표를 정확히 작성하며 이에 근거하여 조합원들의 로력일을 평가하되 매개 작업반에 로력일 평가 그루빠를 조직하고 그날 그날 작업 현장에서 대중적 협의 하에 정확히 평가할 데 대한 방법까지 가르쳐 주시였다.

김 일성 동지는 특히 우리 나라 농촌의 구체적 실정에 근거하여 조합원들의 물질적 관심을 더욱 적극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사회주의 분배 형태로서 작업반 우대제를 실시할 것을 제기하였다.

작업반 우대제—이것은 협동 조합 경리의 규모가 확대되고 로동의 사회화 수준이 제고된 새로운 조건에 적응하게 물질적 관심성 원칙을 창조적으로 적용한 훌륭한 제도이다. 이 제도에 의하여 지난 결산-분배에서는 현물 우대제 기준을 초과한 작업반에 대해서는 그 초과량과 계획 외에 자체로 개간한 경지 및 논발두렁 등에서 난 소출은 전량을 작업반원들에게 로력일에 따라 분배해 주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작업반 우대제는 우선 작업반이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탐구 동원하도록 물질적 자극을 줄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물질적 관심에만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작업반 전체의 리해에 대한 관심을 자극하는 데 특성이 있다. 즉 이 제도는 작업반의 공동 생산에 대한 작업반 성원 전체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작업반 성원들 속에 집단주의 정신을 배양하며 건전한 사회주의 경쟁을 자극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작업반 우대제는 김 일성 동지가 정확히 예견한 바와 같이 조합원들 속에 높은 생산 의욕과 사회주의 경쟁을 불러 일으키는 강력한 물질적 자극으로 되였다. 그리하여 작년에 우대를 받은 작업반은 1만 2,600 여개, 조합원수는 63만 여명에 달하였으며 전체 작업반들이 모두 생산 과제를 초과 완수하여 우대를 받은 조합들도 적지 않다.

근로자들에 대한 물질적 자극의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당은 지난 해에

농기계 작업소 일'군들도 자기가 담당한 농업 협동 조합 작업반의 농사가 잘 되고 못 되는 데 따라 수입에 일정한 영향이 있도록 작업반 우대제에 참가케 하였다.

김 일성 동지의 발기에 의하여 국영 농목장들에는 작업반 독립 채산제를 도입하게 함으로써 로동자들의 생산 의욕을 비상히 제고시켰다.

이러한 조치들은 개인적인 물질적 관심과 함께 집단의 리해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물질적 관심성 원칙이 근로자들에게 그 어떤 리기주의를 조장하는듯이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못한다는 원칙,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하는 원칙은 일하지 않고 먹으려는 자본주의 사상 잔재를 청산하고 로동을 사랑하며 성실하게 일하는 사상과 습성을 배양하는 방도로도 된다. 근로자들은 로동에서 열성을 발휘하면 할수록 더욱 좋은 수입을 얻게 되며 이 행정에서 점차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확신하게 되며 집단주의 의식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로동에 대한 물질적 자극의 의의는 이와 같이 중요하다. 그러나·그것은 사회 도덕적 자극을 강화할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결코 아니다. 동시에 두 가지 자극을 결합함으로써만 생산력 발전을 최대한으로 추동하고 사회주의 제도의 공고 발전을 더욱 촉진할 수 있으며 사람들을 더욱 빨리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할 수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청산리 현지 지도에서 로동에 대한 근로자들의 물질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모든 방도들을 제시하는 동시에 그들의 혁명 의식을 백방으로 제고하여 로동에 대한 사회 도덕적 자극을 강화하는 데 거대한 관심을 돌리였다.

청산리 현지 지도에서 구현된 로동에 대한 물질적 자극과 사회 도덕적 자극의 결합은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의 위대한 생활력의 주요한 근원의 하나로 되고 있다.

로동에 대한 근로자들의 사회 도덕적 자극을 강화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당 사업, 정치 사업을 잘 하여 전체 군중의 혁명 의식과 로력적 열성을 제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농촌에 있는 당원들에게는 농사를 잘 짓는 것이 제일 중요한 혁명 과업이다》 (김 일성, 《사회주의적 농촌 경리의 정확한 운영을 위하여》). 이것은 농촌에 있는 당원들뿐만 아니라 전체 농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공업 발전을 촉진하며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농촌 당원들과 전체 농민들은 농사를 잘 해야 한다.

전체 농민들은 이 혁명 과업에 대한 자각과 의무감을 높여 헌신적으로 발동되여야 하며 지도 일'군들은 당 사업, 정치 사업을 잘 해서 전체 당원들과 군중이 이 혁명 과업 수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그들의 혁명적 의식을 계발하며 제고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군중의 정치적, 로력적 열성과 경제 사업의 성과 여부는 무엇보다도 당 단체들과 지도 일'군들의 당 사업, 정치 사업 여하에 달려 있다.

정치 사업을 잘 한다는 것은 《모든 당원들과 군중에게 당 정책을 철저히 인식시키며 그들이 혁명 과업 수행 방도를 대중적으로 토론하며 높은 정치적 각성을 가지고 혁명 과업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 것이다》 (김 일성, 《새 환경에 적응하게 군 당 단체의 사업 방법을 개선할 데 대하여》).

청산리와 강서군에서 김 일성 동지는 당 사업, 정치 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 체계와 방법을 결정적으로 뜯어 고칠 데 대하여 주요하게 교시하였다.

지도 일'군들이 하부에 내려 가지 않고 군중 속에서 사업하지 않으며 몇몇 간부들만이 바삐 돌아 가고 많은 당원들이 당 사업에서 제외되여 있는 조건하에서는 우선 당원 대중을 당 정책 관철에 책임적으로 동원되게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전체 근로자들의 혁명 의식과 로력적 열성을 제고할 수 없다.

김 일성 동지는 무엇보다도 당 단체들과 지도 일'군들이 사무실적 사업 작풍과 형식주의, 관료주의의 틀을 마스고 하부에 내려 가며 군중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상론하며 직접으로 도와 주고 배워 주며 모든 당원들에게 분공을 주어 전 당을 움직이게 하는 사업 체계와 방법을 확립하는 문제에 가장 중요한 관심을 돌리셨다.

이에 대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들과 그 실천적 모범은 우리 당 사업 전반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는 계기로 된 동시에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당 정책, 당 중앙의 의도를 철저히 침투시키고 그들의 혁명 의식과 로동에 대한 사회 도덕적 자극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도 결정적 조건으로 되였다.

다음으로 김 일성 동지는 청산리와 강서군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교양할 것인가에 대하여 중요하게 교시하시면서 친히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 의식과 로력적 열의를 계발하는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시였다.

당원들과 군중에 대한 교양의 목적은 그들을 혁명 과업 수행에로 발동시키는 데 있는만큼 교양은 그에 맞게 구체적으로 되여야 한다고 김 일성 동지는 강조하시였다. 즉 그것은 언제나 당 정책, 당면한 혁명 과업과 결부시켜야 하며 해당 당 단체의 실지 사업과 결부시켜 진행하여야 한다. 당원들을 당 정책으로 철저히 교양하고 그것을 군중 속에 널리 해설 침투시킴이 없이는 당 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을 보장할 수 없으며 군중의 혁명적 열의와 로력적 열성을 계발 동원할 수 없다.

이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관료주의, 행정식 사업 방법을 결정적으로 퇴치하고 당 사업에 고유한 설복과 해설의 방법으로 돌아 가는 것이다.

지도 일'군들은 당원들 및 비당원 군중들과 《자주 담화를 하고 강연도 해 주고 책도 읽히고 회의도 지도하고 그래서 전체 당원들이 당 중앙의 의도를 명확히 알고 당 정책을 진심으로 받들며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서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 사업이며 정치 사업이다. 우리가 항상 정치를 선행시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사업을 먼저 잘 하고 다른 사업을 거기에 따라 세우라는 것이다. 정치 사업이 잘 되면 행정 사업은 저절로 되게 마련이다》(김 일성, 《강서군 당 사업 지도에서 얻은 교훈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청산리에서 바로 이와 같은 정치 사업의 모범을 보여 주시였다. 농민들과 담화하시면서 혁명 시기에는 60이 아니라 90이 환갑이라고 하신 한마디의 말씀이 로인들 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혁명적 정열과 로력적 앙양을 불러 일으켰는가.

김 일성 동지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 특히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의 교양을 강화할 데 대하여 교시하시면서 긍정으로 사람들을 교양할 데 대한 모범도 보여 주시였다.

청산리에서 김 일성 동지는 남편도 큰아들도 원쑤들에게 빼앗긴 유격대의 어머니—염 보배 할머니가 지금은 나이 70을 넘었는 데도 불구하고 응당한 국가 부양을 받으려 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하겠다고 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들의 사상이 곧 공산주의 사상이다.

일하기가 힘들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이다. 그러나 힘들다고 다 하지 않는다면 누가 사회주의를 건설해 주겠는가? 지나 가던 사람이 우리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줄 수는 없다.

혁명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다.…

우리가 빨찌산 할 때 …물론 우리도 따뜻하게 불을 때고 집에서 편안하게 살림살이나 하면 좋은 줄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라를 찾고 인민을 구원하자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고생을 고생으로 생각하

지 않았던 것이다»(«사회주의적 농촌 경리의 정확한 운영을 위하여»).

김 일성 동지의 현지 지도 이후 청산리 사람들의 정신적 면모에서 일어난 일대 전변은 바로 이와 같이 김 일성 동지가 그들의 혁명적 량심을 계발하고 그들의 심장을 격동시킨 결과였다.

청산리 교시를 집행하는 행정에서 전국의 도시와 농촌들에는 길 확실, 리신자 동무들과 같이 우리 당의 혁명 전통과 기타 긍정적 모범으로 뒤떨어진 동지들을 교양 개조하여 열성 분자로 끌어 올리는 핵심 당원들, 우수한 공산주의 교양자들의 대렬이 무수히 자라났다. 모든 당원들과 지도 일'군들이 자기 사업을 잘 알고 사람들과의 사업, 정치 사업을 능숙하게 할 줄 알게 되였으며 당의 의도, 김 일성 동지의 뜻을 받들어 뒤떨어진 사람들을 개조하여 그들의 로력적 열성을 제고시키며 군중을 남김 없이 당의 주위에 묶어 세우는 데 달라 붙었다.

우리 당원들과 일'군들의 사람들과의 사업, 정치 사업에서의 이와 같은 거대한 전진은 근로자들의 혁명 의식을 더한층 제고하며 혁명 과업 수행에 대한, 로동에 대한 로동자 농민들의 사회 도덕적 자극을 고도로 발전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되고 있다.

청산리 교시 이후 전국 공장과 농촌들에서 들끓는 혁명적 정열과 창조적 적극성을 가지고 더욱더 세차게 타번지고 있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불'길은 근로자들 속에서의 로동에 대한 사회 도덕적 자극의 비상한 발전을 말해준다. 혁명 선렬들의 모범, 자기 주위의 새로운 긍정적 모범으로 사람들을 교양 개조하며 서로 돕고 협조하여 생산에서 공동의 앙양을 달성하며 당 정책을 관철하려는 공산주의적 기풍이 점차 전체 근로자들을 지배하고 있다. 로동자 농민들은 100만 톤의 알곡 증산을 위하여, 금년도 중공업 및 경공업 발전 과제 해결을 위하여 충천하는 정치적 및 로력적 앙양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청산리 현지 지도에서 주어진 사회 도덕적 자극의 위대한 힘을 여실히 증시하고 있다.

청산리 현지 지도 이후 농민들과 전체 근로자들의 비상한 정치적 로력적 앙양, 인민 경제 특히 농촌 경리 분야에서의 거대한 성과는 청산리 교시에서 구현된 사회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과의 탁월한 결합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김 일성 동지는 작년도 경제 사업에서의 거대한 성과를 단순히 물질적 자극, 작업반 우대제 실시의 결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특별히 지적하시였다.

청산리 교시에서의 근로자들에 대한 물질적 자극과 사회 도덕적 자극의 탁월한 결합은 생산력 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였을 뿐만 아니라 농촌 협동 경리 제도를 공고화하며 당의 농촌 진지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도 거대한 기여로 되였다.

✽ ✽

력사적인 청산리 교시는 나라의 생산력 발전을 촉진함에 있어서 로동에 대한 물질적 자극과 사회 도덕적 자극을 어떻게 실현하며 결합할 것인가를 명백히 가르쳐 주시였다. 현실은 또한 두가지 자극의 옳바른 결합이 어떤 위력을 발휘하는가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당 및 정권 기관, 경제 기관 지도 일'군들은 이 교시를 철저히 연구함으로써 자기 사업에서 두 가지 자극의 결합을 더욱 원만히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계속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동시에 모든 사업에 정치 사업을 선행시켜 근로자들의 혁명적 의식을 계발함으로써 사회 도덕적 자극을 계속 강화하는 것은 7개년 계획을 완수 및 초과 완수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는 강력한 공간으로 될 것이다.

간부들의 리론 실무 수준 제고—이것은 중요한 혁명 과업이다

당 중앙 위원회 1959년 12월 확대 전원 회의는 전 당이 학습할 데 대하여 특히는 혁명의 지휘 성원들인 간부들의 학습을 강화할 데 대하여 전체 당원들과 간부들에게 호소하였다.

이 때로부터 1년이 지나 갔다.

당은 학습 문제를 제기할 때 그저 간부들의 지식을 좀 더 높이기 위한 단순한 문제로서 제기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의 현 단계에서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한 방도로서, 우리 혁명의 비약적 발전의 절실한 요구로서 제기한 것이다.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되고 생산 조직과 경리 활동에서 사회주의적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객관적 요구로 되였는데 그를 운영하는 적지 않은 간부들은 사회주의 경리에 대한 지식, 실제 경험이 부족하였으며 당 정책에 대한 깊은 파악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일'군들이 사업하는 곳에서는 사업에서 성과를 올리지 못하였다. 이것은 김 일성 동지가 말씀한 바와 같이 «…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군들의 준비 정도가 낮아서 그렇다. 일을 하려는 열의는 높은데 당의 경제 정책을 정확히 모르며 계획 경제를 운영할 줄 모르기 때문에 밤낮 중심 고리를 잃고 일을 벌려만 놓으며 동분서주하면서도 거두는 성과는 적다.

… 문제는 단지 일'군들의 수준에 걸렸다»(«강서군 당 사업 지도에서 얻은 교훈에 대하여»).

또한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되고 경제 건설이 비약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의식 수준이 급속히 높아졌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그에 적응한 높은 지도 수준과 새로운 지도 방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적지 않은 간부들의 지도 수준과 방법은 이 요구에 따라 가지 못하였다. 역시 이 문제에 있어서도 간부들의 수준에 걸렸다.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조국 통일의 혁명적 대사변을 승리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간부들을 더욱 준비 있게 꾸리는 문제가 절실하게 제기되였다.

이 걸린 문제, 이 절박한 요구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전진을 촉진시킬 수 없고 혁명을 성과 있게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당은 간부들의 학습 문제를 전투적인 혁명 과업으로 제기한 것이다.

간부들의 정치 리론 수준을 제고할 데 대한 당 중앙 위원회의 조치는 큰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당 중앙 위원회 1959년 12월 확대 전원 회의와 1959년 12월 15일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결정이 있은 후 전 당적으로 학습하는 기풍이 확립되여 가고 있으며 특히 간부들 속에서의 학습이 현저히 강화되였다.

당 및 국가 기관의 대다수의 간부들이 토요 간부 학습 체계와 간부들을 위한 단기 강습 체계에 망라되여 맑스-레닌주의 철학, 정치 경제학, 부문 경제학 및 당 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그들의 리론 실무 수준 제고에서 현저한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다.

많은 간부들이 모든 사회 현상과 사물을 유물 변증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축적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경제 법칙들과 사회주의 경리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맑스-레닌주의 원리를 습득함으로써 간부들은 우리 당 정책의 본질과 그의 정당성 및 당의 령도의 현명성을 더욱 깊이 파악할 수 있게 되였으며 당이 제기한 혁명 과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보다 확신성을 가지고 사업하게 되였다.

간부들의 정치적 및 실무적 수준의 제고는 당 및 국가, 경제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현저히 높일 수 있게 하였으며 지난 해 완충기 과업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였다.

그러나 학습을 전투적인 혁명 과업으로 진행할 데 대하여 호소한 당 중앙 위원회 1959년 12월 확대 전원 회의의 요구에 비할 때 간부들을 리론 실무적으로 준비시키는 사업에서 거둔 성과는 초보적인 것에 불과하다.

적지 않은 간부들의 리론 실무 수준은 급속히 변화 발전하는 우리 혁명 정세의 객관적 요구, 대중의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 있다. 더우기 사회주의의 보다 높은 고지를 향하여 새로운 전투에 들어 서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간부들의 리론 실무 수준을 높이는 문제는 매우 절박한 문제로 제기된다.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며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주게 될 7개년 계획의 웅대한 과업은 우리들에게 보다 긴장된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5개년 계획의 승리적 완수와 특히 지난 해 완충기의 빛나는 성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능히 자체의 힘으로 새로운 전망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튼튼한 물질 기술적 토대가 이루어졌다. 또한 당 중앙은 우리들에게 새 전투적 과업을 성과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명백한 방향과 방침을 제시해 주고 있으며 당 정책을 실천하는 근로자들의 정치적 및 로력적 열성도 비상히 앙양되고 있다.

문제는 당 정책 집행을 조직 지도하는 간부들에게 달려 있다. 간부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대중 속에 해석 침투하고 그의 실행을 조직 지도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사상으로 교양하고 그들을 우리 당 주위에 튼튼히 결속시키는 결정적 력량이다.

당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서는 그의 집행을 조직 지도하는 간부들의 당적 책임성과 열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이에 간부들의 높은 리론 실무적 지식, 능숙한 지휘 능력이 안받침되여야 한다.

때문에 우리 당은 7개년 계획의 새로운 전투에 들어 서면서 혁명의 지휘 성원인 당 및 국가 기관 간부들의 리론 실무 수준 제고를 위한 사업을 계속 중요한 혁명 과업으로 제기하고 있다.

간부들 속에서의 정치 리론 학습은 어디까지나 그들에게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혁명적 본질을 리해시키며 그에 기초하여 우리 당 정책을 리론적으로 깊이 파악시키며 그것을 실지 사업에서 능숙하게 적용할 줄 알도록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모든 정책은 다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우리 나라 현실에 알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의 정책과 로선은 정당하며 거대한 생활력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우리 일'군들에게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교양이 부족한 데서 그들이 당의 정책과 로선을 정확하게 받아 물지 못하며 소화하지 못하는 데 있다》(선집, 제 6권, 513페지).

따라서 당 정책의 본질을 깊이 파악하며 그의 리론적 내용을 정확히 리해하기 위하여서는 바로 맑스-레닌주의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간부들의 맑스-레닌주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그들의 정치 실무적 능력을 제고하는 데 또한 목적이 있다.

우리의 당, 국가 기관 및 경제 기관의 모든 간부들은 일반적 실무가나 단순한 사무원이 아니며 모두가 다 혁명의 지휘관들이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의 혁명 투사들이다.

때문에 그들의 실무 능력이란 단순한 사무적 능력이나 기술적 준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물과 현상들을 맑스-레닌주의적으로 분석할 줄 알며 사회 생활의 법칙들을 인식하고 그것을 자기 사업에 응용할 줄 알며 모든 사업에서 맑스-레닌주의적 사업 방법을 적용할 줄 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우리가 자기 사업을 분석할 줄 알며 사업에 정통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맑스-레닌주의 교양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선집, 제 6권, 513페지).

따라서 우리 당은 간부들의 정치 실무적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들 속에서 맑스-레닌주의 학습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간부들 속에서의 맑스-레닌주의 리론 학습은 바로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진행되여야 한다.

간부들의 정치 리론 학습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그들에게 학습을 강화할 데 대한 당의 의도를 철저히 파악시킴으로써 학습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를 가지도록 하며 자각적인 학습 기풍을 수립하도록 할 것이다.

일부 간부들이 학습을 잘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학습은 곧 혁명 과업이라는 것을 아직도 사상적으로 접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습하지 않고서는 일보도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데 기인된다. 이러한 간부들은 새로운 환경을 보지 못하며 아직도 그에 적응하게 사업 방법을 대담하게 개편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잡다한 회의와 문서 노름에만 매달리고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지 않으며 단순한 행정식 방법으로써 사업을 대치하고 있다.

일부 일'군들은 시간이 없어서 학습을 못 하겠다는 것을 아직도 유일한 구실로 삼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업 방법을 개선하지 않으며 사업 수준을 높이지 않는 데로부터 사업 능률을 올리지 못하며 잡다한 실무에 포로되고 쓸데 없이 시간을 랑비하는 데 있다. 이러한 간부들은 토요일 오후 학습에 참가하는 것으로써 만족하고 일상적인 자체 학습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동무들의 학습은 학습 총화나 모면하기 위하여 깜빠니야적인 기계적 암송으로 대치되며 본질에 깊이 파고 들어 가지 못하고 문구와 명제에만 매달리게 되는 결과밖에 가져 오지 못한다.

때문에 간부들은 청산리 정신에 기초하여 우선 사업 방법부터 개선하며 매일 계획적으로 학습하는 기풍을 철저히 확립함으로써 당 학습을 일상적이며 체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책임적 지위에 있는 중견 간부들로부터 이러한 자각적인 학습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책임 간부들의 학습에 대한 무관심성은 기타 일'군들의 학습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간부들이 학습을 성실하게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또한 그들 속에서 자만성과 안일성이 작용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된다.

나라의 발전은 문'자 그대로 천리마의 속도로 비약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 일'군들은 자체의 준비 정도에 자만하고 있다. 대중은 나가고, 현실은 변하고, 혁명은 더욱더 고조되는데 그에 자신을 따라 세우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특히 고등 교육을 받고 일정한 기초 지식이 있는 간부들, 당 및 국가 기관의 중견 위치에 있는 일부 책임 간부들 속에서 이러한 현상이 때때로 발로되고 있다. 우리가 아무리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배웠다 하더라도 부단히 연구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공고화되지 못할 것이며 더우기 매 시기에 제기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리론적으로 깊이 있게 파악하기 위하여 꾸준하게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우리 혁명 과업 수행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때문에 매개 간부들은 현재의 그들의 지위와 준비 정도 간에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신 김 일성 동지의 말씀을 일상적으로 명심하고 자기의 정치 리론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한시라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간부들 속에서 정치 리론 학습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간부들의 학습에서 일부 나타 나고 있는 교조주의적인 현상들을 철저히 시정하고 당 학습에서 주체적 립장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원들이 맑스-레닌주의를 학습함에 있어서 그것을 통채로 삼키지 말고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배워야 할 것이다….

맑스주의 학설을 암송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리론적 내용과 본질을 체득하고 우리의 실생활에 적합하게 그것을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선집, 제 4권, 260페지).

그러나 지난 기간 일부 간부들의 학습 태도에서는 맑스-레닌주의의 개별적 명제들을 기계적으로 암송하거나 현실과는 관계 없이 일반적 원리만 가지고 론의하는 것으로써 학습을 대치하려는 현상들이 적지 않게 나타났다. 일부 간부들은 우리 당 정책의 학습을 심화시키고 그를 통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을 배우며 그에 기초하여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이러저러한 실천적 문제들을 분석하고 자기 사업에 활용할 데 대하여는 거의 관심하지 않았다.

이러한 일'군들은 당 정책을 다만 일반적이며 상식적으로 리해하고 있을 뿐이며 그의 근저에 흐르고 있는 당 중앙 위원회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당 정책의 집행에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며 자기 단위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그것을 전개하거나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전선에 걸쳐 맑스-레닌주의 기본 문제들을 창조적으로 구체화하여 놓았다.

간부들이 이것을 깊이 연구하며 이것을 통하여 맑스-레닌주의를 파악하지 않고 당 학습에서 우리 나라의 혁명 실천과는 동떨어진 그러한 문제들을 론의의 대상으로 삼으며 일반적 원리를 가지고 말공부만 하는 데 그친다면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진수를 결코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간부들의 학습에서 우선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맑스-레닌주의 철학과 정치 경제학의 학습을 통하여 배운 맑스-레닌주의의 기본 원리를 곧 당 정책 연구에서 활용하며 실천 활동에서 적용할 줄 알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간부들의 학습을 지도하는 교원들의 강의로부터 학습 토론, 자체 학습에 이르기까지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리를 현실 문제들과 밀접히 결부시켜 학습하는 기풍을 세워야 한다.

학습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간부들은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본질을 보다 쉽게 리해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를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누구나 다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실과 떨어진 지식은 리해하기도 힘들고 흥미도 없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모든 문제를 우리 현실에 맞추어서 잘 해설하여 준다면 어려울 것이 없다…

지식을 신비화하는 것은 좋지 않다. 원래 리론 자체가 실천에서 나오는 것이다. 혁명적 실천을 하고 있는 우리가 리해 못 할 리론이란 있을 수 없다》(김 일성 선집, 제 6권, 515페지).

간부들의 맑스-레닌주의 교양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김 일성 선집》에 대한 학습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김 일성 선집》의 연구는 철학과 정치 경제학에서 배운 지식에 기초하여 그의 리론적 내용을 깊이 있게 분석하며 토론하는 방법으로 심도 있게 진행되여야 한다. 《김 일성 선집》에 대한 연구는 일정한 계획 밑에 문제별로 연구할 수 있으며 우선 자기 부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문제들로부터 시작하여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매 시기에 제기되는 당 정책 문제들에 대한 학습은 집중적인 연구의 방법으로 진행하며 당 정책의 본질과 그의 실행 방도를 간부들이 완전히 파악할 때까지 며칠을 두고 계속 연구할 것이다.

간부들의 학습을 개선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의 하나는 학습을 그들의 당적 사상 체계 확립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는 것이다.

당 학습의 목적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곧 실천에 옮기며 실천에서 성과를 달성하자는 데 있다.

당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다만 그의 정당성을 리론적으로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간부들은 당 정책의 본질을 리론적으로 파악할 뿐만 아니라 그의 계급 로선, 그의 계급 정책을 사상적으로 접수하며 당이 생각하고 당이 애타하는 것처럼 같이 생각하고 같이 아파하며 어떠한 난관과 애로에도 굴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고야 마는 그러한 당적 립장에 확고히 서야 한다. 이렇게 될 때에야만 학습에서 배운 지식은 실천 활동에서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며 혁명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사실 지난 시기 《혁명적 군중 관점을 확립하며 당의 군중 로선을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학습할 때에 이것을 사상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한 당 단체들에서는 사업에서 일정한 성과를 가져 왔으나 그렇지 못한 당 단체들에서는 실제 사업에서 별로 눈에 띄울만한 성과를 가져 오지 못하였었다.

그러므로 당 학습은 다만 정확한 지식을 주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며 그들의 당적 사상 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사상 투쟁과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되여야 한다.

간부들의 학습을 개선함에 있어서 학습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간부들의 학습 방법에서 중요한 결함은 강의에만 의존하는 것이다.

아무런 사전 준비도 없이 토요 학습에 참가하여 강의만 듣고 돌아 와서는 필기한 노트조차 펼쳐 보지 않으며 학습 토론도 진행하지 않는 그러한 일'군들이 아직도 있다.

간부들이 자체로 연구하고 사고하지 않고서는 리론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며 문제를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배양하며 행동의 옳은 방침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가 실지 사고해 보고 실천과 결부시켜 연구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자신이 노력하여 체득하는 것만이 산 지식으로 될 수 있다.

따라서 간부들의 학습은 자습을 위주로 삼아야 한다.

이와 함께 간부들 속에서 학습 문제를 가지고 활발히 토론하며 론쟁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여야 한다.

간부들이 리론의 본질을 깊이 파악하자면 문제들을 자체로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발표하고 자기 사고의 정확성을 검증하며 호상 견해를 보충하고 보다 정확하고 일치한 리해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토론을 많이 하며 론쟁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간부들 속에서 학습 의욕을 북돋아 주며 학습 문제의 중심에로 그들의 사고를 이끌어 주며 뒤떨어진 동무들에 대한 효과적인 방조를 줄 수 있게 한다.

앞으로 모든 당 단체들은 주로 자체 학습과 토론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간부들의 학습 방법을 결정적으로 개선하

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당 단체들은 매일 2시간 이상씩 간부들이 학습하는 제도를 엄격히 보장하여야 한다.

매개 간부들이 일정한 자체 학습 계획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며 그를 방조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매개 기관 및 부서의 책임 간부들과 당 단체 위원장들은 간부들의 매일 2시간 이상의 학습 시간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학습 시간을 침범하며 간부들의 정상적인 학습을 방해하는 현상과는 타협없이 강한 사상 투쟁을 진행하여야 한다.

간부들은 당 정책 학습반에 적극 참가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당 정책 연구를 방조하며 그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서 배워야 한다.

간부들은 자신을 맑스-레닌주의와 당 정책으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항상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며 그들 속에서 당 정책을 선전하는 사업에 례외 없이 동원되여야 한다.

당 단체들은 당 정책의 선전을 수준 어린 선동원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이에 간부들을 적극 인입하는 사업을 직접 장악하고 조직하여야 한다.

간부들을 시급한 시일 내에 더욱 리론 실무적으로 준비된 일'군으로 교양하며 그들 속에서 당적 사상 체계를 철저히 확립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보다 높은 고지를 점령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날을 앞당기는 력사적인 7개년 계획을 성과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전면적 기술 혁신,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

한 인 호, 김 덕 진

김 일성 동지는 《우리는 당 중앙 위원회 1956년 12월 전원 회의가 5개년 계획의 첫 난관을 돌파하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위대한 전변을 일으킨 계기로 되였던 것처럼 1960년 12월 전원 회의를 7개년 계획 수행의 첫 전투의 승리와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새로운 앙양의 계기로 되게 하여야 하겠다》(신년사에서)라고 교시하시였다.

이 교시는 전체 근로자들 속에서 새로운 승리에 대한 확신과 끓어 넘치는 창조적 열성을 불러 일으켰으며 새해 벽두부터 빛나는 로력 성과를 이룩하게 하는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

지금 전국의 각 공장, 기업소 로동자들은 당이 제시한 《전면적 기술 혁신,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의 구호를 튼튼히 틀어 쥐고 증산 예비를 백방으로 탐구 동원하고 있으며 절약 투쟁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고 있다.

1960년 12월 확대 전원 회의를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새로운 앙양의 계기로 되게 하라는 당의 요구를 실현하자면 《전면적 기술 혁신,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에 대한 당의 의도와 그의 실현 방도를 옳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산과 절약—이것은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창설 공고화하며 높은 로동 생산 능률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전 행정에 걸쳐 일관하게 제기되는 합법칙적 요구이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매 시기에 증산과 절약을 위한 구체적인 구호를 제기하고 그의 관철에로 전체 인민을 조직동원하였다. 인민 경제 내부에 잠재하여 있는 증산과 절약의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시킨 우리 당의 정책은 우리가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위대한 성과를 달성한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 있다.

증산과 절약을 위한 투쟁은 우리 당이 사회주의 건설을 령도하는 과정에서 계속 견지하고 있는 일관된 투쟁이다. 그러나 예비의 주되는 형태, 그를 동원하는 주되는 방도는 매 시기의 구체적 조건과 경제 발전의 수준에 따라 동일하지 않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1960년 12월 확대 전원 회의가 제시한 구호가 1956년 12월 전원 회의에서 제시되였던 그것과 구별되는 일련의 특성을 찾아 볼 수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 특히 그 첫 시기에 있어서는 기업소 내부에 아직 리용되지 않고 사장되여 있는 예비들이 많았다. 그 때에는 복구할 것도 많았고 파고철이 도처에 널려져 있었으며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사 설치되였다 하여도 이러저러한 원인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기계들이 적지 않았다. 또한 공장들이 조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 지표도 높지 못하였다.

그 때에는 우리 인민 경제를 급속히 장성시킬만한 예비가 많았기 때문에 지도 일'군들이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 동

원을 잘 하고 증산과 절약 투쟁에로 동원하기만 하여도 예비들을 비교적 쉽게 많이 동원 리용할 수 있었다.

1956년 12월 전원 회의는 바로 이러한 사정을 정확히 포착하여 근로자들을 증산과 절약 투쟁에로 궐기시켰다. 전원 회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천리마적 고조의 계기를 열어 놓았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사정은 제 1차 5개년 계획 실행에 들어 서던 그 때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당의 현명한 령도 하에 공업의 식민지적 편파성이 완전히 청산되고 공업화의 기초가 튼튼히 축성된 우리 나라는 오늘 전면적 기술 혁명의 시기에 처하여 있다. 지방적 예비를 동원 리용하기 위한 전 인민적 운동에 의하여 단시일 내에 지방 공업 체계가 확립되였으며 그의 기술 장비도 상당한 정도로 강화되였다. 청산리 방법이 관철됨으로써 기업소들의 관리 운영 사업이 훨씬 째워졌다. 또한 근로자들은 당의 부름에 따라 어떤 과업이라도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사상적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그들의 기술 문화 수준도 현저히 제고되였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지금은 1957년도와 같은 그러한 예비는 거의 없다.

오늘에 있어서 증산과 절약의 주되는 예비는 매개 기업소들에서 기계와 설비, 원료와 자재, 로력과 자금을 더욱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데 있으며 이것을 성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기본 방도는 전면적 기술 혁신이다.

전면적 기술 혁신은 금년도 계획 수행에서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금년에 공업 부문에서는 생산을 16% 장성시킬 것을 예견하고 있다. 공업이 째이고 그의 생산 규모가 비상히 확대된 현 조건에서 이것은 실로 방대한 과업이다. 또한 금년에 우리 앞에는 알곡 100만 톤을 증산하여 알곡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며 이에 기초하여 식용유, 육류 생산을 더욱 증대시키며 수산업을 급속히 발전시켜 근로자들의 부식물을 결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전투적 과업이 나서고 있다. 경공업 부문에서는 일용 필수품과 식료 가공품을 더 많이 생산하며 특히 그 품종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질을 결정적으로 제고하여야 한다.

이 방대한 과업을 주로 있는 로력과 있는 설비를 가지고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여 성과적으로 실행하자면 매개 부문들에서 기술 혁신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무엇보다도 중공업이 농촌 경리, 수산업, 경공업의 기계화를 촉진하며 그의 기술 장비를 일층 강화하도록 력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중공업 부문에서의 기술 혁신은 다른 모든 부문의 기술 혁신의 토대로 된다. 뿐만 아니라 중공업 자체를 위하여서도 이미 축성한 골간에 살을 붙여 정밀도가 높은 기계 설비를 더 많이 생산하고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며 선진 기술을 광범히 도입하여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전면적 기술 혁신을 촉진시키는 조건 하에서만 성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은 《전면적 기술 혁신—이것은 현 시기 우리 당이 제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혁명 과업이며 1961년 인민 경제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기본 방도이다》(1960년 12월 확대 전원 회의 결정서)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면적 기술 혁신,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의 구호는 현 시기 경제 발전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구호는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려는 우리 인민의 열렬한 지향과 혁명 발전의 객관적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오늘 생활 수준이 현저히 높아진 우리 인민은 결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흥겹고 더 헐하게 일하면서도 보다 잘 살 것을 원하고 있으며 계속 남보다 빨리 내달려 사회주의의 더욱 높은 고지에 하루 속히 올라 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지향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전면적 기술 혁신,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 투쟁으로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며 인민 경제 내부 축적을 더 많이 조성하고 더욱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또한 조국 통일의 기운이 시시각각으로 성숙되고 있는 지금, 우리 인민은 멀지 않아 반드시 평화 통일의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될 것을 확신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혁명적 대사변의 도래를 앞당기자면 북반부에서 하루 속히 사회주의 공업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우리 나라를 강력한 사회주의 공업 국가로 전변시켜야 한다. 전면적 기술 혁신,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은 바로 이 웅대한 과업의 실현을 촉진시킨다.

전면적 기술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계화, 자동화하고 기술 공정을 부단히 개선하며 현존 설비를 개조하고 현대화함으로써 설비의 리용률과 로동 생산 능률을 급속히 제고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금년에 전면적 기술 혁신을 주로 대중의 사상 의식을 계발하고 그들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발양시켜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여 달성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후 년간에 고정 폰드가 량적으로 급속히 장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질적 구성도 현대적인 것으로 개선 강화되였는데, 우리 나라 공업 발전의 력사가 짧고 근로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이 높지 못하며 조직 관리 사업에서의 일련의 부족점 등으로 하여 그의 생산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당은 바로 이 약한 고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있는 로력, 있는 설비를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최대한의 생산 능력을 발휘할 것을 완충기의 주요 과업으로 제기하였었다. 지난 해 이 과업은 성과적으로 수행되였다. 그러나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대중적 기술 혁신의 불'길을 더욱 높이고 전면적 기술 혁신 운동을 촉진시킨다면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는 설비로써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생산을 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금년에도 있는 로력과 있는 설비로 더 많이 생산하라는 구호를 계속 틀어 잡고 이 문제 해결에 력량을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에게는 절약 투쟁을 강화함으로써 있는 물자와 자금으로 생산의 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예비가 허다하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절약 투쟁이 갖는 의의는 실로 거대하다. 가령 금년에 중공업 부문에서 전력 소비를 1%만 절약한다면 1만 6,000톤의 류안 비료 또는 5만 톤의 강철을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을 얻을 수 있으며 강재 소비를 1%만 절약한다면 1,200대의 뜨락또르 생산에 해당하는 강재를 얻을 수 있다. 또 기계 공업 부문에서 절삭밥을 회수 리용하기만 하여도 엑쓰까와또르 500대를 만들 수 있는 강재를 얻게 되며 매년 소비되는 종이의 50%만 회수 리용한다 하여도 원료의 추가 없이 2만 톤의 종이를 더 생산할 수 있다. 절약 투쟁의 강화는 전면적 기술 혁신 운동과 함께 금년도 계획 수행의 결정적 조건이다. 그러므로 당은 모든 기업소, 모든 초소들에서 전면적 기술 혁신과 함께 절약 투쟁을 전 당적,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이 제시한 《전면적 기술 혁신,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의 구호를 관철시키는 것은 비단 금년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하는 데만 그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로동 생산 능률을 급속히 장성시키며 생산물의 원가를 낮추고 그의 질을 현저히 제고시킬 수 있는 공고한 기초를 닦아 놓는 것으로도 된다. 이 구호를 실천하여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그의 생산 능력을 훌륭하게 발휘시키면 7개년 계획의 첫 3년 간에 인민 생활을 급격히 개선할 데 대한 과업의 실현을 더욱 촉진시킬 것

이며 그의 하반기에 실시될 방대한 국가 투자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이는 밑천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구호를 실현하는 행정에서 근로자들과 지도 일'군들은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게 될 것이며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 보수주의를 계속 마스고 앞으로 기술 혁신 운동을 더욱 대담하게 전개할 것이다.

이리하여 당의 이 호소를 관철하면 우리가 사회주의 건설의 더욱 높은 고지를 정복할 수 있는 광활한 길을 개척하게 될 것이다.

당의 호소는 근로자들의 심장을 파악하여 위대한 물질적 힘을 낳고 있다. 광범한 근로자들은 당의 요구를 받아 물고 그를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동원되여 계속 새로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투쟁의 첫 봉화를 들고 일떠 선 강선제강소 용해공들은 계획보다 매일 평균 120톤의 강철을 더 생산하면서도 제품톤당 146키로와트시의 전력을 절약하는 혁신적 성과를 올렸으며 황해 제철소 로동자들은 용광로의 기술 관리를 강화하고 원료의 배합 조절을 개선하여 선철 톤당 콕스 소비 기준을 작년보다 9% 저하시키는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투쟁은 계속 고조되고 있으며 성과는 날마다 확대되고 있다.

대중이 들끓고 있는 지금에 있어서 문제는 전적으로 지도 일'군들이 당의 의도를 사상적으로 접수하고 실천 투쟁에 용감히 나서며 근로자들의 앙양된 기세와 그들의 창발적 발기를 제때에 옳게 조직 지도하는 훌륭한 지휘 능력을 발휘하는 데 달려 있다.

로력 및 생산 조직은 기술과 생산이 발전하는 데 따라 그에 적응하게 부단히 개선되여야 한다. 그런데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이 전개되고 증산과 절약 투쟁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오늘의 조건에서는 매일 매시 급격히 변화 발전하는 새 환경에 맞게 조직 사업을 지체 없이 개선하는 것이 특히 절실히 요구된다. 만일 지도 일'군이 그날 할 조직 사업을 이튿날로 미루는 등으로 대중의 창발적 제기가 열매를 맺는 것을 지연시킨다면 막대한 증산과 절약의 예비를 사장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김 일성 동지가 거듭 강조하신 바와 같이 오늘 가장 큰 예비는 지도 일'군들의 조직 사업에 있다.

지도 일'군들의 조직 지도 수준을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산리 방법을 계속 실생활에서 구현하고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다.

당이 중요하게 제기한 구호를 성과적으로 실천하자면 지도 일'군들이 기술과 경제 지식을 깊이 소유하여야 하며 지도의 목적을 정확히 세우고 세밀하고도 구체적인 계획을 짜 가지고 대중 속에 침투하여 그들과 같이 일하고 상의하며 걸리는 문제를 풀어 주며 군중의 사기를 더욱 북돋아 주는 인민적 사업 작풍을 견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동시에 모든 지도 일'군들이 기술 혁신, 증산과 절약 투쟁에서 힘을 적게 들이고도 효과성이 빠르며 그 의의가 큰 것부터 시작하도록 문제 해결의 고리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여 일단 시작한 일은 어떤 곤난한 조건 하에서도 끝장을 내고야 마는 혁명적 사업 방법과 혁명가적 기풍을 확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전면적 기술 혁신,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 투쟁에서의 성과는 지도 일'군들 자신이 당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 근로자들이 당의 의도를 정확히 인식하도록 친절히 가르쳐 주며 모든 일'군들이 당 정책을 무조건 관철하도록 사상 교양 사업을 강화하는 데 크게 의존한다. 문제는 사람들의 사상에 달려 있다.

《찾아 내면 낼수록 여러 가지 예비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며 동요하여 당 정책을 집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이다》(김 일성 선집, 제 5권, 286폐지).

일'군들이 당의 의도를 사상적으로 접수하였을 때 그들은 당의 구호를 실천하기 위하여 더욱 머리를 쓰게 될 것이며 그것이 실천되지 않는 것을 보면 가슴 아파하고 애타할 것이다.

매개 근로자들이 기술 혁신, 증산과 절약에서 달성하는 성과가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 자신에 대해서와 동지들, 집단, 나아가서는 조국의 부강과 혁명 승리를 위하여 리익을 준다는 것을 더 잘 알게 될수록 그들의 애국주의 사상은 더욱 계발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들이 더욱 훌륭히 일하고 더 많이 만들어 내며 한 개의 쇠쪼각, 한 장의 벽돌도 더욱 아껴 쓰게 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락원 기계 공장 제관 직장 로동자들이 쓰다 남은 쇠쪼각을 맞무어 제품을 만들며 철재가 요구되면 창고에 가기 전에 고철'더미부터 먼저 찾아 매달 10 여톤의 강재를 절약하고 있는 모범적 사실은 지도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요구를 사상적으로 접수하였을 때 어떤 성과가 달성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 준다.

이렇게 전면적 기술 혁신,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 투쟁은 다만 기술 문제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는 사상 문제와 관련되여 있다.

그러므로 이 투쟁에서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위대한 학교이며 경제 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인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다.

오늘 천리마 운동의 기수들은 바로 항일 빨찌산 투사들이 혁명을 위하여 무한히 충실하게 싸운 것처럼 당의 호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전면적 기술 혁신,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 투쟁에서 훌륭한 모범을 보이고 있다. 이 모범을 일반화하며 더욱 광범한 군중이 망라되도록 운동을 계속 확대 발전시키는 것은 당이 제기한 구호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지금 우리에게는 당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

우리의 모든 지도 일'군들이 당의 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 임무수행에 철저하고 용감하게 나선다면 당이 제시한 전투적 구호는 반드시 빛나게 실현될 것이다.

1961년 경공업 부문 앞에 제기된 전투적 과업

강 희 원

1

1960년 12월 확대 전원 회의는 김 일성 동지가 8. 15 해방 15주년 경축 대회 보고에서 제시한 7개년 계획의 첫 3년간의 임무로부터 출발하여 금년에 경공업 발전에 력량을 집중함으로써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였다.

전원 회의가 제시한 이 과업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현 계단에 있어서 경제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로부터 출발하는 긴절한 혁명 과업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제 1차 5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 당 제 3차 대회가 제시한 력사적 과업을 빛나게 실행하였으며 인민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였다.

다른 한편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완전히 승리함으로써 우리 인민을 오랜 세월을 두고 빈궁과 기아에 시달리게 한 사회적 근원이 영원히 청산되였다. 지금은 누구나 다 직업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되였으며 무료로 치료를 받게 되였고 배울 수 있게 되였다.

애국 선렬들이 갈망하던 리상은 실현되였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리념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이것만으로써는 아직 부족하다. 이에 기초하여 더 풍요한 물질적 부를 창조하며 근로자들의 생활을 더욱더 유족하게 하여야 한다.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리 당은 근로자들이 더 유족하게, 더 문화적으로, 더 편리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굳게 결심하고 이 문제 해결에 착수하였다. 우리 당은 2~3년 내에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그 기초 우에서 7개년 계획 기간에 사회주의 건설에서 다시 한 번 거대한 비약을 이룩하자고 한다.

1961년도 인민 경제 계획은 바로 인민 생활을 한층 더 높은 수준에 올려 세우기 위한 투쟁에서의 첫 전투 임무다.

우리 당은 그 창건 첫날부터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계속 경공업 발전에 커다란 력량을 집중하여 왔다. 그것은 경공업이 인민 생활 향상에 직접 복무하는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문의 하나이며 중요하게는 우리 나라의 경공업이 력사적으로 심히 락후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강도 일제는 우리 나라를 자기의 독점적 상품 시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민족 산업의 발전을 백방으로 억제하였고 심지어는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수공업마저 파괴하여 버렸다. 8. 15 전에 우리 나라에는 사실상 경공업의 토대가 없었고 민족 산업이 거의 없었다. 그리하여 북반부에서는 해방 직후 연필 한 자루, 치솔 한 개도 변변히 만들 수 없었다.

우리 당은 이런 빈터에서 해방 후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일정한 경공업의 기초를 축성하였다. 그러나 미제와 그 주구들에 의하여 강요된 전쟁은 우리 인민들이 피땀으로 건설하여 놓은 경공업의 토대를 완전히 파괴해 버렸다.

이러한 사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당은 경공업 발전에 특별한 주의를 돌렸던 것이다.

그 결과 경공업 생산은 1954~1959년간에 평균 42%라는 전례 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하였다. 오늘 우리의 경공업은 1944년의 년간 생산량을 불과 20일간에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직물에 있어서는 1944년의 총 생산량을 평양 방직 공장에서만 단 5일 간에 생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제 때에는 전혀 생산하지 못하던 각종 고급 직물과 염화 비닐 제품, 화장품, 법랑 철기, 각종 유리제 필수품, 각종 통조림 등을 비롯하여 수 많은 새로운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이리하여 수십년을 두고 남의 상품만 팔아 주던 우리의 상점들이 오늘에 와서는 완전히 자체의 상품을 팔게 되였다. 이와 같이 우리의 경공업은 직물, 신발 및 식료 가공품 등 수 많은 경공업 제품을 생산하여 주민들의 수요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키고 있다.

이것은 우리 당 경제 정책의 거대한 승리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만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우리의 경공업이 원래 극히 락후한 상태에서 출발하였고 그 발전 력사가 짧은 까닭에 이미 기본적인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였으나 부차적인 것, 사소한 것들이 미처 해결되지 못하였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당은 이미 축성된 중공업 기지, 경공업 기지, 협동화된 농업, 경제 건설에서의 고귀한 경험들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함으로써 우리의 경공업 기지를 더욱더 공고히 하며 급속히 발전시킬 거대한 과업을 제기하였다.

이것을 해결함으로써만 우리는 오늘 경공업 생산의 비약적인 장성에 비하여 뒤떨어지고 있는 제품의 질 문제와 품종 확대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고 인민 생활을 가일층 유족하게 할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1960년 11월 19일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는 경공업 제품의 질을 일층 제고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고 1960년 12월 확대 전원 회의는 모든 력량을 경공업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일용 필수품들을 더 좋게, 더 값싸게,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이것은 1961년에 우리 당이 반드시 해결하고저 하는 가장 중심 문제의 하나이며 경공업 부문의 전투적 과업》(결정서)이라고 규정하였다.

1960년 12월 확대 전원 회의는 우선 1961년에 국내의 모든 원료 원천을 백방으로 탐구 동원하여 식용유를 비롯한 각종 식료 가공품과 일용 필수품을 더욱 풍족하게 생산하는 동시에 제품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특히 외투와 겨울 내의, 방한모를 비롯한 겨울용 상품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였다.

1961년 경공업의 이상과 같은 기본 과업으로부터 출발하여 이 부문에서는 금년에 지난 해에 비하여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는 기초 우에서 식료 및 기호품 공업은 125%, 일용품 공업은 124%로 각각 장성시키게 될 것이다.

중요 경공업 제품의 생산량에 있어서는 고급 직물인 써루지 100만 메터, 모달리 300만 메터, 외투 250만 벌, 겨울 내의 400만 벌, 양말 4,000만 켤레, 비옷 200만 매, 의혁 구두 190만 켤레를 생산할 것이며, 매일 1인당 기름은 10그람, 두부는 중요 도시와 로동자구에서 1인당 100그람씩 차례지게 할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금년에 경공업 부문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여야 하는가.

우선 식료품 생산을 결정적으로 혁신시켜야 할 것이다. 금년에 경공업 부문에서 가장 주되는 과업의 하나는 식료 가공 분야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지난 기간 특히 1958년 6월 전원 회의 이후에 식료품 가공 공업이 급속히 발전하였으나 급격히 증대하는 근로자들의 높은 수요에 비하여 아직 그의 발전은 뒤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 화력을 집중하여 이 분야에서 변혁을 일으킴으로써 근로자들의 식생활을 더욱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식료 분야에서 특히 해결하여야 할 것은 기름 문제이다. 우리는 금년에 인구 1인당 매일 10그람의 기름이 차례지

게 하며 가까운 년간에 20그람씩 차례지게 하자는 당의 절실한 요구를 무조건 관철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간장, 된장, 고추장 및 각종 조미료를 더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장은 조선 사람의 식생활에서 기본으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켜 질 좋은 제품을 더 많이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도시 주민들 뿐만 아니라 가까운 년간에 농촌에까지 전반적으로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을 더 다양하게 만들어야 한다. 짠 것, 덜 짠 것, 된 것, 무른 것, 고급 장과 보통 장이 있게 하며 고추장도 매운 것, 덜 매운 것, 깨를 넣은 것 등 다양하게 만들어야 한다.

두부를 근로자들에게 더 많이 공급해 주어야 한다. 우선 평양시부터 시작하여 금년에 중요 도시와 로동자구에서 인구 1인당 매일 100그람의 두부를 공급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콩의 종합적 리용에 더 큰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다. 콩에서 기름을 짜고 두부를 만든 다음에 장을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건소채와 장짠지 및 각종 절음류의 생산을 증대시켜 도시 주민들에게 사철 소채와 산채 가공품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식료 가공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는 각종 음료의 생산을 증대시키며 그의 질을 제고하여야 한다. 맥주와 사이다에 대한 장성하는 주민들의 수요를 보장하며 주류 생산을 높여야 한다. 주류 생산에서는 락과, 도토리, 들쭉 등 야생 과실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발효주를 대대적으로 생산할 것이다.

1961년에 방직 공업 부문에서는 직물의 질적 구성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게 될 것이다. 일반 직물 외에 동기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고급 직물의 생산을 획기적으로 증대하게 될 것이다. 가까운 년간에 연사 직물의 비중을 40% 이상에까지 높이며 모직물과 특히 멀지 않아 비날론 공장에서 나올 비날론 직물의 생산을 증대하여야 한다.

금년에 결감 생산의 구성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고 그의 질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내의의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높이면서 그의 품종을 확대하고 질을 제고해야 한다. 특히 녀자용, 어린이용 편직물의 비중을 높이며 춘하추동 계절에 따르는 다종다양한 편직물을 생산하여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게 할 것이다. 내의류 생산에 있어서는 경메리야스 제품의 생산 비중을 급속히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양말 생산에 있어서는 녀자용과 아동용, 긴 것, 짧은 것, 홑 것, 겹 것 등 다종다양하게 생산할 것이며 그의 질을 높이고 량을 증대시킬 것이다.

직물 생산량이 증대되고 그의 구성과 질이 개선됨에 따라 피복 가공이 중대한 문제로 나서게 되였다. 이 부문 사업에서 결정적인 혁신이 요구된다. 평양시 당 위원회 확대 전원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편리하고 맵시 있는 의복을 대량 생산하여 로동자, 사무원, 학생 지어는 농민들에게까지도 그들이 요구하는 형태의 의복을 전반적으로 만들어 공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들 특히 녀성들은 생활에서 큰 부담을 덜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근로자들이 생활을 더 문화적으로 꾸릴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계기로 될 것이며 또한 국가적으로 보아도 천을 현저히 절약하게 될 것이다. 우리 당은 우선 매년 우리가 학생들에게 만들어 입히고 있는 양복을 금년에 질적으로 잘 해 입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성복을 생산함에 있어서는 우선 코트, 아동복 등을 선차적으로 해결하고 점차 그 범위를 확장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경공업이 금년에 결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일용 필수품의 품종과 질 제고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는 것이다.

당의 방침은 앞으로 2~3 년 내에 필수품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를 완전히 충족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상품을 다 만들어 내며 그의 질을 선진적 수준에 올려 세우자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금년에 국내의 모든 일용품 생산 설비와 원료 및 기술을 최대한으로 동원 리용함으로써 신발, 모자, 화장품, 노트를 비롯한 각종 학용품, 만년필, 도자기 제품, 가구 등 각종 일용품 생산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특히 염화 비닐을 비롯한 각종 합성 수지 가공을 발전시킬 것이다. 비옷, 의혁 구두 생산에 력량을 집중하되 특히 비옷을 금년 장마철 전으로 많이 만들어 인민들에게 주도록 생산을 촉진할 것이며 남녀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각종 일용품을 생산 공급해 주어야 한다.

2

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년에 경공업 부문 앞에는 아주 방대한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금년도 경공업 부문에서는 지난 해에 비하여 총 생산액은 125.3%로 장성시키게 된다. 그런데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제고시키고 품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기초 우에서 생산을 25.3% 더 장성시킨다는 것은 실로 벅찬 과업이다.

경공업 부문 일'군들은 당이 제기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튼튼히 틀어 쥐고 완강하게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로, 경공업 부문에서 1961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는 김 일성 동지가 금년 1월 5일 내각 전원 회의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경공업의 원료 기지를 조성하기 위하여서는 강력한 중공업과 급속히 발전하는 사회주의적 농촌 경리에 기초하여 화학 섬유, 합성 수지를 비롯한 화학 공업 원료와 금속 자재의 생산을 확대하는 한편 공예 작물과 농축산물의 생산을 계속 증대시키는 동시에 우리 나라의 산과 들에 풍부한 자연 부원을 적극 보호 육성하며 지방 원료 원천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탐구하며 동원 리용하여야 한다.

경공업의 원료 기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선차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중공업이 이 문제 해결에 력량을 더욱 집중함으로써 비날론, 인견 스프 등 화학 섬유와 염화 비닐을 비롯한 합성 수지 등의 화학 원료 기지를 확고히 축성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류황, 가성 소다와 기타 가소제, 점착제, 방수제 등의 생산을 확대하며 각종 염료, 안료, 도료 및 도금 자재를 더 많이 생산 보장하여야 한다.

농촌 경리 부문에서는 콩, 목화, 대마, 아마, 누에 고치, 담배, 피마주 등 경공업 원료 생산을 부단히 증대시키며 그의 질을 결정적으로 제고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훌륭한 팔프 원료인 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서해안의 간석지를 막고 1~2년 내에 1만 정보 이상의 갈밭을 조성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시켜야 한다.

원료 기지를 조성하고 확대함에 있어서 900만 정보에 달하는 우리 나라의 산을 잘 리용하는 것은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이를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전 인민적 운동으로 원천을 구체적으로 조사 장악하고 제때에 계획적으로 채집하여야 한다. 금년에 원료 확보를 위한 중요한 예비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자기 지방에서 어떤 자연 산물이 자라는가를 정확히 조사 장악한 기초 우에서 지방 공업 기업소들에 절실히 요구되는 산딸기, 머루, 다래 등 과실산들과 도라지, 고사리, 더덕, 칡산 등 지방 공업의 원료 기지를 매 시, 군에 인공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반드시 추진시켜야 한다. 그리고 각 시, 군에서는 산에서 나는 일체 자연 원료들을 남김 없이 채집하는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김 일성 동지가 루차 교시하시였고

창성군과 벽동군을 비롯한 수 많은 산간 지대 인민들이 이 교시를 실천하기 위한 투쟁에서 모범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산을 더 잘 가꾸어 그것을 모두 원료 기지로 전환시킨다면 직물, 식료품 및 일용품 생산에 필요한 더 많은 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는 원료를 만들어 내는 데만 관심을 돌릴 것이 아니라 사장되고 있는 온갖 예비를 탐구 동원하는 데도 심중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그 중에서도 대규모 기업소들의 각종 부산물들과 도시, 농촌에 산재하고 있는 고자재들은 경공업을 위한 중요한 원료이다.

사실에 있어서 1961년 섬유 소비량의 30%에 해당하는 고포, 파섬유 등을 전부 회수 리용한다면 원료의 추가 없이 2천만 메터 이상의 직물을 더 생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매개 기업소들에서는 기관본위주의적 편향을 철저히 극복하고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일체 부산물들을 하나도 남김 없이 수집 선별하여 해당 기업소에 공급하며 전국 각지에 사장되여 있는 고포, 파지, 파유리, 파고무 등 고자재들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회수 리용하는 데 큰 관심을 돌려야 한다.

수매 기관들은 여기에 보조를 맞추어 수매 체계와 가격을 개선 강화함으로써 고자재들을 남김 없이 회수 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원료 원천을 탐구 동원하며 공고한 원료 기지를 축성하며 고자재를 회수 리용하는 것은 방대한 사업으로서 반드시 전체 인민의 힘을 동원함으로써만 성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각 공장, 농업 협동 조합, 모든 기관, 학교, 인민반 할 것 없이 도처에서 전체 인민들이 경공업 원료 기지를 단시일 내에 튼튼히 축성하는 데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원료 원천의 확보와 함께 콩, 옥수수 등 원료를 종합적으로 리용하며 실수률을 제고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청진 및 신의주 제유 공장에서 제유 실수률을 1.5%만 제고한다면 한 해 동안에 600 여톤의 기름을 더 생산할 수 있다. 방직 공장들에서 섬유 원료의 실수률을 평균 1%만 제고한다 하여도 400톤의 실을 더 생산할 수 있다.

경공업의 모든 부문, 모든 고리들에서 전 군중적 운동으로 원료 소비 기준을 개선하고 오작품 생산을 근절하며 원료의 보관 관리 사업을 개선 강화함으로써 원료 소비를 적극 절약하여야 한다.

둘째로, 금년에 우리는 경공업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제고하는 동시에 품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데 투쟁의 예봉을 돌려야 한다. 이 문제는 1~2년 내에 경공업 부문에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전투적 과업이다. 우리 당은 이 분야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 오기 위하여 전 당과 전체 인민이 력량을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전체 경공업 부문 근로자들이 제품의 질을 제고하며 품종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데 대한 당의 의도를 옳게 인식하고 당과 인민에게 성실히 복무하려는 혁명적 군중 관점을 철저히 확립하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하신 바와 같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한다는 정신이 높다고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만들든지 다 알뜰하고 실속 있게 할 것이다. 결국은 사상 문제이다》(선집, 제6권 256페지). 평양 견방직 공장 최 춘자 천리마 작업반원들을 비롯한 경공업 부문 내의 수 많은 천리마 기수들은 오직 당과 인민에게 복무하려는 불타는 일념으로 성심성의 일하며 검사원 없이 자신의 제품을 자신들이 검사하면서 오작품을 근절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고 있다.

제품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천리마 기수답게 일하도록 사상 교양 사업을 강화함과 함께 통제 사업을 이에 배합시켜야 한다. 통제 사업을 성과 있게 보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당에 무한히 충실하고 믿음직한 일군들을 검사원으로 파견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원료 반입, 가공, 조립, 포장 등 매 생산 단계들에서 제품 검사 사업을 엄격히 실시하여 불합격품, 질이 낮은 제품의 생산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규격 제정 사업의 강화, 표준 조작법의 엄격한 준수 등 기술 관리 사업의 개선과 생산 문화의 확립은 제품의 질을 제고함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기업소에서 비록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불합격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원인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대중적 지혜와 창발성에 의거하여 시정 대책을 엄격히 세워야 한다.

제품의 질을 제고하고 품종을 확대하기 위하여서는 경공업 기업소들에서 기술 장비를 강화하며 있는 기계 설비들을 정비 개조하여 그것을 더 잘 리용하는 한편 공예 작물을 비롯한 모든 경공업 원료들의 질을 제고하며 상품의 포장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세째로, 금년도 경공업 부문 앞에 제기된 방대한 과업은 오직 전 인민적 운동으로써만 성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식료품 및 일용품 공업 특히 지방 공업은 제품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인민 대중의 생활과 밀접히 련관된 대중적 공업이다.

이것은 경공업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소비품 생산은 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될 때만이 광범한 규모에서 급속히 발전할 수 있다.

당 중앙 위원회 1958년 6월 전원 회의 이후 경공업 부문에서 달성한 획기적 성과는 바로 경공업의 발전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하며 중앙 공업과 지방 공업을 병진시킬 데 대한 우리 당의 현명한 정책이 관철된 결과이다.

오늘 당은 식료품, 일용품 생산 등 대중적 공업을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앙 공업을 일층 강화하는 한편 지방의 생산적 예비와 근로자들의 무궁무진한 창발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동원 리용하여 지방 공업을 결정적으로 추켜 올려 세우고 그를 계속 전 인민적 운동으로 확대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년에 중앙 공업과 지방 공업은 그 생산을 계속 현저히 장성시키게 되며 경공업 총 생산액에서 지방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3% 이상으로 제고될 것이다.

중앙 경공업 기업소들은 기계화를 완성하고 점차 자동화에로 이행하며 생산 조직과 로동 조직을 일층 개선하며 제품의 질을 제고하는 등 모든 생산 활동에서 지방 공업의 모범이 되며 경공업 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가일층 제고하여야 한다.

지방 공업 부문 기업소들은 온갖 지방적 예비를 백방으로 동원 리용하여 생산을 더욱 장성시켜야 한다. 지방 공업 기업소들에서는 대중의 창발성을 발양시켜 작업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시키며 선진적 생산 방법을 광범히 도입하며 근로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제고하며 기업소 관리 운영 사업을 일층 개선 강화함으로써 생활 필수품에 대한 지방 인민들의 수요를 책임지고 충족시켜야 한다.

우리는 생산 협동 조합의 발전에 계속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조합의 기술적 개조와 조합원들의 사상적 개조를 강화하여 품종을 확대하고 제품의 질을 제고하며 동시에 조합 내 민주주의를 백방으로 발양시키도록 생산 협동 조합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조합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 시기 경공업 발전에 있어서 가내 작업반의 광범한 조직 운영은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공장을 새로 건설하지 않고도 소비품 생산을 확대할 수 있게 하며 근로자들의 수입을 증대시키게 한다. 뿐만 아니라 로동과 집단 생활을 통하여 그들을 사회주의 의식으로 교양할 수 있게 한다. 지난 해에 당이 이 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한 후 많은 지역들에서 가정 부인들로 가

내 작업반을 조직하여 베나이를 비롯하여 수방사, 장갑, 내의류, 아동복 등 직물 및 일용품 생산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가내 작업반은 원료로써 반제품을 만들거나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완성하게 되는 사정과 작업반 성원들의 절대 다수가 가정과 아동들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될 가정 부인이라는 사정을 고려하여 그들에게 일정한 작업 장소를 마련하여 주며 련관된 기업소들의 생산 체계에 망라시켜야 한다.

가내 작업반의 운영상 편의와 협동 로동의 우월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 구획 내에 작업장을 설정하며 위탁식 작업 방법과 각이한 로동 시간 제도 등을 적용하며 로동 조건을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네째로, 경공업 부문 앞에 제기된 전투적 임무를 성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서는 당 중앙 위원회 1960년 8월 확대 전원 회의가 제시하였으며 다시금 12월 확대 전원 회의가 중요하게 강조한 전면적 기술 혁신 운동을 경공업 부문의 중앙 공업 기업소들은 물론 특히 지방 공업 기업소들에서 강력히 추진시켜야 한다.

락후한 기술과 낡은 생산 방법으로써는 급격히 장성하는 소비품 생산을 보장할 수 없으며 품종 확대와 질 제고도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경공업 내 부문별 및 생산 공정별에 따라 기계화 수준이 각이하므로 우선 약한 고리를 추켜 세우기 위하여 식료 가공 공업을 비롯한 지방 공업의 기계화에 력량을 집중함으로써 경공업 전반의 기계화 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우리는 기술 혁신 운동을 계속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식료품 생산을 비롯하여 직물 생산, 일용품 생산 등 모든 분야에서 선진적 생산 방법을 광범히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기술 혁신 운동을 가일층 촉진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는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이면서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의 창조적 결합을 강화하며 기술 혁신자들이 달성한 성과들을 일반화하여 생산에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 경제적 대책들을 제때에 강구하는 것이다. 또한 근로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제고하며 인민 경제 타 부문에 배치된 경공업 부문의 기술자들과 지방 특산품 생산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고급 기능공들을 적소에 배치하며 기술 간부 양성 사업에서 교조주의를 퇴치하고 경공업 발전에 소요되는 간부 대렬을 더욱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3

1961년도 과업 수행을 위한 투쟁은 긴장된 투쟁이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12월 확대 전원 회의 결정을 받들고 이미 금년 첫 1개월 간의 과업을 수행하였다.

금년도 계획 수행을 위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든 개성 직물 공장 로동자, 기술자들은 전면적 기술 혁신,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의 구호 밑에 그날 계획을 그날에 어김 없이 완수하는 기풍을 확립함으로써 1월분 국가 계획을 121.6%로 지표별로 빛나게 수행하였다. 개성 직물 공장을 비롯한 경공업 부문의 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달성한 성과는 바로 우리의 일'군들이 당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며 청산리 방법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성심성의 투쟁할 때에는 어떤 어려운 조건 하에서도 계획을 지표별로 완수할 수 있다는 훌륭한 교훈을 준다.

문제는 일'군들이 굳은 결심을 가지고 당이 준 혁명 과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달라 붙는 데 있다.

김 일성 동지는 평양시 당 위원회 확대 전원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시였다…항일 무장 투쟁 시기 녀성 유격대원들은 적들의 불의의 습격으로 말미암아 극히 위급한 순간에도 혁명 동지들의 식사를 위하여 뜨거운 밥가마를 이고 달려 나왔다. 이 때 동지들은 이 가마를 버리고 빨리 산으로 피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그들은

끝끝내 그 밥가마를 이고 산으로 뛰여 올랐던 것이다. 무엇 때문에 이 동지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하였겠는가, 그것은 오로지 혁명을 위하여, 혁명 동지들의 끼니를 위하여 그렇게 하였던 것이며 그 어떤 가렬한 환경 속에서도 전우들을 한 끼라도 굶기지 않겠다는 책임감과 성의로부터 출발한 것이였다. 만약에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이러한 심정의 백분의 일이라도 있다면 안 될 일이 없다. 이 부문의 모든 일'군들이 이러한 높은 책임감과 성의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하겠다. 오늘의 사회주의 건설자들인 로동자, 농민, 과학자, 예술가, 교원,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일용품을 더 많이 주며, 어떻게 하면 맛 있는 식료품을 더 많이 주겠는가 하고 늘 생각하며 애쓴다면 경공업을 급속히 추켜 세울 수 있고 알뜰하고 쓸모 있는 상품을 더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다…

모든 일'군들이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직하며 당 정책을 철두철미 관철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일 때 훌륭한 창발적 방법들이 나오게 되며 난관은 극복되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상품이 조잡하거나 품종이 단조로울 때 일'군들은 기술 장비를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머리를 탓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은 모든 일'군들이 빈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써 온갖 난관과 애로를 극복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며 과업을 넘쳐 실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만이 곧 당성 있는 사람이요, 인민에게 충직한 애국자이다.

당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며 청산리 방법을 철저히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일'군들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라 붙을 때 원료 문제도, 기술 혁신도,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도, 그 어떤 곤난한 문제도 성과적으로 실천될 수 있다.

결정적인 것은 모든 일'군들이 당과 인민에게 복무하는 숭고한 사상이며 높은 책임성이다.

지도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과 인민에게 충실히 복무하는 사상을 배양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을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 전통으로 계속 철저히 교양하여야 한다. 일'군들 속에서 혁명 전통 교양을 일층 강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혁명 선렬들처럼 애로와 난관 앞에서 굴할 줄 모르며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직한 혁명 투사로 육성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이 부문에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여 모든 사람들이 길 확실 동무의 모범을 따라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고상한 기풍과 인민에 대한 높은 복무성을 발양하도록 교양하며 쓸모 있는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심혈을 기울이게 함으로써 금년도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우리 당의 방침을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혁명 임무 수행에서 모든 사람들이 비상한 결심을 가지고 사상적으로 동원되고 높은 책임성으로 일에 접어 든 조건에서 중요한 것은 일'군들이 사업을 능숙하게 조직하며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자들의 열성이 높고 전개력이 비상할 때 성과는 운전대에 앉아 있는 지도 일'군들의 조직 여하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문제는 모든 부문에서 청산리 교시를 철저히 관철시키는 것이다.

당 일'군들은 청산리 방법 대로 밑에 내려 가서 당 정책을 대주고 대중과 한 덩어리가 되여 토론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당적 분공을 주고 모두가 다 동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일'군들은 많은 문제들 중에서 어느 것이 중심 고리이고 어느 고리가 막혔으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아 내고 그것을 즉시즉시 풀어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일'군들이 밑에 내려 가서 어느 단위를 지도하든지 간에 일단 지도를 하면 어느 하나라도 해결하고 돌아 오는 강한 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 단체들은 우수한 경험과 창발성을 적극 지지해 주고 그것을 일반화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긍정적

모범으로 교양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단위에서 누구나 다 12월 확대 전원 회의 결정을 심장으로 받들고 그날 계획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기어이 그날에 완수하는 강한 규률을 세워야 할 것이다.

조직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발전하는 현실에 적응하게 개선 강화된 경공업 부문의 지도 체계의 매개 고리들에서 그의 역할을 더욱더 제고하는 것이다. 우선 경공업 위원회는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더 높임으로써 중앙 공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도 경제 위원회에 대한 지도를 개선하여 지방 공업을 책임적으로 지도 보장하여야 한다.

경공업 위원회의 지도 하에 도 경제 위원회는 자주적이며 창발적인 활동을 통하여 도내 지방 공업에 대한 조직 운영 사업에 력량을 집중함으로써 지방 공업을 더욱 급속히 발전시켜야 한다.

경공업의 급속한 발전과 지방 산업 공장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필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당은 새로 시(구역), 군 경제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군 경제 위원회는 도 경제 위원회의 장기적인 주재 지도 그루빠로서 《군내 지방 공업의 발전 대책을 협의하며 도 경제 위원회와 공장 간의 련계를 취하여 주며 새 기술 보급과 지방 원료 원천의 탐구 동원을 위한 사업을 조직하며 군내 지방 산업 공장들의 인민 경제 계획 실행을 지도 방조한다》(1961년 1월 19일,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결정서 《경공업 부문에 대한 지도 관리 체계를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경공업 위원회는 도 경제 위원회를, 도 경제 위원회는 군 경제 위원회와 기업소를 지도 방조하며, 다른 한편 중앙 공업 기업소에 대한 경공업 위원회의 지도를 강화하며 그 역할을 높임으로써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라는 당의 요구를 관철시켜야 한다.

각급 당 단체와 지도 일'군들은 개선 강화된 지도 체계에 의거하여 그를 잘 운용함으로써 광범한 대중을 경공업 생산에 적극 조직 동원하여야 한다.

경공업 생산을 혁신시킬 데 대한 투쟁이 경공업 부문 내부에 국한된 사업으로 되여서는 안 된다. 이 분야에서 우리가 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이 전 인민적 운동으로 되여야 한다. 각급 당 단체들은 전체 인민이 온갖 형태와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여 경공업을 더 발전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도록 백방으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중공업은 더 좋은 기계 설비와 원료를, 농업은 다종다양하고 질이 높은 더 많은 원료를, 교육 부문에서는 더 많은 기술자를 양성하여 보내 주어야 하며, 상업은 인민들의 수요와 기호를 신속히 전달하여 주는 등으로 경공업 생산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경공업 부문에서 일대 혁신을 위한 담보는 각급 당 단체들의 생산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금년도 과업이 방대하고 경공업 생산이 전국에 분산되고 있는 사정은 이 부문에서 당적 지도와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부문 지도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여 어떠한 애로와 난관 속에서도 일편단심 당 중앙을 옹호하고 동요 없이 당 정책을 끝까지 관철시키고야 마는 혁명가적 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

이 모든 것은 각급 당 단체들이 경공업 부문의 간부 대렬과 핵심 진지를 튼튼히 꾸리고 당 위원회의 역할을 높임으로써만 보장될 수 있다. 동시에 이것은 기업소 지도 일'군들 속에서 기술지상주의와 실무주의적 경향을 극복하고 모든 사업에서 정치 사업을 선행시킴으로써만 보장될 수 있다.

각급 당 단체들과 지도 일'군들은 발전하는 현실에 적응하게 당적 지도와 통제를 개선 강화함으로써 금년도 경공업 부문 앞에 제기된 방대한 과업을 어김 없이 수행하여 인민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계획 규률의 강화는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필수 조건

지 근 수

당의 령도를 받들고 5개년 계획과 완충기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행한 결과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웅대한 과업을 능히 수행할 수 있는 튼튼한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가지게 되였으며 충분한 정치 사상적 준비를 갖추게 되였다.

우리는 결심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고 7개년 계획의 첫 전투 과업 수행에 착수하였다.

오늘 당은 7개년 계획 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금년도 계획을 승리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전체 근로자들을 계속 혁신, 계속 전진에로 부르고 있다.

7개년 계획의 첫 전투 과업 수행에 착수한 우리 앞에는 인민 경제 모든 령역에서 계획 규률을 더욱 강화하고 계획을 매일, 매달, 매 분기마다 지표별로 꼭꼭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는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나서고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경제는 계획 없이는 일보도 전진할 수 없다. 이것은 생산 수단이 사회화되고 과학적 운영을 전제로 하는 사회주의 경제의 객관적 필연성이다.

그런데 사회주의 경제의 객관적 요구인 계획화는 정확한 계획 작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계획의 작성은 계획화의 시초로 될 따름이다. 인민 경제 계획은 그것이 매 시각 모든 부문, 모든 고리들에서 지표별로 정확하게 실행될 때에만 산 것으로 되며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것으로 된다.

특히 금년에 우리가 수행하여야 할 과업이 방대하기 때문에 계획 규률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제기된다.

공업 생산의 규모가 훨씬 커지고 인민 경제 각 부문 간의 유기적 련계가 가일층 밀접하여진 오늘 공업 생산을 작년 실적에 비하여 금년에 16% 더 장성시킨다는 것은 높은 발전 속도를 견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 중앙 위원회 1960년 12월 확대 전원 회의가 제시한 바와 같이 금년에 우리는 7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 특히 첫 3년 간의 중심 과업으로부터 출발하여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모든 힘을 집중하게 된다.

우선 100만 톤 이상의 알곡 증산 운동을 전개하여 알곡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며 경공업과 수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직물을 비롯한 일용 필수품과 식료가공품 및 수산물 생산을 대대적으로 증대시킴으로써 소비품에 대한 장성하는 근로자들의 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이미 축성된 중공업 기지를 더욱 잘 정비하여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기초 우에서 뜨락또르, 자동차 등 농기계들과 대 중형 선박 및 기계 설비들을 대량 생산 공급하여 농촌 경리의 기계화를 전면적으로 촉진시키고 지방 공업과 수산업의 기술 장비

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경공업의 원료 기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비날론 공장을 비롯한 화학 공장들을 집중적으로 건설하며 광업을 비롯하여 금속 공장들의 생산 설비들을 더욱 강화하고 연료 동력 기지를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금년에 인민 소비품을 생산하는 모든 경공업 기업소들에서는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데 대한 당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비품의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그 품종을 확대하며 질을 결정적으로 제고하는 데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국가 생산 계획 지표로 제시된 인민 소비품의 품종수만 하여도 금년에는 작년에 비하여 중앙 공업에서는 2배 이상, 지방 공업에서는 3배 이상으로 확대되였다.

중공업 부문에서도 그의 기지를 더욱 정비 강화하고 그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금년에 더 새로운 규격과 보다 새로운 종류의 기계, 설비, 자재들을 더 질좋게,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인민 경제 모든 부문, 모든 기업소들에서 금년도에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품종과 규격을 확대하고 질을 더욱 제고하여야 한다는 사정은 모든 고리들에서 계획 규률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제기하고 있다.

당 중앙 위원회 1960년 12월 확대 전원 회의가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계획 규률을 엄격히 확립하고 그날 계획을 그날로 어김 없이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할 것을 특히 강조한 중요한 리유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금년도에 우리는 인민 생활의 획기적 향상을 위하여 모든 예비를 남김 없이 동원하여 최대한으로 증산하여야 한다. 금년도 계획은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기업소들에서 전면적 기술 혁신을 촉진시키고 절약 투쟁을 강화함으로써 있는 로력과 있는 설비로 더 많이 생산할 것을 예견하여 동원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에서 작성되였다.

어느 부문을 막론하고 하루라도 계획 지표를 미달하고 하나의 기술 지표라도 계획에서 예견한 대로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만큼 동원할 수 있는 예비를 사장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그 기업소로 하여금 자기의 금년도 계획을 달성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그와 련결되여 있는 다른 부문, 다른 기업소의 계획 수행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오늘 우리 나라 인민 경제에서는 생산의 규모가 훨씬 커지고 전문화와 협동화 체계가 더욱 광범히 발전된 결과 부문 간, 기업소 간 생산 공급적 련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밀접하여졌다. 매개 부문, 기업소들에서 자기의 계획을 정확히 수행하며 특히 기업소 간 협동 생산의 의무를 옳게 실행하는 문제가 전반적 인민 경제 발전을 위하여 더욱 긴절하게 제기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계획을 일별, 순별, 월별, 분기별로 정상적으로 수행할 대신에 월말이나 분기 말에 《돌격식》으로 수행하는 것은 그 기업소의 생산에 파동성을 초래하며 경리 운영에 혼란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에도 막대한 지장을 준다.

더우기 금년도에 계획을 지표별, 규격별, 품종별로 수행하지 않고 금액상 계획 수행만을 달성하려고 급급한다든가, 다른 부문 또는 다른 기업소들에 대한 의무를 정확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민 경제에 더욱 커다란 혼란을 조성케 되며 전반적 인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엄격한 계획 규률이 확립됨으로써만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은 모든 부문에서 지표별로 초과 완수될 수 있으며 전체 7개년 계획 수행을 위한 광활한 대로를 열어 놓을 수 있다.

* *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계획 규률을 엄격하게 확립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모든 일'군들이 매개 초소에서 자기가 맡은 혁명 임무를 반드시 수행하고야 마는 높은 당적 책임성과 혁명에 대한 고도로 되는 충실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인민 경제 계획은 곧 혁명 과업이며 당의 지령이다. 기양 뜨락또르 공장, 덕천 자동차 공장, 흥남 비료 공장 등을 비롯하여 농촌 경리 발전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된 모든 기업소들에서 부과된 계획을 제때에 질량적으로 정확히 수행함이 없이는 금년도의 전 당적 과업인 알곡 100만 톤 증산 목표가 달성될 수 없다. 또한 직물, 일용품, 식료품 등 인민 소비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에서 생산 판매 계획을 제때에 지표별로 꼭꼭 수행하여 나가지 않고서는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데 대한 당의 의도가 실현될 수 없다. 한 톤의 강재, 한 메터의 천을 계획 대로 생산하는 것이 곧 당의 의도를 구현하기 위한 혁명 투쟁이며 인민의 리익과 혁명의 리익에 충실한 표현이다.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은 무엇보다 먼저 매개 일'군들이 그날 자기 앞에 맡겨진 계획을 정확히 완수 및 초과 완수하는 데서 표현되여야 한다. 혁명 정열에 불타고 당을 받드는 사상으로 항상 세차게 고동치는 심장을 가진 일'군이라면 어찌 자기에게 부과된 그날 그날의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겠는가!

계획 규률을 강화하는 문제도 결국 사상 문제이며 당적 사상 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사상 투쟁과 떼여서 생각할 수 없다.

그날에 하려던 일을 그날에 하지 않고 뒤로 미루며 하면 하고 말면 마는 절도 없는 사업 태도는 되는 대로 일하고 되는 대로 살던 낡은 사회의 유습이다.

특히 혁명 투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 1차적 임무로 되는 것은 통일적 규률에 복종하여 하나의 의지로 일치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국가 계획은 바로 우리 인민의 통일적 의사이며 당의 의지를 구현한 것이다. 계획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모든 일'군들의 의무이며 국가의 법이다.

《…국가 계획은 한갖 예측인 것이 아니라 인민 경제의 발전 방향을 규정한 지령이며 모든 국가 기관들과 경제 기관들에 있어서 무조건적 의무로 된다.

그리하여 계획은 엄격한 법적 성격을 띠며 국가 계획에 규정된 항목들에 대한 사소한 위반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국가 규률의 위반으로 된다》(김 일성 선집, 제 4권, 127폐지).

모든 일'군들이 혁명가답게 생활과 사업에서 일체 낡은 사상 잔재를 청산하고 안일하고 해이된 요소를 추호도 용허하지 말며 항일 빨찌산 대원들이 말할 수 없이 곤난한 환경 속에서도 혁명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 이겼던 것처럼 모든 애로와 곤난을 극복 타개하고 당 앞에, 혁명 앞에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혁명적 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 지도 일'군들이 자기 부문, 자기 기업소에 맡겨진 일을 꼭 해내고야 마는 강의한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당 정책을 무조건 관철시키기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할 때에만 계획 규률은 확립될 것이며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은 모든 고리들에서 어김 없이 완수 및 초과 완수될 것이다.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적 혁신이 일어 나고 대중의 혁명적 기세가 대단히 높은 현 조건 하에서 계획의 어김 없는 수행은 주로 생산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지도 일'군들의 조직 사업 여하에 달려 있다.

지도 일'군들이 높은 당적 책임성을 가지고 계획 수행을 면밀하게 조직함으로써만 인민 경제 모든 고리들에서 계획 규률은 강화될 수 있다. 오늘 우리 당이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면적 기술 혁신도, 생산의 정상화도, 전 군중적 절약 투쟁의 강화도 모든 단위의 지휘자들인 지도 일'군들의 조직력과 전개력 여하에 달려 있다.

우선 지도 일'군들은 청산리 방법을 더욱 철저히 관철시켜 생산에 깊이 침

투합으로써 하부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대중 속에서 금년도 계획의 내용과 그 수행 방도를 자기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가르쳐 주어야 한다.

이러한 기초 우에서 기업소 지도 일'군들은 매달, 매주, 매일 집행 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매개 직장, 작업반, 로동자들에 이르기까지 계획 과제를 명확히 제시하여 주며 그 실행을 수시로 총화하여야 한다.

지도 일'군들은 계획의 정상적 수행을 위하여 사람들을 옳게 포치하고 생산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 주며 기계 설비들이 정상적으로 돌아 가도록 백방의 대책을 강구하는 등 치밀하게 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특히 공정상 조직에서 불합리한 점을 즉시 퇴치하고 생산 공정의 전반적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는 동시에 매개 기계 설비들의 점검 보수 사업과 예비 부속품을 확보하는 사업에서 엄격한 제도와 규률을 세우며 표준 조작법을 위반하는 현상과 견결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설비 리용률을 결정적으로 제고하여야 한다.

계획 규률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원료, 자재 등에 대한 보장 조건을 옳게 해결하여 주는 문제가 중요하다. 이에 있어서 원료, 자재를 상부에서 해결하여 줄 것만을 기다리는 안일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퇴치하고 생산의 내부 예비와 지방의 유휴 자재를 최대한 동원 리용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을 강구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차적으로 나선다.

오늘 우리 당이 특히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기업소들에서 로력 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로력 랑비를 근절하는 것은 금년 계획 수행에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모든 기관, 기업소들에서 로력의 예비를 찾아내며 로력을 랑비하는 현상과 견결히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 공업에서는 가내 작업반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직장에 진출할 수 없는 가정 부인 등 유휴 로력 예비를 최대한 인입함으로써 더 많은 소비품을 다종다양하게 더 질 좋게 생산할 데 대한 당의 요구를 관철시켜야 한다. 가내 작업반을 단순한 부업으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조직 지도 사업을 홀시하는 현상을 청산하며 가내 작업반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한다면 지방 공업에서는 금년에 훨씬 더 많은 생산을 낼 수 있다.

인민 경제 모든 부문, 모든 기업소들에서 제도와 질서를 강화하고 일체 사고와 오작품 생산을 근절하며 계약 규률을 엄격히 준수하는 문제는 금년도 계획을 지표별로 초과 수행하기 위한 극히 중요한 조건이다.

매개 기업소들에서는 오작품 생산을 방지하며 불합격품이라든가 질이 낮은 제품이 생산되였을 때에는 엄중한 사고로 간주하고 그의 시정 대책을 즉시 취하여야 한다.

제품의 질 제고 문제도 결국 사상 문제라고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질 제고를 위한 사상 투쟁을 심화하고 그에 엄격한 검사 제도를 배합함으로써 매개 기업소들에서 등급별, 재질별 생산 계획을 정확히 수행하여야 하며 금년도 질 제고 목표를 어김 없이 돌파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부문, 모든 기업소에서 자기의 생산 계획을 넘쳐 실행하고 다른 기업소에 대한 계약 의무를 정확히 수행함으로써 그 기업소의 계획 수행을 보장해야 한다.

금년도 계획 실행에 있어서 로동 생산 능률 제고, 설비 리용률 제고, 원가 저하 등의 지표를 반드시 초과 수행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 이것은 당 중앙 위원회 작년 12월 확대 전원 회의가 강조한 바와 같이 금년 계획 수행의 기본 담보인 전면적 기술 혁신과 전 군중적 절약 투쟁을 더욱 강화함으로써만 성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전면적 기술 혁신을 꾸준히 촉진함이 없이는 방대한 금년도 계획 과제를 전반적으로 실행할 수 없으며 절약 예비를 최대한 동원할 수도 없다. 우리는 기술 혁신을 통하여 로동 생산 능률을 더욱 높이고 있는 로력, 있는 설비로써

증산을 보장하여야 하며 전면적 기술 혁신을 통하여 원가를 계통적으로 저하하고 단위 소정 자재로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경험은 기술 혁신의 촉진을 위하여서는 기술 신비주의를 더욱 철저히 청산하는 동시에 대중을 옳게 동원하기 위한 조직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모든 기업소들에서는 장성된 생산 계획에 부합되게 기술 계획을 정확히 수립한 기초 우에서 그에 예견된 대로 새 기술의 도입과 그를 위한 보장 대책을 옳게 강구하는 한편 대중의 창의 창발성을 적극 동원함으로써 부단히 선진 기술을 생산에 도입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로동 생산 능률 제고 계획을 반드시 초과 수행하여야 한다. 금년에 공업생산 장성의 많은 부분을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에 의하여 달성하여야 하느니만큼 이 지표를 매개 기업소, 매개 작업반, 매개 로동자들이 모두 넘쳐 수행하는 것은 금년 계획 수행에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전력, 석탄, 철재, 유색 금속, 목재 등 중요 원자재를 극력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것은 전면적 기술 혁신과 함께 금년도 계획을 매일, 매달 지표별로 초과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 조건이며 모든 일'군들의 전투적 임무이다.

절약 투쟁의 강화, 이것은 나라의 축적을 증대시키며 추가적 투자 없이 생산의 장성을 보장하며 경제 건설의 성과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 조건이다. 내부 예비를 동원하며 엄격한 절약 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자재의 긴장성을 풀기 위한 일시적 깜빠니야가 아니라 최소한의 지출로써 가장 효과적인 성과를 달성하려는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 운영의 본질적 요구이며 사회주의 경제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이다.

특히 금년에 우리가 북반부 인민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더욱 고무하고 그들을 하루 속히 구원하기 위하여 더 많이 생산하려면 절약 투쟁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에 있어서 기술 혁신을 통하여 원단위 소비 기준을 부단히 저하하며 값싼 대용 자재를 광범히 도입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물자의 보관 관리 사업을 철저히 하고 설계 예비를 근절함으로써 원료, 자재를 최대한 절약하고 원가를 체계적으로 저하하여 원가 저하 지표를 어김 없이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근로자들이 국가 살림살이의 주인답게 한 와트의 전력, 한 오리의 실이라도 아껴 쓰며 생산에 동원 리용할 수 있는 각종 기자재들을 최대한 리용하여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에 전 군중적으로 동원되여야 한다.

경제 과업 수행에 있어서 특히 금년도 계획의 성과적 수행에 있어서 혁명적 로동 계급의 창조적 열성과 우리의 붉은 과학자, 기술자들의 지식과 기술을 더욱 밀접히 배합시키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 계획 실행에서 제기되는 어려운 문제들을 과학자, 기술자들과 의논하며 그들의 모든 재능과 기술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사업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데 각별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

금년도 계획의 성과적 수행에 있어서 각급 계획 위원회들을 비롯한 통제 기관들의 역할을 높이며 계산 통계 사업을 강화하는 문제가 극히 중요하게 나선다.

계획 수행 과정을 일상적으로 검열 통제하는 사업이 안받침되지 않고서는, 정확한 계산과 통계가 없이는 계획의 전반적 수행이 성과적으로 보장될 수 없다.

특히 모든 통제 기관들은 높은 정치적 수준에서 인민 경제 모든 부문, 모든 기업소들에서의 계획 수행 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여 계획 수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수시로 해결하

여 주며 계획을 위반하는 사소한 현상도 용허하지 말고 국가 계획이 모든 고리들에서 매개 지표마다, 매 시각 정확하게 실행되도록 구체적인 통제와 지도 대책을 옳게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 전체 근로자들은 《전면적 기술 혁신,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금년도 계획을 완수 및 초과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더욱 새로운 승리를 달성하고 있다.

1월분 계획을 120%로 지표별로 완수한 강선 제강소를 비롯한 모든 중공업 기업소들과 1월 계획보다 63만 5,000 메터의 각종 직물을 더 생산한 평양 방직 공장을 비롯한 모든 경공업 공장들에서 이미 1월 계획을 빛나게 완수하였으며 2월분 계획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새해의 첫 전투에서 혁혁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기세는 날로 높아 가고 있다.

이 기세를 계속 견지한다면 금년도에 공업 생산을 16%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장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지도 일'군들 앞에는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 기세에 지도를 따라 세우기 위하여 청산리 방법을 더욱 철저히 관철시키는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나서고 있다.

청산리 방법의 철저한 관철—이것은 금년도 계획 수행의 결정적 조건이며 모든 성과의 믿음직한 담보이다.

지도 일'군들은 관료주의와 형식주의의 낡은 틀을 더욱 철저히 타파하고 생산 현장에, 대중 속에 깊이 침투하여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고 증산과 절약의 예비를 대중과 함께 탐구하며 막힌 고리들을 즉시 풀어 주며 금년도 계획의 일별, 순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 수행에 대중을 조직 동원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하신 바와 같이 경제 관리 지도 일'군들이 기업소에 직접 내려 가서 지배인, 기사장들을 방조하여 그들의 경제 조직 지도 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기초 우에서 7개년 계획 특히 그 첫해인 금년도 계획 수행의 거대한 정치 경제적 의의와 금년계획 수행에서 계획 규률 확립의 중요성을 대중들 속에 더욱 철저히 침투시켜 그들의 창조적 열의를 적극 동원하기 위한 정치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계획을 매일, 지표마다 초과 완수하고 있는 모범적 일'군들을 높이 평가하고 모든 일'군들이 그 모범을 따르도록 하는 등 계획 규률 강화를 위한 자극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어느 한 개 기업소, 작업반, 매개 로동자들에 이르기까지 그날 자기 앞에 맡겨진 계획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는 현상이 없도록 하며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이 사업과 밀접히 결부시켜 그를 더욱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전체 근로자들이 당의 의지로 튼튼히 무장하고 계획 수행에 한사람같이 동원될 때 인민 경제 모든 고리들에서 계획 규률은 엄격히 확립될 것이며 금년도의 방대한 인민 경제 계획은 빛나게 완수 및 초과 완수될 것이다.

미제와 결탁한 일제는 조선의 력사적 침범자

최 윤 규

미제를 등에 업고 재생하고 있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최근 남조선에 다시금 기여 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일본의 이께다 정부는 장 면 일당과의 정치적인 결탁을 로골적으로 서두르면서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 침투의 길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획책하고 있다.

장 면 일당은 미제의 사촉 밑에 소위 《투자의 자유화》를 떠벌리면서 1월 5일 미국 독점 자본은 물론, 일본 독점 자본까지 남조선에 더 마음 대로 침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기 위하여 현 《외국 투자 촉진법》을 곧 개악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6일에는 장 면 자신이 《민간업자를 통한 일본 자본 도입은 대일 국교 정상화 전에도 가능하다》고 지껄이면서 일본 독점 자본을 끌어 들이는 데 초조하고 있다.

다른 한편 이께다 정부는 이미 수억 딸라에 달하는 《경제 원조》를 남조선에 《제공》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이에 발맞추어 일본 독점 자본의 《경제 사절단》들이 남조선에 분주히 드나들고 있다.

그들은 남조선에서의 《화력 발전소 건설에 참가》한다는 구실 밑에 지난 날 조선 인민의 고혈을 그처럼 무자비하게 짜내고 우리 나라의 부원을 혹심하게 략탈하여 간 바로 그 독점체들인 《미쯔비시》, 《후지》, 《미쯔이》 재벌들이 남조선에 기여 들기 위하여 《교섭》을 진행하는 한편, 《한국에 대한 일본의 어업 기술상 방조, 량국 간의 공동 어업 활동, 한국에서의 일본의 어업 기업소 건설》을 실현하려고 흉책하고 있다.

일제의 이와 같은 책동은 결코 그가 가면을 쓰고 떠벌리다 싶이 《경제적 협조》나 《한일 관계 개선》에 있는 것이 아니다. 조선을 36년간이나 강점한 경험이 있고 극동에서의 조선의 전략적 및 경제적 의의를 잘 알고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미련과 야심에서 나오고 있다. 그것은 이미 오래 전에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한 대변인으로 되여 있는 오노 반보꾸가 일본이 남조선과 대만을 통합하여 《일본 합중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 데서 그리고 일본 군국주의의 두목의 하나인 기시가 《일본의 경제권 확립》을 떠벌린 것 등 수다한 공개적 언명들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들의 야욕은 현 시기 더욱더 첨예화하고 있는 경제적 모순과 결부되고 있으며 그 자들의 대외 팽창을 강화하여 시장을 탈취하며 자본을 수출하고 자원을 략탈하여야 할 절박한 요구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일본 침략 계층이 획책하고 있는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 침투는 미 제국주의의 적극적인 비호와 그의 조정 하에서 감행되고 있다. 미국 하원 외교 위원회 보고에서 《한국이 과거지사를 잊어 버리고 일본 경제안에 통합》되여야 한다고 설교하고 있으며 지어는 《일본의 분공장을 남조선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떠벌림으로써 그의 본성의 일단을 드러내 놓고 있다.

경제적 모순으로 하여 더욱 로골화되고 있는 일본의 대외 팽창욕과 남조선이 직면한 경제적 파국을 리용하여 두 올개를 결합시킴으로써 미제는 오래 전부터 야망하여 오던 동북 아세아에서의 침략적 군사 쁠럭을 조작하려고 흉책하고 있다. 미제는 일본 군국주의를 부활시켜 그들의 침략의 발판을 닦아 줌으로써 그를 아세아 추종국들의 병력의 핵심으로 만들어 아세아에서의 자기의 침략 정책 수행을 위한 《돌격대》로 리용할 것을 타산하고 있다.

또한 미제는 일제를 남조선에 끌어 들임으로써 지금까지 일련의 나라들에 주는 차관을 그가 단독으로 부담해 왔기 때문에 봉착하게 된 심각한 경제적 곤난을 타개하는 데 도움을 받으려는 목적을 노리고 있다.

오늘 장 면 일당이 파탄 일로를 걷고 있는 남조선 경제를 일본 독점 재벌에게까지 예속시키려고 하는 것은 남조선 경제를 더욱 헤여날 수 없는 구렁에 몰아 넣을 뿐만 아니라 호시탐탐 조선 재침략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에게 그 길을 열어 주는 매국적 행동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력사는 일찌기 제국주의 독점 자본을 끌어

들여 자립적 민족 경제를 이룩하고 민족적 자주권을 보장한 실례를 알지 못한다. 이것은 락후한 나라와 식민지 및 예속국에 대한 무자비한 략탈로 식민지 초과 리윤을 짜내는 제국주의 자체의 본질로부터 흘러 나오는 필연적 결과이다.

특히 우리 조선 인민은 일제와 미제의 장구한 조선 침략 력사를 통하여 제국주의 독점 자본의 침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오늘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 침투를 꾀하고 있는 일제와 그를 조종하고 있는 미제는 력사적으로 조선 침략의 공범자이다.

미제는 1905년 7월 미국 륙군 장관 타프트와 일본 수상 가쯔라와의 비밀 회담 등을 통하여 일본측으로부터 자기의 식민지인 비률빈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보증을 받은 대'가로 일본의 조선 강점을 적극 지지하고 주선하였다.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후에는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 통치를 적극 지지하여 나섰다. 조선 인민이 일제를 반대하여 거족적인 항쟁에 궐기하였던 3.1 운동 당시 미 국무성 당국자는 《조선 문제는 순전히 일본의 내정 문제》라고 떠벌리면서 우리 인민을 닥치는 대로 학살하고 잔인 무도하게 탄압하는 일제를 극력 비호하여 나섰던 것이다.

반 세기 전 일제가 미제의 지지와 고무를 받으면서 우리 나라를 침략하고 식민지화하던 그 과정은 오늘 조선 인민이 천추에 잊을 수 없는 력사로 남아 있다.

미국 강도배들의 지원과 추동 밑에 일본 침략자들은 1875년에 《운양호 사건》을 도발하고 다음 해에는 그의 도움으로 힘을 들이지 않고 침략적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이로써 조선은 외국 자본주의 침략자들의 반(半)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바로 미제는 조선을 반식민지로 전락시킨 원흉이며 일제는 그 선봉이였다.

《강화도 조약》에 의한 소위 《개항》 이후 일본 자본주의는 조선을 자기의 상품 시장으로 전변시키는 한편 농산물 기타 지하 부원을 략탈하며 점차 조선 내에서의 제 경제적 공간들을 장악하며 조선 경제의 각 부문을 침식하는 길에 들어 섰다.

우선 일본 자본가들은 조선 무역을 거의 독점하고 자본주의 상품을 대량적으로 조선에 끌어 들이는 한편 미곡을 비롯한 농산물과 지하 부원을 략탈함으로써 막대한 리윤을 짜냈다. 1896년 현재 인천, 부산, 원산 등 우리 나라의 주요 항구들에 설치된 외국 상관(商館)의 수는 258개에 달하게 되였고 그 중 일본 상관은 210개나 되였다. 이것을 통하여 외국 상품이 조선의 방방곡곡에 침투되였으며 대량의 미곡을 비롯한 농산물들이 반출되였다.

일본 자본에 의한 조선 시장의 강점은 조선 재래의 면포, 견직물, 마포, 저포, 도자기, 유기, 철기, 종이 등 수공업에 큰 타격을 주어 급격히 쇠퇴케 하였으며 농민 생활의 령락을 촉진하였다.

일본 침략자들은 조선에서의 경제적 《리권》의 탈취에 공개적으로 나서는 한편 1894년 청일 전쟁을 계기로 하여 조선 내정에 로골적으로 간섭하는 길에 들어 섰다.

일제가 조선 경제를 침식하고 지배하는 데 있어서 극히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된 것은 금융 화폐 부문에 대한 침투였다.

일제는 벌써 1878년에 부산에 일본 《국립 제 1 은행》 지점을 설치하였으며 그 후 계속하여 원산, 인천, 서울, 목포, 남포, 군산 등 중요 도시들에 《제 1 은행》을 비롯한 일본 은행들의 지점 및 출장소 망을 포치하였다.

《제 1 은행》 지점은 일본 상인들에 대한 대부와 환(換) 업무 이외에 조선 봉건 정부에 대한 차관, 조선의 각 《개항장》의 해관세 관리, 은행권 발행, 조선 국고(國庫)의 관리 등 특수 업무까지 취급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침략의 중요 거점의 하나로 되고 있었다.

일제는 조선의 화폐 제도의 문란 상태를 리용하여 그것을 《개정》한다는 명목 하에 자기의 화폐 제도와 거의 동일하게 조선의 화폐 제도를 꾸며 놓음으로써 일본 자본의 류입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이것을 기회로 자기의 화폐의 조선 류통계에서의 지배와 그것에 의한 략탈을 보장하였다.

일제는 조선에 대한 경제적 및 군사적 침략의 확대와 더불어 통신 및 철도 부문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진출하였다. 그들은 1905년까지 조선 내의 일체 우편, 전신, 전화 활동의 독점을 완료하여 조선의 신경 계통을 완전히 틀어 쥐였으며 미국인이 획득하여 착수한 경인 철도 부설권을 매수하며 1900년에 이를 준공하고 로일 전쟁(1904~1905)을 계기로 경부선, 마산선, 경의선을 부설하여 장악하였다. 이 철도들은 군사적 침략과 조선에 대한 정치적 지배는 물론 상품 판매 시장의 확장, 식량 및 자연 부원의 략탈에 있어서 일본 침략자들을 위한 동맥으로 되였다.

일제는 조선을 침략하는 첫날부터 조선의 지하 자원 략탈에 특별히 관심을 돌렸다.

일본 침략자들은 《개항》 후 초기에는 《매수》의 방법으로, 1900년을 전후로 하여서는 《매수》하는 한편 미영 등 구미 자본과 더불어 운산, 은산, 수안, 직산, 창원, 의성, 합천 금광들과 은률 철산 등 우리 나라의 주요 광산들을 모조리 탈취하고 조선 로동자들을 비인간적으로 혹사하면서 금을 비롯한 지하 부원을 직접 략탈하였다.

이것은 일본 자본의 자본 축적의 중요 원천으로 되게 하였으며 당시 불견고한 일본의 화폐 제도를 공고화하는 데 돌려졌다. 반면에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을 저애하였고 자체로 공고한 화폐 제도를 가질 수 없게 하였으며 조선 경제를 외국 자본에 더욱 예속시키게 한 요인의 하나로 되였다.

일본 자본가들은 조선을 침략하는 초기부터 식민지 초과 리윤을 노리고 조선에 공장들을 설치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우선 그들은 조선 농민들에게서 략탈한 미곡을 정미하여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한 정미 공장들을 설치하였다. 이 외에 일본인 거류자들의 특수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청주 및 연초 제조 공장, 침략적 목적을 위한 철 공장, 벽돌 공장 등도 설치하였다. 이미 20세기 초에 가공 공업에서도 일본 자본은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일본 침략자들이 가장 집요하게 달라 붙은 것은 토지의 수탈이였다. 당시 조선은 아직 봉건적 농업 국가로서 토지가 기본적인 생산 수단이였으니만큼 그것은 침략자들에게 있어서 우선 략탈의 첫 대상으로 되였으며 조선에 대한 경제적 지배의 관건의 하나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 침략자들은 무력한 왕권에 대해서는 위협과 공갈의 방법을 적용하면서 인민들의 각종 토지들을 소위 토지 《국유제》를 구실로 거류지, 철도, 병영 및 광산용지, 공장, 창고 부지 등으로 무상 강탈하였다. 령락하는 농민들에 대해서는 사기와 고리대적 방법으로 《자유스런》 토지 사유 제도의 간판 밑에 비옥하고 위치 좋은 농경지를 헐값으로 매점하였다. 일본 침략자들은 략탈한 토지를 소작 주고 고률의 소작료를 짜냈다.

토지 략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점의 하나로 된 것은 1908년에 창립된 《한국 척식 주식 회사》(후에 《동양 척식 주식 회사》로 개편)이다. 이에 의하여 막대한 조선 농민의 토지가 강탈되였고 조선에서의 가장 큰 대토지 소유자로 등장하였다.

조선 강점 이전의 토지 수탈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소위 역둔토(驛屯土)의 강탈이였다.

일제는 1908년 한국 왕실 재산을 정리한다는 구실 밑에 종래의 역둔토 외에 궁실에 속하였던 각 궁장토(宮庄土)와 릉묘에 부속되였던 일부 토지를 《국유지》로 개편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소유권을 장악하였다.

이렇게 강탈한 역둔토의 면적은 동척 출자 토지를 제외하고도 무려 10만 정보 이상으로서 이에 예속된 소작 농가만 하여도 28만 호 이상에 달하였다. 이리하여 일본 침략자들은 조선 강점 이전에 이미 조선에서 왕위를 대신하여 최대의 봉건적 지주로 등장하였으며 직접 수 많은 조선 농민들을 농노와 같이 착취 억압하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일제는 미제의 방조 밑에 조선 강점 이전에 이미 조선의 경제적 명맥을 틀어 쥠으로써 조선 봉건 정부로부터 실권을 탈취하고 그것을 허수아비에 불과한 명목상 정권으로 전락시켰다.

1905년 일제가 조선 정부에 강요한 《을사 보호 조약》은 조선에 대한 경제적 지배를 더욱 강화하고 정치적 지배를 확립하는 결정적 조치였다. 이때에도 미제는 솔선 서울에 있던 공사관을 철거하여 일제 침략자를 외교적으로 지원하여 주었다. 이리하여 일제는 조선에서 외교권을 장악하고 소위 《보호권》을 행사한다는 《통감부》를 설치함으로써 조선 내정에 대한 간섭의 범위를 넘어 직접 그 집행자로 등장하였다.

사태가 이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무능한 봉건 통치배들은 전국적 규모로 폭풍우같이 확대되고 있는 전 인민적 반일 의병 투쟁에 의거하여 나라의 자주권을 회복하고 침략자들의 경제적 침투를 제거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대신에 결국 일제의 무력적인 위협 공갈과 회유 정책에 굴복하고 자기들의 향락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침략자들 앞에 나라를 내맡기는 매국 배족적 길로 떨어졌다.

이리하여 다만 형식상 문제로만 남아 있었던 일제의 조선 강점은 드디여 1910년 8월 《한일 합병 조약》의 공포로써 완성되였다.

일제의 조선 침략 력사는 경제적 예속이 불가피적으로 정치적 예속을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조선 인민이 천추에 잊을 수 없는 일제 강점 36년에 걸친 그 암담하던 망국의 비극은 바로 이렇게 시작되였다.

일제는 강점 첫날부터 조선을 일본 독점 자본의 철저한 원료 공급지 및 상품 판매 시장으로 전환시키며 대륙 침략을 위한 군사 교두보로 확보하기 위하여 전대미문의 무력적 탄

압으로써 조선 인민에 대한 혹심한 략탈과 착취를 감행하였다.

일제 강점 초기에는 《회사령》을 발표하고 민족 자본의 발전을 《법적》으로 억압하였으며 말기에는 《중 소 기업 정비령》이라는 것을 내걸고 조선의 중 소 기업들을 강제 폐쇄하거나 자기의 군수 공업의 부속물로 전환시켰다. 강대한 일본 자본에 대항하지 못하고 몰락 당하는 연약한 민족 자본을 이렇게 《법적》으로 억압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수탈과 경제 활동의 제한 등으로도 완전히 봉쇄하였다.

또한 일본 상품의 범람으로 말미암아 강점 전부터 쇠퇴 일로를 걸어 오던 전래의 수공업은 물론 생계를 위하여 겨우 연명하던 수공업적 작업장마저 유지할 수 없게 되였다.

이와 같이 일제는 조선에서 민족 경제의 발전을 위한 어떠한 싹도 철저히 말살하려고 발악하면서 철도를 비롯한 일체 운수 시설, 체신, 항만, 광산, 림야, 신용 기관 등 조선 경제의 모든 명맥을 완전히 자기 수중에 틀어쥐였다. 이러한 토대 우에서 일본 략탈자들은 값싼 로동력을 리용하여 식민지적 고률 리윤의 착취와 군사적 목적과 군수상 수요를 위하여 일련의 공장, 제조소, 발전소들을 건설하였고 광산들을 개발하였다. 이리하여 조선 내에서 건설된 자본주의 기업들은 거의 전부가 일본 침략자의 수중에 있었으며 여기에서 생산된 생산물은 그들의 수중에 집중되였다.

1940년 현재로 조선 내에서 100만원 이상의 자본을 가진 공장들의 공칭 자본액 중 일본인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94%에 달하였다.

조선 내 공장, 광산에서 생산된 생산물은 대부분이 일본으로 반출되였는바 광물 반출에서 특히 심하였다. 실례로 조선 광물 생산액의 약 80%가 일본으로 반출되고 나머지는 조선에서 략탈과 군사적 목적에 사용되였다. 이렇게 반출된 생산물은 일본 공업을 위한 원료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게 되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제에 의한 조선에서의 식민지 공업의 창설은 결코 조선 경제의 자주적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였으며 다만 식민지 초과 리윤의 획득과 일본 공업의 약체성을 보충하기 위한 데 있었으며 그것과 떼낼 수 없는 구조적 편계를 가지고 있었다.

일제는 1930년대부터 중국에 대한 침략 전쟁을 도발하며 반쏘 침략 전쟁을 준비할 목적으로 략탈한 지하 자원과 원료를 반출하기에 편리하도록 가공하기 위한 반제품 공업과 군수상 필요 및 기타 특수한 목적을 위한 금속, 화학 등 대규모 공업을 건설하기 시작하였으며 군사적 목적과 원료 반출을 위하여 철도, 항만 등 교통 시설을 확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제는 조선에 더욱 대량적으로 자본을 수출하였다. 1940년 경 일제 자본 투하 총액은 일제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대체로 75억 원이였고 이 외에 《총독부 예산》을 통하여 투자한 8억 6천 여만 원을 합한다면 약 84억 원에 달하고 있었다.

수출된 이 자본에 대하여서는 막대한 초과 리윤이 보장되였는바 일제가 발표한 최저 리윤률 13.8%에 의하여 계산하더라도 조선 내에 설치된 기업체들에서 얻게 된 리윤만도 매년 10억 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다.

이 방대한 리윤은 조선 인민에 대한 노예화와 가혹한 식민지 착취에 의하여서만 얻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조선 로동자들은 국내에서 혹심한 차별적인 착취와 압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소위 《자유》 모집과 알선 내지 강제 징용 등으로 일본에 끌려 갔는바 이렇게 끌려 가서 일본 로동 시장에서 착취 당한 조선 로동자의 수는 150만을 넘었다.

이와 같이 일제가 조선에 건설한 기업소들은 조선 인민과 조선의 부원을 착취 략탈하기 위한 수단이였으며 그것은 조선 경제의 자립적 발전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예속적이며 기형적인 식민지적 공업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자립 경제의 기본의 기본인 기계 제작 공장들은 물론, 금속 제품, 전기 시설, 화학 제품 등 자립적 공업에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들도 거의 없었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는 조선에서 현대적 생산 시설이 요구되지 않았으며 그들은 아주 야만적인 착취 방법으로 우리 조선 사람들을 노예와 같이 부려 먹었다. 이 때 일본 사람들은 생산과 건설을 기계화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계화할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선집, 제 4권, 359페지).

특히 일본 침략자들은 조선 로동자들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철저히 봉쇄하였으며 조선 학생들의 기술 계통 학교의 입학까지 백방으로 제한하였다. 그리하여 조선 사람들은 기계는 물론 연필 한 자루도 자체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지 못하였다.

일제는 조선에서 공업 뿐만 아니라 농촌 경리의 독자적 발전도 저해하면서 농산물 략탈에 날뛰였다. 그들은 조선을 강점하던 첫날부터 악명 높은 소위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하여 조선 농민의 막대한 토지를 강도적으로 략탈하였으며 그 후 소위 《산미 증식 계획》, 《농촌 진흥》 등 각종 미명 하에 토지 및 농산물 수탈에 광분하였다.

일제는 농촌에서 봉건적 관계를 강압적으로 유지하면서 농민 경리를 령락시켰으며 농민들을 고률의 소작료, 세금 및 고리대 등으로 짜내고 강제 부역제를 실시하는 등으로 기아 선상에서 헤매게 하였다.

일제의 축소된 통계에 의하더라도 1940년도의 절량 농가 호수는 전 농가 호수의 40%에 해당하는 140만 호에 달하였다.

일제는 조선 농민들을 이렇게 처참한 지경에 몰아 넣는 한편 해마다 막대한 량의 량곡을 략탈하여 일본으로 반출하거나 조선 및 중국에서의 군대 수요에 충당하였다.

실례로 1932~1936년 간 년 평균 미곡 생산량은 1천 700만 2,000석이였는데 그 중 일본으로 가져 간 미곡량은 그 절반을 넘는 875만 7,000석에 달하였으며 어떤 해에는 1천만 석을 초과하였다.

일제의 미곡 략탈에 복종된 편파적인 농업 구조, 낮은 단위당 수확고, 토지 예비의 사장과 경작지의 감소, 원시적인 생산 도구, 관개 시설의 불비, 농민 경리의 령세화와 농민들의 대중적 령락 및 류랑—이것은 근면한 조선 농민에게 농업 생산력 발전을 위한 어떠한 여지도 주지 않은 일제의 략탈적 농업 정책의 후과였다.

미제의 적극적인 지지와 방조 밑에 일제의 조선 강점과 략탈의 결과는 바로 이러하였다.

미제와 서로 짜고 서로 협력하면서 조선을 야만적으로 지배하던 경험을 가진 일제가 오늘 다시금 미제의 비호 하에 재생하여 미제의 아세아 침략의 《돌격대》로 등장하고 있으며 자기의 옛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호시탐탐 조선 재침입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러한 탐욕스러운 일본 독점 자본에 남조선 경제를 내맡기려 하면서 《경제의 부흥》을 떠벌리는 장면 일당의 주장이 얼마나 위험하고 황당무계한 것인가는 너무나도 명백하다.

경제적 자립이 없이 정치적 독립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인민이 오래 동안 체험한 교훈에서 뿐만 아니라 지난 16년 간의 남조선의 참혹한 형편이 잘 설명하여 주고 있다.

오늘 남반부에서는 미제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일제의 식민지 략탈의 후과의 청산은 고사하고 경제는 더욱더 혹심한 파국 상태에 빠져 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과연 일본 독점 재벌이 남조선에 기여 들어 와 파국에 처한 경제를 수습하고 자립적 경제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단 말인가?

일제는 36년 간 조선의 지하 자원을 그렇게도 대량적으로 략탈하면서도 조선에 기계 공장 하나 세우지 않았다. 이들은 조선의 민족 산업을 위하여 공장, 광산, 발전소를 건설한 것이 아니라 오직 식민지 초과 리윤을 짜내기 위하여서였다.

이 자들이 36년 동안 겨우 만들어 놓은 몽리 면적 34만 정보에 달하는 관개 시설도 조선의 농업 생산력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였다. 다만 조선에서 기름진 미곡의 보다 많은 략탈을 위하여서였다.

이 흉악한 침략자에게 남조선 경제를 내맡기는 것은 과거보다 더 악랄하게 조선의 부원을 모조리 략탈할 길을 열어 주는 것으로 되며 그에게 아세아 침략의 발판을 더욱 닦아 주는 것밖에 달리 될 수 없으며 남조선의 현 파국 상태를 더욱 확대 심화시킬 뿐이라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오늘 남조선의 사회계와 정계 등에서 장면 일당이 미제의 조종 하에 일본 독점 자본을 끌어 들이려고 흉책하고 있는 데 대하여 규탄의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는 것이 우연하지 않다. 남조선 인민들의 치렬한 항거는 드디여 《일본 경제 시찰단》의 남조선 방문을 일단 좌절시키고야 말았다.

현 남조선 사태로부터의 유일한 출로는 외래 제국주의자들의 자본에 의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남조선을 오늘과 같은 파국에 빠뜨린 미제를 철거시키고 일본 독점 자본의 침투를 배격하고 북반부에 축성된 강력한 자립적 경제 토대와 자립적 경제 건설의 고귀한 경험에 의거하여 남조선 경제를 복구 건설하며 남북 경제를 통일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다.

김 일성 동지가 8.15 해방 15주년 경축 대회 보고에서 제시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남북 간의 경제, 문화 교류를 실현할 데 대한 새로운 방안과 그를 구체화한 최고 인민 회의 제 2기 제 8차 회의의 제안을 실현함으로써만 파탄된 남조선 경제를 복구하며 령락된 남조선 형제들의 생활을 구원할 수 있다.

남조선 농업의 파국적 위기

윤 상 수

1

미제 강점 하의 남반부 농촌 경리는 극도로 황폐화되여 오늘에 와서는 수습할 수 없는 파탄 상태에 놓여 있다. 농업 생산력이 혹심하게 파괴됨에 따라 그 생산은 전면적으로 감퇴되였으며 농민들은 기아와 빈궁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예로부터 곡창 지대로 이름난 령남 지방에서까지도 벌써 때아닌 《춘궁기》에 접어 들어 무서운 기아 상태에 빠져 들고 있다.

남조선 농촌 경리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오늘 남조선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위기의 근본 원인은 미제의 남조선 강점과 그의 남조선 농촌에 대한 식민지-군사 기지화 정책에 있으며 남조선 괴뢰 정권이 미 제국주의자들의 새 전쟁 도발과 식민지 예속화 정책에 충실히 복무하면서 략탈적 농업 정책을 실시한 데 있다.

현 시기 식민주의의 주되는 아성인 미제는 조선 인민의 력사적인 철천지 원쑤이다.

미제는 남조선을 발판으로 하여 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고 전 조선을 그의 식민지로 만들며 이를 아세아 대륙을 침략하는 군사 기지로 만들기 위하여 광분하고 있다.

미제는 남조선 농촌을 각종 군사 기지와 군사 도로망으로 얽어 놓으며 침략군의 값눅은 대포'밥의 조달을 위한 중요 원천으로 삼고 있다.

미제는 군사적 팽창의 목적을 위하여 뿐만 아니라 경제적 침략을 위하여 남조선을 그들의 과잉 상품의 독점적 판매 시장으로 전환시켰다. 미제는 과잉 상품을 대량 강매하기 위하여 남조선 민족 공업과 함께 농업 생산을 파탄시키려고 획책하였다.

이와 같은 략탈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제는 무엇보다도 남조선 농촌의 현존한 봉건적 토지 소유 제도를 그대로 보존할 필요가 있었다. 왜냐 하면 일반적으로 봉건적 제 관계는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적 략탈의 유리한 지반으로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제는 남조선 농촌에서의 봉건적 제 관계를 종래의 형식 대로 존속하여 갈 수는 없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북반부에서 실시된 토지 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 개혁의 성과, 전후 사회주의 진영의 형성, 식민지 및 반식민지 나라들에서의 민족 해방 운동의 앙양 등 전변되는 국내외 정세에 고무된 남조선 인민들의 혁명적 진출의 장성 강화에 기인한다.

이와 같은 국내외 정세는 봉건주의 억압에서 신음하는 남조선 농민들을 무한히 고무하였으며 그들로 하여금 미제와 괴뢰 도당의 략탈적 농업 정책을 반대하여 토지 혁명을 요구하여 견결히 진출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미제와 괴뢰 도당은 토지를 요구하여 궐기한 남조선 농민들을 무마하기 위하여 일시적이나마 남조선 농촌에서의 봉건적 토지 관계에 그 어떠한 변경을 시도하는 것 같이 서두르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한 초기 이미 전 일본인 소유 토지를 《불하》하기 시작하였으며 리 승만 괴뢰 정부로 하여금 《농지 개혁》을 실시하게 한 것은 바로 이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미제의 이와 같은 기만적 시책들은 남조선 농촌에서 봉건적 제 관계를 청산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계속 보존함으로써 그들의 식민지-군사 기지화 정책 집행의 유리한 지반으로 되게 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미제와 괴뢰 도당은 《토지를 요구하는 남조선 농민들의 반항을 무마하기 위하여 기만적인 소위 <농지 개혁>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농지 개혁>은 지주 소유를 그대로 보존하였으며 공개적인 또는 은페된 각종 형태로 농민들을 소작 제도에 얽매여 놓고 있다》(선집, 제 5 권, 137페지).

미제와 괴뢰 도당이 남조선에서 실시한 《농지 개혁》은 우리 당이 북반부에서 실시한 무상 몰수, 무상 분배 원칙에 립각한 민주주의적 토지 개혁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철저히 기만적이며 략탈적인 것이였다. 이것은 미제의 제국주의적 본질 자체에 의하여 미리 규정되는 것이다. 그들은 이를 통하여 남조선 농촌에서의 자기의 정치적 지반인 지주 계급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민들에 대한 제국주의와 예속 자본의 착취를 가일층 강화할 수 있는 지반을 마련해 놓았다.

그러면 미제와 괴뢰 정권은 《농지 개혁》을 통하여 또 그 후 시기에 있어서 남조선 농촌에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를 어떻게 보존하여 왔는가?

첫째로 미제와 괴뢰 도당은 남조선 지주들로 하여금 《농지 개혁》에 대처하여 막대한 소유 농지를 공개 또는 은페된 각종 형태로 계속 보존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출 수 있게 하였다.

해방 직후부터 토지를 요구하는 남조선 농민들의 항의에 질겁한 미제는 기만적인 《농지 개혁》의 실시를 가장하면서 고의적으로 그의 실시 기간을 지연시켰다.

이리하여 기만적 《농지 개혁》의 실시를 준비하는 4~5년 기간은 남조선의 봉건적 지주들로 하여금 당연히 몰수되여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되여야 할 광대한 농지를 계속 봉건적 착취의 대상으로 확보할 수 있게 개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되였다. 이 기간에 남조선 지주들은 그들의 소작지의 최소한 65.2% 이상을 형식상의 소유권 이전(移轉) 또는 《자경(自耕)》 형식으로 재편성하였다. 형식상 소유권 이전에는 강제 매각의 방법으로 그 토지를 소작하던 농민에게 매각한 후 그 농민을 그들의 채무 노예로 계속 속박하거나 또는 소작 농민에게서 소작권을 박탈하여 더욱더 신분적 예속 관계에 있는 친척 친지의 명의로 형식상 소유권 변경을 하는 방식들이 있었다. 물론 이 토지들 중 일정한 부분이 부유한 농민들의 수중에 매각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남조선 농민들의 생활 처지로 보아 절대 다수의 농민 대중을 이루는 토지 없는 또는 토지 적은 빈농민들과 중농 하층의 농민들이 이 토지를 매상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또 강제로 매각된 이 토지들이라 할지라도 오늘에 와서는 그의 대부분이 지주, 부농의 수중에로 재집중되였다. 이리하여 《농지 개혁》에서 제외된 농경지의 대부분이 의연히 《내소작(內小作)》 등 은페된 각종 형태로 봉건적 착취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둘째로 미제와 괴뢰 정부는 지주들이 은페된 소작 형태로 토지를 계속 보유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농지 개혁》을 통하여 공공연히 소작 제도를 계속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미제와 괴뢰 정부는 남조선 봉건 지주들로 하여금 농사를 《지휘 감독》한다는 구실 하에 질병, 《공무(公務)》, 취학 등을 구실로 최소한 3정보의 토지를 소작 줄 수 있게 하였으며 조상의 묘지의 관리를 위한 위토(位土)로서 묘지 1개당 최소한 2단보의 농지를 소작 줄 수 있게 하였다. 그 뿐 아니라 교회, 사찰을 비롯한 종교 단체들과 학교들의 소유 농지들은 《자영(自營)》한다는 구실 하에 막대한 농지를 계속 보유할 수 있게 하였다. 상전, 과수원, 종묘포를 비롯하여 기타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들과 하천 부지, 개간지, 간석지, 산림 등에 관하여서는 그 면적의 제한 없이 보유할 수 있게 하였다. 이리하여 방대한 토지가 지주들과 괴뢰 통치 기관들의 수중에 장악되였다.

세째로 《농지 개혁》을 통하여 《분배》되였다는 농경지 자체도 그 대부분이 지주, 부농들의 수중에 재집중되였다. 1951년 《농지 개혁》에 의하여 《분배》된 농경지는 1945년 현재 대상 면적의 34.8%에 해당하는 56만 833정보에 불과하였다. 그나마도 고농들은 경작 능력이 없다는 구실 하에 《분배》에서 제외되였으며 또 그것을 《분배》 받은 농민들도 고률의 《농지 대'가 상환곡》의 지불 의무를 지게 되였을 뿐만 아니라 《자작농》이 되였다는 구실 하에 과중한 기타 세금들의 중하를 걸머지게 되였다.

미제와 괴뢰 정부의 《농지 대'가 상환곡》 수탈은 형식상 《분배》 농지의 해방 전 《평년작》 수확량의 150%를 5년 간 분납하는 것으로 규정되였다.

그러나 해방 후 농업 생산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파탄되고 단위 면적당 수확고가 감소된 관계로 《상환곡》의 규모는 《개혁》 후 평년작 실수확고의 250%에 달하며 따라서 《분여》 받은 농민들은 5년 동안 매년 수확 량의 50% 이상을 《상환곡》으로 략탈 당한 것으로 된다.

미제와 괴뢰 도당은 현재 이미 약 1천 900만 석의 《상환곡》을 략탈하였다.

이리하여 농지를 《분배》 받은 농민들은 5년간에 걸쳐 매년 《분배》 농지의 수확고의 50%와 《토지 수득세》를 비롯한 기타 가렴 잡세를 합하여 실지 수확량의 80% 이상을 략탈 당하게 되였다. 남조선 농민들은 이와 같은 가혹한 착취 과정을 통하여 《분배》 농지의 대부분을 다시 방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남조선 지주들은 《농지 개혁》을 통하여 취득한 토지 대'가와 고률의 봉건 지대를 생산 자본화할 대신에 또다시 토지 자본화하였다. 이리하여 토지의 지주 수중에로의 재집중이 활발히 진행되였다. 토지를 상실한 이 농민들은 소작, 병작(幷作), 고지(雇只), 위토답, 행랑답, 산

지기답, 머슴답 등 각종 소작 형태로 봉건 지대의 지불 의무를 지고 또다시 지주, 부농들에게 예속되게 되였다.

지주들의 수중에로의 토지의 재집중과 농민들의 영락 과정이 촉진됨에 따라 일시 은페된 형태로 존재하던 소작 제도들도 공개적 형태를 띠고 나타나게 되였으며 새로 토지를 매수 집중한 《신흥 지주》들이 출현하고 있다. 남조선 출판물이 보도하는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250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들을 비롯하여 군소 지주들이 토지 수탈에 공공연히 나서고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미제와 괴뢰 도당은 막대한 면적의 토지를 《농지 개혁》에서 제외하여 봉건 지주들에게 계속 보존시켰을 뿐만 아니라 《농지 개혁》을 통하여 소위 《분여》한 토지들도 거의 대부분이 지주, 부농들의 수중에 재집중케 하였다.

남조선에서 농업 생산 과정을 통한 농민 수탈은 봉건 지주들의 봉건적 고률 지대 뿐만이 아니다. 《수리 조합》을 비롯하여 지주, 부농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기구들과 역축들이 모두 농민 수탈의 수단으로 되고 있다.

미제와 괴뢰 도당은 일제로부터 물려 받은 《수리 조합》 기구를 그대로 리용하면서 남조선 농민들을 착취하고 있다.

현재 남조선 《수리 조합답》 면적은 23만 6,000정보 내외에 달하는바 이 《수리 조합답》을 경작하는 농민들은 《수리 조합》으로부터 고률의 《수세》를 강탈 당하게 된다.

《수세》는 저수지의 시설 종류에 따라 당해 《수리 조합답》에 부과되는 《토지 수득세》액과 동일하거나 그 2배 이상에 달하는 가혹한 것이다.

미제와 괴뢰 도당의 략탈적 농업 정책의 결과 오늘 남조선 농가들의 농기구와 축력 보유 형편은 일제 강점 시기보다도 더욱 락후한 처지에 있다. 례컨대 1940년에 남조선에서 보습 1개당 농가 호수가 8.8호였다면 현재는 16.5호로 증가되였다. 남조선 농업에서 가장 힘든 작업의 담당자로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소의 100호당 두수는 동 기간에 약 27%가 감소되였다.

이와 같이 농기구들과 축력의 보급 상태가 더욱 락후하여 감에 따라 소수의 지주, 부농들은 그것을 밑천으로 농민들로부터 고률의 임대료를 수탈하고 있다.

2

미제와 괴뢰 도당은 기만적 《농지 개혁》을 통하여 지주들로 하여금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를 보존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남조선 농촌에서의 그들의 정치적 지반을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및 예속 자본의 고률 수탈을 강화할 수 있게 그들의 농촌 착취 체계를 재편성하였다.

이와 같은 착취 체계 중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조세 체계이다.

미제와 괴뢰 정부는 종래 금납으로 수탈하여 오던 《지세》를 비롯하여 수개 종목의 조세를 《토지 수득세》란 명칭 밑에 물납세로 개편하였다. 미제와 괴뢰 정부는 《토지 수득세》를 통하여 남조선 농민들로부터 매년 100만 석 이상의 량곡을 현물로 략탈하고 있다. 이와 같은 략탈 규모는 괴뢰 정부의 소위 《법정 가격》으로 환산하더라도 종래의 금납제보다 10여배 이상 높은 것으로 된다.

미제와 괴뢰 정부가 종래의 남조선 농민들에게 부과하던 금납 조세를 물납으로 개편한 목적은 어데 있는가?

그것은 더욱 교활한 방법으로 남조선 농민들로부터의 수탈을 더욱 강화하는 데 있다. 미제와 괴뢰 도당은 그들의 식민지-군사 기지화 정책과 특히는 그들이 도발한 전쟁으로 인하여 더욱 앙등된 남조선의 악성 인프레의 중하를 농민들에게 부담시키려고 하였다. 침략군의 급격한 증가에 의한 군량미의 대량적 부족은 현물 《토지 수득세》 강탈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충할 도리가 없었다.

남조선 농민들은 《토지 수득세》 뿐 아니라 《지방세》들과 수십종에 달하는 기타 가렴 잡세를 괴뢰 정부 각급 기관들에 의하여 략탈 당하고 있다.

이리하여 남조선 농민들은 《토지 수득세》만으로도 시'가로 환산하여 괴뢰 정부 조세 수납의 약 70~80% 이상을 담당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 정부 《예산》 지출에서 농업 부문에 대한 지출은 거의 보잘 것 없다.

례컨대 1957년 괴뢰 정부 《일반 예산》 지출에서 농업 부문 지출 총액은 약 2.7%로 예상되여 있으나 그나마도 대부분이 괴뢰 정부의 농촌 수탈 기관 및 농사 시험장의 유지비 형태로 지출되고 농촌 시설비로 지출되는 것은 예산의 0.02%에 불과하였다.

미제와 괴뢰 도당이 남조선 농민들을 수탈하는 다른 주요한 공간들은 신용 및 류통 체계를 통한 것이다.

신용 및 류통면에서 농민 착취를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농업 은행》 및 《농업 조합》들이다. 미제와 괴뢰 도당은 일제로부터 물려 받은 농촌 착취 기구들인 《금융 조합》, 《산업 조합》, 《농회》 등을 해산하고 1957년에 《농업 은행》과 《농업 조합》 등을 조작하였다.

미제와 괴뢰 도당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목적은 다음과 같은 데 있다.

첫째로, 미제와 괴뢰 도당은 북반부 민주 개혁과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우러러 보며 자기들을 반대하여 진출하는 남조선 농민들을 기만 롱락하려고 하였다.

해방 후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민주주의적 토지 개혁의 실시와 더불어 일제가 조작해 놓은 농촌 착취 단체들을 모조리 청산하였으며 근로 농민들의 리익과 농업 발전을 위한 농촌 단체들이 창설되여 신용 및 류통 분야에서 농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복무하게 되였다.

특히 정전 후 농업 협동화에서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는바 이는 기아와 빈궁에서 신음하는 남조선 농민들 속에서 반미 반 리 승만 감정을 더욱 촉발시켰다. 미제와 괴뢰 도당은 이와 같은 농촌 착취 기구의 개편을 통하여 남조선 농민들의 혁명적 진출을 무마하려고 하였다.

다음으로 미제와 괴뢰 도당은 《농지 개혁》 후 조성된 농촌 형편에 적응하여 농민들을 집단적으로 《손 쉽게》 략탈하려고 하였다.

미제와 괴뢰 도당은 《농지 개혁》 후 더욱 심화된 남조선 농촌 경리의 령세화와 농산물 분포의 분산성에 고려를 돌렸다. 《새로》 조작된 착취 기구들은 이와 같은 령세 농가들을 단위 《조합》들에 강권적으로 결박하고 공동 판매란 구실 하에 《조합》 농민들의 농산물을 눅은 가격으로 수집하며 또한 공동 구입이란 구실 하에 미제 잉여 상품을 《조합》 농민들에게 고가로 강매함으로써 이들을 집단적으로 략탈하는 데 편리하였다.

이리하여 《농업 은행》과 《농업 조합》은 호상 결합되고 보충되면서 남조선 농민들을 채무 노예화하고 있다.

《농업 은행》은 직접 농민들을 상대로 신용면을 통하여 략탈을 진행함과 동시에 《농업 조합》을 통하여 농민들을 대상으로 신용면을 통한 착취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농업 조합》은 또한 《농업 은행》에 종속되여 융자를 받게 됨으로써 류통 분야를 통한 농민 수탈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미제와 괴뢰 정부는 이와 같이 그들의 농촌 착취 기구들을 재편성한 후 종래 그들이 리용하고 있던 일제로부터 계승 받은 농촌 수탈 방식에 일정한 변경을 가하였다. 강제 공출, 강제 수집, 강제 매상 대신에 다른 일련의 《새》 방식들이 채용되였다. 《새로 고안》한 량곡 략탈 방법이 바로 《량곡 담보 융자》제, 《량곡 교환》제, 《량곡 대여》제 등이다.

미제와 괴뢰 정부가 《농업 은행》과 《농업 조합》을 통하여 집행하는 소위 《량곡 담보 융자》는 한편으로는 농민들을 고리대적으로 착취하며 다른 편으로는 대량적으로 농민의 량곡을 강탈하는 교활하며 가혹한 방법이다.

남조선 농민들이 미제와 괴뢰 도당의 략탈적인 농산물 가격 인하 정책의 중압에 못 이겨 《량곡 담보 융자》에 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바 량곡 담보량은 해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미곡은 140만 석 내외이며 하곡은 50만 석 정도이다.

남조선 농민들은 미제와 괴뢰 도당의 강권에 못 이겨 생산비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으로 량곡을 담보로 하고 융자를 받게 된다. 농민들이 융자금을 반환하고 담보 량곡을 다시 찾아 오기 위하여는 높은 리자와 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루적되는 제 부담으로 말미암아 융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담보로 제공하였던 량곡까지 략탈 당하게 된다.

농민들은 미곡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리자와 제 비용을 합하여 년간 환산으로 원금의 131%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고리대의 조건 하에서 《담보미》가 다시 농민의 손에 돌아 오기 어려우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남조선의 미곡 시세로 보아 농민이 미곡을 담보로 융자 받은 융자금에 금리와 제 비용을 합한 금액이 미곡의 당시 시'가를 넘는 것이 보통 현상이며 간혹 미곡의 시'가가 이 금액을 넘는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리 대금업자나 중간 상인들과 같이 언제나 준비된 돈이 없는 근로 농민들은 불가피적으로 담보 량곡을 상실하게 된다.

장 면 도당이 괴뢰 정권에 들어 앉은 후 《미곡 담보 융자》 규모는 더욱 확대되였다. 장 면 도당은 1960년도 산 미곡에 대한 《담보 융자》량을 180만 석으로 대폭 증가시키고 남조선 농민들로부터 미곡을 대량적으로 략탈하기 위하여 광분하고 있다.

미제와 괴뢰 도당은 《량곡 교환》, 《량곡 대여》 등을 통하여 농민들의 미곡을 고리대적으로 략탈하고 있다. 이에 있어서 미제와 괴뢰 도당은 남조선 농민들의 혹심한 궁핍을 리용하고 있다. 그들은 춘궁기를 리용하여 농민들에게 잡곡을 주고 가혹한 고리대적 조건으로 미곡을 교환(즉시 또는 외상으로)하여 가는

바 여기서 교환용으로 사용하는 잡곡은 바로 미제가 강제 투입한 잉여 잡곡이다. 그들은 년간 약 70만 석 내외의 잉여 잡곡을 교환용으로 리용하여 거의 동등한 량의 벼를 략탈하여 가면서 뻔뻔스럽게도 이것이 남조선 농민들의 《영양을 도웁기 위해 혼식을 장려》하는 조치라고 뇌까리고 있다.

그러나 량곡의 국제 시장 가격에 의하여 환산하면 남조선 농민들은 《량곡 교환》에 의하여 매년 4~6개월 간에 약 90%로 계산되는 고리를 부담하는 것으로 된다.

미제가 남조선에 강제 투매하는 잉여 농산물은 소위 《경제 원조》 총액의 약 30%에 달한다. 금년에 투입하기로 예정된 량곡만도 약 500만 석에 달한다. 이 잉여 농산물은 남조선 농산물들을 압박 구축함으로써 농촌 경리를 파탄시키고 있다.

미제와 괴뢰 도당은 미국 농산물의 다량 투입을 통하여 남조선 농업 생산을 파탄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미제 잉여 공상품을 높은 독점 가격으로 강매함으로써 농민들을 수탈하고 있다. 비료, 농약을 비롯하여 각종 잉여 상품들이 국제 시장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다. 거기에다 남조선 예속 자본가들의 고률의 리윤까지 첨가되여 《농업 은행》, 《농업 조합》 등 착취 기구를 통하거나 자유 시장을 통하여 농민들에게 고가로 판매되고 있다.

남조선 농민들은 이상과 같은 미제의 독점 가격 정책에 의하여 공업산물과 농산물 간의 극심한 협상 가격의 강요에 의하여 혹심히 수탈 당하게 된다.

남조선 농민들에 대한 착취 공간들은 이에만 그치지 않는다. 남조선의 지주, 부농, 중간 상인, 예속 자본가들이 미제와 괴뢰 관권의 비호 하에 고리 대금업자로 나타나고 있는바 궁핍에 신음하는 남조선 농민들은 월간 리자 4~7% 내지 10%를 넘고 있는 고리채를 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현물 고리채에 있어서는 리자가 더욱 높은바 《장리곡》, 《색결이》와 아울러 《립도 선매》, 《립맥 선매》, 《백전 선매》 등 가혹한 살인적 고리대적 착취가 만연되고 있다. 오늘 남조선 농가의 90% 이상이 고리채에 신음하고 있는바 그 부채액은 1호당 근 10만 환에 달한다.

3

이상과 같이 미제와 괴뢰 도당은 모든 략탈 공간들을 다 동원하여 남조선 농민들을 착취하고 있는바 그 결과로 남조선 농민들의 생활 형편은 처참한 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 처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제국주의와 봉건주의 및 예속 자본의 2중 3중의 압박과 착취 밑에서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은 참을 수 없는 빈궁과 무권리의 구렁텅이에 빠져 들어 가고 있다》(선집, 제 4권, 515페지).

미제와 괴뢰 도당의 략탈적 농업 정책의 결과 남조선 농업 생산과 그 물질 기술적 토대는 전면적으로 파탄되였다. 농경지 면적은 해방 전보다도 약 20만 정보가 감소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비옥도가 체계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관개 시설과 치산 치수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결과 남조선 농촌은 사흘 가물어도 한재 소동, 하루만 비가 와도 홍수 소동—《만년 한재, 만년 홍수》 지대로 전변되였다. 이리하여 남조선 농업 생산의 불안정성은 더욱 심화되여 가고 있다.

남조선 농업 생산에는 선진 농기계는 고사하고 호미와 낫 등 중세기적 농기구조차 점차 감소되여 가고 있다. 물질 기술적 토대의 전면적 파탄과 관련하여 농업 생산도 전면적으로 감소되였는바 남조선 농업 인구 1인당 알곡 생산량은 북반부의 그것에 비하여 3분의 1에 불과하며 해방 전에 비하더라도 맥류는 40%, 기타 잡곡은 60% 이상 그 생산이 감소되였다.

이와 같이 착취는 강화되고 생산이 감퇴됨에 따라 근로 농민들의 대부분은 확대 재생산은 고사하고 단순 재생산조차 불가능하게 되였다. 1958~1959년 간에 있어서 남조선 농가의 86.4% 이상에 해당하는 1.5정보 이하의 경영 규모의 농가는 그들의 년간 농업 수입으로 자기들의 최저 생활비의 태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농민들은 부족되는 최저 생활비의 보충을 위하여 품팔이를 비롯하여 각종 고역에 의존하거나 초근 목피로 연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결과로 남조선 농촌에서는 빈농, 고농의 증대와 중농층의 쇠퇴를 동반하는 농민들의 계급 분화 과정이 더욱 촉진되고 있다. 1945년으로부터 1958년에 이르는 기간에 고농까지 포함하여 빈농으로 대표되는 1정보 미만의 농가 비률은 65.3%로부터 72.6%로 증대된 데 반하여 1~2정보의 농가 비률은 22.2%로부터 20.9%로 감소되였다. 0.5정보 이하의 경작 규모를 가진 극빈농에 한하여 본다면 동 기간에 약 26만 호가 늘었으며 그 비률은 32.8%로부터 42.2%로 더욱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수'자들은 오늘 남조선 농촌에서 계급 분화 과정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리하여 민족 공업이 전면적으로 파탄된 조건 하에서 토지를 상실한 농민, 령세한 토지에 결박된 농민들은 계속 농촌에 잠복하여 농촌 《과잉 인구》를 형성하게 된다. 미제와 괴뢰 정부는 이 《과잉 인구》를 그들의 남조선 농촌에서의 군사 시설 확장에 요구되는 로동력과 고용병 조달을 위한 유리한 지반으로, 또한 《이민》의 명목 하에 미국 농장주들의 종신 노예 확보의 유리한 지반으로 리용하고 있다.

미제와 괴뢰 도당은 그들의 략탈적 농업 정책이 빚어 낸 이와 같은 엄중한 사태를 호도하기 위하여 갖은 술책을 다하고 있다. 그들은 남조선 농업을 심각한 위기에 빠뜨린 근본 원인이 자기들의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군사 기지화 정책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같이 떠들어 대고 있다.

그들은 남조선 농민들이 겪고 있는 불행과 고통의 근원이 숙명적인 《과잉 인구》에 있다느니, 《자연 지리적 조건》에 의한 한재와 수재에 있다느니, 남조선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후진국에서 볼 수 있는 잘 살겠다는 의욕의 부족》에 있다고 떠벌리고 있다. 한편 그들이 떠들어 대는 《농촌 진흥》 술책도 일제가 조선 농촌에 대한 략탈의 강화를 위하여 쓰던 수'법과 본질적으로 구별되지 않는다.

미제와 괴뢰 도당이 뇌까리는 《농촌 진흥》의 중요한 내용 중에는 《교도(敎導)》와 《지역 사회 개발》 정책들이 속한다. 그들은 《교도》에 의하여 남조선 농민들에게 《잘 살겠다》는 의욕을 돋구어 주며 《지역 사회 개발》에 의하여 농촌의 《과잉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남조선 농업의 파국을 《구원》하겠다고 기만하고 있다. 《교도》와 《지역 사회 개발》 정책의 략탈적 본질은 다음과 같은 데 있다.

그들은 영농 기술의 《교도》라는 구실 하에 미국 잉여 농산물의 효과적 투매에 유리하게 남조선 농업 생산을 재배치할 뿐 아니라 이를 파괴하고 있다. 그들은 《교도》의 미명 하에 농민들 속에서 미곡의 소비 절약과 잡곡의 상용(常用)을 설교하면서 미곡의 최대한 략탈을 획책하고 있다.

그들은 《지역 사회 개발》을 운운하면서 농촌의 《유휴 로력과 기술의 효과적 결합》이라는 기만적 구호 밑에 부락 단위로 농민들의 집단적 동원을 강요하고 있다. 농민 로력의 집단적 동원에서 달성하려는 목적은 농업 생산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군용 도로, 항만 수축을 비롯하여 군사적 시설들의 수축과 전략 자원의 략탈에 있다.

그들은 또한 《교도》와 《지역 사회 개발》 정책을 통하여 남조선 농민들 속에 종교 독소를 전파시키며 《향약(鄕約) 제도》를 설교하면서 봉건주의적 의식과 《묵종(默從)》에 관한 노예 사상을 주입하며 숭미, 친미 사상을 고취하고 있다.

이상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교도》와 《지역 사회 개발》 정책은 오늘 남조선 농업을 파국적 위기에 몰아 넣고 있는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와 제국주의 및 예속 자본의 착취의 청산, 파탄된 남조선의 농업 생산의 물질 기술적 토대의 복구와 구축, 령락된 농민 생활 처지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제의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군사 기지화 정책을 위하여 농민들의 로동력을 무제한 략탈하며 농민들의 계급적 및 민족적 각성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조선 출판물들까지도 《교도》와 《지역 사회 개발》 정책을 조롱하면서 《우리 농촌 실태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렇다 할 전진은커녕 해마다 더욱 피폐일로를 걷고 있다》고 하였다. 리 승만을 대신하여 장 면 도당이 괴뢰 정권에 들어 앉은 후에 있어서도 사태는 동일할 뿐 아니라 더욱 악화되고 있다.

남조선 농업을 그의 파국으로부터 종국적으로 구원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미제를 남조선에서 철거시키며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고 우선 민주주의적 토지 개혁을 실시함으로써 농민들을 토지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광범한 토지 개간 사업을 진행하여 농민 경리의 령세성을 극복하고 농업 생산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구축하며 도탄에 빠진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데 대한 제 대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 이렇게 함으로써만 남조선 농업을 파국에 몰아 넣고 있던 근원들 즉 남조선 농촌에 강권적으로 보존된 봉건주의 제 관계와 제국주의 및 예속 자본의 억압을 청산하고 농업 생산력 발전을 위한 광활한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최고 인민 회의 제 2기 8차 회의는 중요 과업의 하나로서 남조선 농업을 구원할 데 대한 김 일성 동지의 강령적 교시를 구체화하였다. 최고 인민 회의는 조국의 통일 위업이 달성되지 못한 현 조건 하에서라도 남조선 농업의 파국적 위기를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

책을 제기하였다.

우선 남조선에서 토지 문제의 옳바른 해결을 위하여 밭갈이하는 농민이 땅의 주인이 되도록 《농지 개혁》의 후과를 수습하며 새 땅을 개간하여 농민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제기하였다. 미납된 《농지 대'가 상환곡》의 잔여분에 대한 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상환곡》을 물기 위하여 짊어진 농민들의 부채와 지주들에게 갚아야 할 《농지 대'가》 잔액을 국가가 부담하며 현존하는 일체 소작지를 전부 매상하여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할 것이며 농민들에게 토지를 더 차례지게 하기 위하여 군용지로 략탈한 토지를 농민들에게 반환하고 6~7년 내에 100만 정보의 새 땅을 개간하여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할 것이다.

다음으로 농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의 구축을 위하여 관개 시설을 복구 확장하고 치산 치수 사업을 광범히 실시하며 현대적 기계와 선진 영농 방법을 광범히 도입하여 농업을 다각적으로 발전시키고 농업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시켜야 할 것인바 6~7년 내에 62만 정보의 수리 불안전답을 일소하고 남조선 농촌이 현대적 농기계들과 선진 영농 방법에 의거하여 토지 리용률을 제고시킴으로써 단위당 농업 생산을 획기적으로 장성시켜야 할 것이다.

끝으로 남조선 농업을 파국에서 구원하기 위하여는 농업 생산의 물질 기술적 토대의 구축과 더불어 빈농민들의 생활을 시급히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과중한 농민들의 부채를 국가 부담으로 상환하고 세률을 인하하며 각종 가렴 잡세와 부역 제도를 폐지하고 농민들의 리익에 복무하는 농촌 단체들을 창설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모든 시책을 실지하자면 막대한 자재와 자금이 요구될 것인바 남조선 당국이 이를 담당해 낼 수는 없는 조건 하에서 최고 인민 회의는 이의 해결을 위하여 북반부의 강력한 경제력과 중공업에 의거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것은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 법칙으로 하는 우리 당이 남조선 농민들에게 주는 크나큰 동포애적 배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조선 농업을 구원할 데 대한 우리 당의 이 강령은 오늘 광범한 남조선 농민들 속에 거대한 생활력을 가지고 침투되고 있다.

남조선 농민들은 그들 자체의 분산성과 계급적 제한성으로 인하여 4월 인민 봉기에서 비록 적극적 진출은 하지 못하였으나 그 후 항쟁이 확대됨에 따라 농민들의 투쟁도 더욱 활발하여지고 있다. 남조선 농민들은 우리 당이 남조선 농업의 부흥을 위하여 준 강령의 실현을 위하여 《빼앗긴 농토를 달라!》, 《100만 정보의 미간지를 개간하라!》고 웨치면서 투쟁하고 있다.

얼마 전에 경상북도 경상군 하양면 내 농민 1,140명은 어용 수리 조합 창고를 집단 습격하고 《수세》라는 명목 하에 빼앗겼던 800가마니의 량곡을 탈환하였다. 대전시 주변의 농촌 농민 3,000명은 미제 침략군에게 빼앗긴 40여만 평의 경작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농민 대회를 가지고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뭉쳐서 싸우자》는 결의를 채택하고 완강하게 싸웠다.

이 모든 것은 4월 인민 봉기 이후 남조선 농민들의 투쟁이 반제 반봉건 투쟁에로 계속 심화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말하여 준다.

남조선 농업의 부흥을 위한 우리 당의 강령은 료원의 불'길과 같이 전체 남조선 농민들의 심장을 파악하고 있으며 그들의 투쟁의 물질적 력량으로 되고 있다.

근로자 제 2 호(루계 183호)

편 집 위 원 회

발 행 소 • 근 로 자 사　　인쇄소 •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발 행 • 1961년 2월 15일　　인 쇄 • 1961년 2월 10일

ㄱ—32057　　값 50전